

城南文化研究

第17號 · 2010




城南文化院
鄉土文化研究所



城南文化研究

第17號 · 2010



 城南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所

- 표지사진 : 명선공주 태항아리. 오른 쪽의 작은 항아리에 태를 넣은 후 큰 항아리에 넣어 태실에 봉안.

‘城南學’ 연구총서, 향토연구에 총력



한 춘섭(성남문화원장)

2010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그 중 역사적으로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었고, 안중근 의사 이등박문 사살 101주년 및 안 의사 순국 100주년, 광복 65주년, 6.25한국전쟁 60주년 등 잊을 수 없는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했던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다. 한편, 지방선거로 전국 각 지방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구조재편성이 이루어졌고,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국내외적으로는 국가안보의 불안과 외교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0년 6월 2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결과, 전국은 정치 행정 구조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이번 선거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994. 3)에 따른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6월 27일에 동시 실시된 이후 다섯 번째 실시된 선거이다.

지방자치 15년을 지나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긍정적 성과가 있는가 하면, 열악한 지방 정부의 재정문제 등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시 승격 37년을 맞이한 오늘의 성남시는 지난 해, 성남·광

주·하남 3개시의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과제로 진통을 겪었고, 금년에는 LH공사와 성남시 사이에서 재정 운영상의 문제로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 복지 사회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연구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우선의 과제라 하겠다. 그간 성남문화원은 묵묵히 '우리 고장의 정체성 찾기'에 주력해 왔으며, 부단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해마다 개최한 학술회의가 15차례 개최되었고, 학술토론회 8회, 성남향토문화총서 1~9호 발간, 최근 발행한 《성남인물지》 등,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 향토문화유적 지정목록이 9호에 이르는 등 우리 고장 향토문화 연구 사업은 흐르는 물처럼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되어 왔다.

『성남문화연구』는 문화원 내에 1993년 본인의 청원으로 '향토문화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듬 해에 첫 호를 발행한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구논문집을 발행해 왔고, 오늘 제 17호를 펴내게 되었다. 창간호부터 지난해 16호까지 성남 향토문화 연구 성과는 120편에 이르고, 올해 6편을 추가하여 총 126편에 달하는 연구 성과를 쌓아 올리게 된 셈이다.

성남시 승격 초기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경제건설의 현실적 과제로 인하여 뒷전으로 밀려있던 향토문화 연구를 몇 사람 뜻 있는 이들에 의해 작은 씨앗 하나 뿌려져서 이제는 17살 나이테로 굽어진 것이다.

이번 제17호는 경기향토문화연구소 한동익 소장이 〈城南地域의 역사와 충절〉을 정리하였고, 충주대 백종오 교수의 논문 〈조선시대 봉수(烽燧)유적의 문화자원 활용방안〉과 토지박물관 김주홍 학예사의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봉수표기〉 연구는 친림산 봉수지의 복원방향과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지침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한국외국어대 강진갑 교수의 〈성남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은 우리 고장에서 전개된 의병항전과 독립만세운동, 신간회 광주지회 활동 등 독립운동사의

여러 콘텐츠를 활용해서 현대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양대 이수철 연구교수는 <‘모란민속5일장’의 성립과 발전의 사회적 의미>를 발표했다. 성남향토문화연구소 윤종준 상임연구위원은 조선 현종의 딸, <명선·명혜공주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우리 고장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옮겨 간 조선시대 왕자와 공주의 묘역은 영창대군, 제안대군, 평원대군, 숙명공주 등 여럿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성남문화원은 앞으로도 성남학 연구논문 총서로는 유일한 『성남문화연구』를 통해 문화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도시 성남’의 향토문화 연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성남의 역사적 뿌리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 백

목 차

발간사	‘城南學’ 연구총서, 향토연구에 총력·한준섭(성남문화원장) …… 9
한동익	성남지역의 역사와 충절 …… 15
백종오	조선시대 봉수유적의 문화자원 활용방안 …… 59
김주홍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봉수표기 …… 95
윤종준	명선·명혜공주에 대한 고찰 …… 125
강진갑	성남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 167
이수철	‘모란민속5일장’의 성립과 발전의 사회적 의미 …… 193
부 록	성남문화연구 1~16호 연구 논문 총목록 …… 214
	학술회의 1~15회 연구 논문 총목록 …… 219
	학술토론회 1~8회 연구 논문 총목록 …… 222

여 백

城南地域의 歷史와 忠節

한동익(韓東億)

京畿鄉土文化研究所 所長

◆ 차례 ◆

- I. 서론
- II. 진한의 태생
- III. 백제시대
 - 1. 백제역사
 - 2. 백제의 전쟁사
- IV. 고려시대
- V. 조선시대
- VI. 대한제국시대
- VII. 결론

I. 서론

어느 지역이나 장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문화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고장이 속한 경기도(京畿道)가 2,200년간의 수도권으로서의 위상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옛 광주 일대의 역사적 사실 속에 충절의 정신이 어떻게 생성 계승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민족역사의 한 페이지를 찬란하게 빛낸 인물과 그로 인하여 파생된 지역정서를 재조명하여 그 빛나는 정신 사고를 인

간이 존재하는 최후의 날까지 후대들에게 길이길이 전하여 억만인의 귀감이 되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성남을 포함한 광주지역은 역사적으로 상고하여 살펴보면 2,200년간의 수도권으로서의 수많은 충신과 효자효부와 열녀 등의 의혈(義血) 열사를 배출한 곳이다. 우선은 장구한 세월동안 수도권의 지위를 유지하여 온 광주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상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위지(魏志)에 나타난 회안(淮安)이라는 이름으로 진한(辰韓)의 소도지라고 알려져 있는 광주시의 옛날 지명인 회안(淮安, 경안읍)에 대하여 고대의 역사서와 중국의 시대적 사록(史錄)들을 살펴보아 사실(史實)을 입증하는 논지를 확실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백제시대에 최대의 군사 요충지이며 군사 훈련장이었던 성남지역에 군사의 총수인 태자가 거처하며 찬란한 백제 군사문화를 창출하였던 곳인데 후일에 세자동으로 바뀌어 지금도 지명으로 남아있는 세자궁(世子宮)이 있던 성남시 창곡동의 세자동과 한 자락을 이루고 있는 하남 위례성의 정확한 위치비정을 이뤄내야 한다. 근초고왕 26년 이후 100여 년간의 수도였던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수도와 수도보위배후성으로서 역할과 군사문화의 산실로서 연관관계를 치밀하게 조사 연구하고 그 실태를 확인하여 지역의 역사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에도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뛰어난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피난 온 왕을 보위하고 지역과 영토를 지켜내기 위하여 군관과 백성들이 일치 단결하여 굳세게 지켜내어 적병들에게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던 용맹과 지혜로움을 찾아내어 밝혀두어야 한다.

조선왕조에서는 각종의 관청과 군사시설이 배치되었고 여러 임금의 능침과 사대부가 출신의 명인현사들이 국가의 원훈으로 추대되고 그분들에게 하사된 사패지가 곧바로 문중의 세장지가 되면서 문중마다 독특한 전통이 생성되어 충효, 덕,례도를 전제로 한 문중특유의 정신세계를 이

룩하였다. 그러한 정신사조의 계승으로 이어진 충렬의 정신이 수많은 외침으로 인한 전화(戰禍) 속에서도 구국전선에 분연히 뛰어들어 장렬하게 분골쇄신한 충렬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주었다. 이러한 충렬사상은 근대 개화기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남을 비롯한 광주지역의 충렬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II. 진한(辰韓)의 태생(胎生)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중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편에 기록된 내용은 준왕이 연나라 사람인 위만(衛滿)에게 쫓겨 동쪽으로 갔다는 내용과 남쪽으로 내려가 회안(淮安, 광주시 경안읍 일대)에 소도지를 정하고 나라이름을 진국, 또는 준한, 혹은 진한이라고 하였다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먼저 위만에게 쫓겨 동쪽으로 갔다는 내용에 이의를 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양이 고조선(古朝鮮)의 수도였다면 동쪽으로 갔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여야 맞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선의 왕들은 연(燕)나라 사람들과 제(濟)나라와 조(趙)¹⁾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여 왕검성(王儉城) 서쪽에 살게 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위만이 서기전(西紀前) 195년에 유이민 일천여인을 이끌고 준왕에게 투항하여 오자 준왕은 그를 박사(博士)로 삼고 왕검성(王儉城) 서쪽인 요서일대를 다스리게 하였더니 유민들을 규합하여 드디어 서기전 194년에 적도가 쳐들어오므로 왕을 호위하여야 한다는 명분

1) 광주군지편찬위원회, 광주군지(廣州郡誌), 「경인일보사」 1990년 5월 27일 p.27 참조.
한춘섭, 성남문화유산, 동명사(東明社) 1998년 10월 10일, 성남향토사 년표, 부록 p.367, BC 194년.

으로 왕검성으로 들어와 준왕을 내몰고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고 국호를 위만조선으로 하였다.

이에 오갈 곳이 없던 준왕(準王)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남하하여 옥리하(郁利河, 漢江의 옛 이름) 강가 기름진 땅을 배후지로 삼고, 회안(淮安)을 소도지(所都地, 首都)로 정하고 나라 이름을 진국(辰國), 준한(準韓), 진한으로 불렀다. 조선(朝鮮)이라는 국호는 이미 위만이 사용하였기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위지(魏志)에 한후(韓侯)가 위만에게 쫓겨 동쪽으로 갔다²⁾ 라는 기록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조선의 수도는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평양이 아니라 요녕성이나 요동성 일대 어디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된다. 그래야 요녕성이나 요동성에서 동쪽인 한반도로 갔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가? 평양에서 동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함흥으로 갔다는 말인가? 오히려 왜국으로 갔다고 하여야 올바른 기록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이 같은 준왕의 처절한 피신 후의 개국과 왕위에 재등극을 위하여 따라온 추종자들의 충성심은 누구보다도 강인하게 무장되었을 것은 자명하였을 것이다. 준왕에게 충애를 받았다거나 막연히 준왕을 추종하였더라도 공통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준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준왕을 추종한 자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기록은 없다.

준왕이 세운 나라 이름도 진한이다, 마한이다 하는 여러 설이 있다. 준왕이 정착한 소도지에 대하여서는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와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에는 전라북도 익산지방이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익산설에 대하여는 고려사를 다시 쓴 세종 이후에 전

2) 위지(魏志), 삼국지(三國志)의 동이전(東夷傳), 준왕편(準王篇)

해진 설이기에 신뢰성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익산(益山)은 마한의 수도라는 설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으나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인한 작설역사인지 느닷없이 백제의 무왕(武王)이 천도한 곳이라는 새로운 백제무왕천도론(百濟武王遷都論)이 대두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의아해하고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가 홍보를 계속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역사 왜곡의 신호탄은 아닌지? 못내 아쉬운 일이다. 고조선(古朝鮮)의 수도인 왕검성(王儉城)의 위치비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준왕(準王)의 최초 정착지를 정확하게 밝혀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광주군지(廣州郡誌)』에는 분명하게 광주시(廣州市)경안(慶安, 京安)이 옛 회안(淮安)이고 진한(辰韓)의 첫 소도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동국여지승람 지명에 광주(廣州)의 옛 이름 중에 회안(淮安)이 기록되어 있고 광주이씨 대동보³⁾ 본관(本貫)조에 회안 이씨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등이다. 또 다른 역사기록에는 준왕(準王)이 마한을 쳐서 빼앗아 국가를 세웠다는 기록도 있는데 마한을 쳐서 빼앗았다면 마한 왕으로 기록하였어야 할 것인데 남의 나라 역사서에 있는 기록이니 답답한 심정이다.

진한이든 마한이든 간에 준왕(準王)의 최초 정착지는 회안(淮安)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초창기와 중반기, 그리고 후반기로 나누어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광주에 전해 오는 설화는 고조선의 마지막왕인 준왕(準王)이 최초의 정착지인 회안(淮安, 廣州)에 머물렀으나 백제가 하북 위례성⁴⁾에 개국할 무렵에는 성거(천안 주변)에 이도하였다가 백제의 세력이 커지면서 전북 익산으로 이도하였던 것이라는 설화도 관심 있게 상고하여 보고 제반 역사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마한은 서기 2세기에서 3세기에 멸망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서기 2~3세

3) 광주이씨대동족보(廣州李氏大同族譜) 상세편(上世篇) 중 본관(本貫).

4)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溫祚王).

기에는 백제가 한강유역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었기에 한강유역에서의 진한이나 마한의 존재는 희박한 가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 「마한조(馬韓條)」에 고구려 땅에는 마읍산(馬搯山)이 있었기 때문에 마한이라고 이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마읍산(馬搯山)은 평양성 주변인 대동강가라는 심증의 기록이 있는데 “소정방(蘇定方)이 고구려 군대를 패강(溟江, 大同江)에서 격파하고 마읍산(馬搯山)을 빼앗고 마침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라는 기록이다.

『삼국지』 중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에 한은 대방 남쪽에 있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끝나고 남쪽은 왜(倭)와 연결되어 있는데 지방은 4천 리가 된다. 마한은 세 종족이 있는데 첫째가 마한(馬韓), 둘째가 진한(辰韓), 셋째가 변한(弁韓)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진한(辰韓)이 12국이다, 라는 기록도 있고 『후한서(後漢書)』에 삼한은 무릇 78국이었는데 백제는 그 중 한 나라였다, 라는 기록도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밝혀서 새로운 역사책을 만들어 전체 국민들을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II. 백제시대

1. 백제역사(百濟歷史)

백제(百濟)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백제의 영토부터 알아볼 필요(必要)가 있다.

5) 삼국사기 권 제22 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20년.

『구당서(舊唐書)』권 199. 상 열전 동이(東夷) 백제전⁶⁾을 알아본다.

“百濟國 本亦 扶餘之 別種 嘗爲馬韓故也 在京師 東 六千二百里 小海 之南 東北 至 新羅 西渡海至越州 南渡海至倭國 北渡海至 高麗基 王所 居有 東西兩城” (백제국 본역 부여지 별종 상위마한고야 재경사 동 육천이백리 소해 지남 동북 지 신라 서도해지월주 남도해지왜국 북도해지 고려기 왕소 거유 동서양 성)

백제는 본시 부여의 별종들인데 마한의 후이다. 황성에서 육천이백리이고 아산만 남쪽이다. 동북은 신라에 접하고 서쪽은 바다 건너 월주(浙江省)에 이르고 남쪽은 바다 건너 왜국까지이고 북은 고려와 접하였다. 왕의 거소는 동서 두성이 있다.

상기의 기록은 백제는 부여(扶餘)의 별종들인데 살펴보면 일찍이 마한의 옛 땅이다. 황성(皇城)에서 육천이백 리에 있고 아산만 남쪽에 위치하여 있다. 백제의 영토가 서쪽으로는 고조선과 고구려가 차지하였던 요서성 남쪽인 중국 본토의 산둥성(山東省)부터 상해의 서남쪽인 절강성(浙江省)까지이고 남(南)쪽은 일본 전역(日本全域)이라는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만으로도 우리 야사 속에 전해 오던 중국 절강성에서 요서까지에 8개의 담로(自治州)와 일본에 8개의 담로가 있었다는 옛 선조들의 역사 이야기가 컷전에 강하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이름 중 북경 위에 있는 발해만으로 흘러 나오는 강의 이름이고 조선과의 국경을 이룬다고 하여 조강(朝江)이라고 불렀었는데 중국인들이 아침 조(朝)자에 삼수(彳)변을 붙여 조수 조(潮)로 바꾸어 부른다는 사

6) 구당서(舊唐書) 권 제199. 상, 열전(列傳) 동이(東夷) 백제전(百濟傳).

실이 근자에 밝혀진 것이다.

백제의 개국 역사는 서기 전 18년에 시작되었으나 실제로 광주 일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온조(溫祚)13년(서기전 6년) 삼국사기(三國史記) 기록에 가을 7월에 한산(漢山, 南漢山城) 아래로 나아가 목책(木柵)을 세우고 위례성(慰禮城)의 민가들을 옮겼다. 8월에 사신을 마한에 보내어 도읍을 옮긴 것을 알리고 강역을 구획하여 정하였는데 북쪽으로는 패하(溟河, 禮成江)이고 남쪽으로는 웅천(熊川, 錦江)을 경계로 하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고 동쪽으로는 주양(走壤, 春川)에 이르렀다. 9월에 궁성과 대궐을 지었다⁷⁾ 라는 기록이 하남위례성으로 이도한 후에 한성백제의 영토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사실이다. 예성강에서 금강이 상하의 길이고 동으로는 춘천까지라면 지금의 경기도보다 조금 큰 면적의 나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백제의 기록들을 우선 살펴보아야 남한산성 역사(歷史)의 추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온조14년(서기전 5년) 봄 정월에 도읍(都邑, 서울)을 옮겼다. 2월에는 왕이 부락을 순행하며 위무하고 농사를 힘써 장려하였다. 가을 7월에 한강 서북쪽에 성(楊州城)을 쌓고 한성의 백성들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온조(溫祚)15년(서기전 4년) 봄 정월(正月)에 새 궁실을 지었는데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았다, 라는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온조는 재위(在位) 12년차부터 하남위례성으로 이도하기 위하여 진력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인다. 온조17년(서기전 2년) 봄 낙랑(樂浪)이 쳐들어와 위례성을 불질렀다. 이 구절을 상고하여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낙랑군이 위례성(慰禮城)에 불을 질렀다면 왕은 어느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7)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23 백제본기(百濟本紀) 권 제1 온조왕(溫祚王)13년.

하남위례성의 배후 보호산성인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신하였다는 것이 지리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논리가 아니겠는가? 남한산성은 온조가 하남위례성으로 이도한 후에 궁성 배후 보호산성으로 격상 되었을 것이고, 어떤 형태의 성곽이든 간에 세워졌다는 것이 이 지역에 전해 오는 전설이다.

온조17년 여름 4월에 사당(祠堂)을 세우고 국모(國母)에게 제사(祭祀) 지냈다. 온조(溫祚)20년(서기2) 봄 2월에 왕이 큰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친히 천지에 제사지냈는데 이상한 새 다섯 마리가 와서 날았다. 온조의 천신(天神)과 예도(禮度)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만큼 백성을 위하고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중흥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온조(溫祚)28년(서기10) 봄 2월에 맏아들 다루(多婁)를 태자(太子)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업무 일체를 맡겼다.⁸⁾ 온조의 건국이념인 강병부국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다분히 담겨 있는 국가의 명운을 건 행사였다. 이때부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세자 동에 세자궁을 짓고 군사를 훈련하였다는 이 지역의 전설과 일치하는 내용이라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도 곡탄(穀炭, 穀物化石)이 출토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백제 초기 처음에는 태자골로 불리다가 후에 태자의 명칭이 세자로 바뀌면서 세자골로 바뀌었다는 역사성과 이 지역 전설을 이해하면 된다. 현재는 위례신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 발굴사업이 꼭 필요한 유적지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자동 일대에서는 쌀과 보리 등의 곡물화석이 채굴되었었다. 또 농사철이면 가래질할 때와 논갈이할 때나 논을 맬 때가 가끔씩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하던 청기와 파편과 유리기와 파편이 출토

8)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23 백제본기(百濟本紀) 권 제1 온조왕(溫祚王)28년.

되었다는 원주민 촌로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따라다니는 지역임을 재 강조한다.

온조41년(서기23) 2월에 한수 동북쪽의 여러 부락사람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위례성(慰禮城)을 수리하고 조영하였다는 기록은 수리한 위례성이 한수이북인지 한수이남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혼돈되는 기록이다.

온조45년(서기27) 겨울 10월에 지진(地震)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을 넘어뜨렸다, 라는 기록과 다루(多婁)10년(서기37)에도 겨울 11월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라는 기록이 있고 또 기루(己婁)35년(서기111) 봄 3월과 겨울 10월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에도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기록이므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기록이다.

기루(己婁)27년(서기103)에 한산(漢山)에서 사냥(山行, 軍事作戰訓練의 하나)을 하였는데 신비로운 사슴을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온조가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이도한 후에 임금이 사냥이라는 이름의 군사훈련에 친히 참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개루왕(蓋婁王)4년(서기131)에 한산에서 사냥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왕들이 군사훈련을 위하여 고심한 흔적을 읽을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겠다. 개루왕(蓋婁王)5년(서기132) 봄 2월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았다, 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때부터 남(南), 북(北)한산성을 확실하게 개체적인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 같다.

초고왕(肖古王)22년(서기187) 여름 5월에 왕도의 우물과 한수가 모두 말랐다는 기록은 한재의 막심한 피해를 강조하는 기록이고, 구수왕(仇首王)8년(서기221) 가을 9월에 ‘청자색(靑紫色)의 구름이 왕궁 동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누각과 같았다’ 는 기록과 비류왕(沸柳王)13년(서기316)

여름 4월에 왕도의 우물물이 넘치더니 검은 용(黑龍)이 그 속에서 나타났
다, 라는 기록은 당시의 자연에 의하여 발생한 천지조화를 인간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충동을 그대로 옮겨 놓은 기원성의 감상기록이다. 용이라는
영험한 능력의 동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백성들이 큰 기대감과 호국의 용
이 출현하였으니 안심하고 각자 자영업에 충실하라는 제시어이기도 한
것이다.

책계왕(責稽王)은 전사하였고 분서왕(汾西王)은 자객에 의하여 처참하
게 살해되는 비운의 왕들이다. 비류왕(比流王)24년(서기327) 9월에 내사
좌평(內司佐平) 우복(又復)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근거로 하여 역모반
란을 일으키자 왕이 군사를 발동하여 토벌하였다. 비류왕(比柳王)30년
(서기333) 왕궁에 불이 나서 민가까지 연달아 태웠다. 7월에 궁실을 수리
하였다, 라는 기록은 화재에 대한 무방비를 암시하는 교훈적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근초고왕(近肖古王)24년(서기369) 겨울 11월에 한수의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는데 모두 누른색(黃色)을 사용하였다⁹⁾ 라는 기록은 지금의 송
파와 성남시의 궁내동 일원을 백제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성
남지역의 전설과 일치하는 기록이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삼천병마(三千兵馬, 兵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골과 수기실(宿騎室. 騎兵들이 머물러 쉬던 곳이라는
뜻)에 얽힌 지명전설과도 일치한다. 근초고왕(近肖古王)26년(서기371)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
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故國原王)가 힘을 다하여 싸웠
으나 빛나간 화살에 맞아죽었다. 근초고왕(近肖古王)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왕도를 한산(漢山, 南漢山城)으로 옮겼다¹⁰⁾는 기록이 있는데

9)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권 제2 근초고왕24년.

10) 근초고왕26년.

이에 대한 해설은

“본 기록에서의 한산은 남한산성을 가리킨다. 평지인 한성에서 연결한 남한산성으로 옮긴 것인데 이는 아마도 고구려의 내침에 대비하여 옮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이때부터 백제의 도읍은 실제로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보아야 한다는 다수학자들이 있음을 주의 깊게 숙고하고 주도면밀하게 상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왕성을 옮기면서 성곽도 없는 왕궁(王宮)에 왕이 거처하였겠는가? 이미 남한산성은 왕성보위배후산성으로 모든 성곽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행정처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관아와 병기고 등의 창고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기에 궁성 이전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근초고왕(近肖古王)30년(서기375) 기록에 백제는 나라를 창건한 이래 문자(文字)로 일을 기록함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박사(博士)-백제(百濟)의 관제(官制)에 의한 벼슬 이름의 고흥(高興)을 얻어 비로소 서기(書記)를 갖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 대한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 등 여타의 모든 기록은 타국인 중국의 기록을 대충 살펴보고 추론한 기록들은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근구수왕(近仇首王)3년(서기377)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平壤城)을 쳤다고 한 기록만 있을 뿐 승패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침류왕(枕柳王) 원년(서기384)에 마라난타존자(摩羅難陀尊者)에 의하여 백제에 불교가 전래되었고 다음해인 침류왕(枕柳王)2년(서기385)에 한산(漢山)에 백제 최초의 절을 세우고 열사람이 승려(僧侶)가 되는 것을

허가하였다.¹¹⁾

이때에 세운 절이 성남시 분당구 율동의 영장산금강사(靈長山金剛寺)라고 전해 온다. 이 외에도 율동에 전해오는 전설 중에 삽천미륵(插天彌勒,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와 꼽혔다는 뜻)이 영세소립(影世疏立, 드문드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서 있다는 뜻)하여 석인리(石人里)라고 불렀다는 마을 전설이 있다. 미륵(彌勒)부처님을 여러분 모시고 난 후에 많은 불자가 몰려들었는데 계속되어 흉년이 들자 주지(住持)스님이 구황식품(救荒食品)인 밤나무(栗木)를 많이 심게 하여 밤의 수확이 풍성하여지게 되어 가난과 궁핍을 면하게 되자 지금의 창곡동(倉谷洞)까지 밤나무 농장이 연결되어 밤나무 그늘진 마을이라는 뜻의 율목음촌(栗木陰村)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창곡동의 옛 이름이 율목리(栗木里)였는데, 경기지방 특유의 변음으로 율목이, 또는 율맥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미륵부처님의 열력으로 천조(三足鳥)의 별칭(別稱)인 금오탁시혈(金鳥啄屍血, 금 까마귀가 먹이를 뜯고 있는 형국이라는 풍수지리상의 명당)이라는 부촌으로 탈바꿈되었다는 전설과도 일치하고 있다.¹²⁾

또한 절터에서 채집된 기와파편 중에 빗살무늬 수기과와 있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가래질을 하거나 논을 갈거나 논을 맬 때에도 청기와 파편(破片)도 나왔다. 이 밖에도 율동(栗洞)에 한성백제 최초의 사찰이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 또한 향토사학자들과 촌로들의 증언이 있으니 발굴 조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진사왕(辰斯王)이 8년(서기392)에 구원행궁(狗原行宮)에서 죽었는데 구원행궁의 위치는 지금의 낙생(樂生) 땅이었다고 전해온다.¹³⁾

아신왕(阿新王)4년(서기395)에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많은 군사들이

11) 삼국사기 권 제 24 백제본기 제 3 침류왕2년.

12) 향토문화총서 8 돌마 마을지 하(下) 성남문화원. 2008년 11월 28일. 한누리미디어.

13) 주석 11 동(同), 향토문화총서 9 낙생마을지 성남문화원 2009년 11월 30일. 한누리미디어.

얼어 죽자 군을 돌려 한산성(漢山城, 南漢山城으로 추정)에 이르러 군사들을 위로하였다는 기록은 최소한 그때까지도 남한산성(南漢山城)이 백제의 왕도요 성도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방증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의 기록 어디에도 또 다시 이도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다만 개로왕(蓋鹵王) 때에 장수왕(長壽王)이 보낸 간자인 도림(道琳)이라는 중의 간계에 속아 넘어가 궁궐을 장엄화려하게 짓고 왕성을 개축하고 성곽을 대보수하고 강뚝을 따라 제방을 높이 쌓고 왕릉을 중수하였다¹⁴⁾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도림(道琳)이 말한 내용 중에 ‘백제는 하늘이 베푼 험한 요새요 사람의 힘으로 된 형국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개로왕을 피었다. 그 말과 일치되는 산성은 남한산성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근초고왕이 궁성을 남한산성으로 옮긴 후 개로왕 때까지 남한산성이 백제의 서울인 궁성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는데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성백제의 찬란하였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도림의 주장만으로는 위례성인지 남, 북한산성인지 기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축 보수한 후에 한성백제가 망하고 웅진(熊津)으로 궁성을 옮기기까지 약 100여 년간은 백제의 수도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이라는 정답이 나온다. 특히 백제 시조 온조왕의 사당이 남한산성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한산성의 궁성사실은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방(堤防)에 대하여서는 고다지추(高多只樞)라는 제방이름으로 강동구 고덕동 원주민들에 의하여 전해 오고 있을 뿐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성백제의 군사력을 키웠다는 방증의 기록이 아신왕(阿莘王)5년(서기397) 가을 7월에 한수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다는 기록이다. 물론 선

14)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 21년(서기475년).

대왕들도 한수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다는 사기의 기록과 이 지역의 전설 속에는 백제의 군사훈련에 대한 전설이 많이 전해 오고 있다.

아신왕(阿新王)14년(서기405) 봄 3월에 흰 기운이 왕궁 서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한 필의 비단과 같았다는 기록은 자연현상마저도 상서로운 흰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다는 표현으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견으로 자위하며 백성들과 군관민을 안위시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였던 것 같다. 고구려와의 치열한 영토보전을 위한 국력다툼으로 항상 전쟁의 위태로움을 지닌 백제로서는 대동단결을 할 수 있는 최선대책이 됨직한 일이었다. 국가 위급 상태에서도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신라와 언제 깨어질지도 모를 평범한 화친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기에 이르는 현실을 유지한 것이었다고 본다.

개로왕(蓋鹵王)21년(서기475) 가을 9월에 고구려왕(高句麗王) 거련(巨璉, 長壽王)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서울 한성(漢城, 風納土城과 夢村土城이라고도 하고 南, 北漢山城으로 推定하여 전해 오고 있다)을 포위하였다. 왕은 성문을 닫고 능히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인이 군사를 네 갈래로 나누어 양쪽에서 공격하였다. 또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이에 민심은 불안해져서 혹 나가서 항복하는 자도 있었다. 왕은 곤궁하여 어찌 할 바를 몰라 기병 수십 기를 거느리고 성문을 빠져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다. 고구려인이 쫓아가 살해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그간의 정황을 기록하였는데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이 몰래 백제를 도모하려 하여 백제에서 간첩할 만한 자를 구하였다. 이때에 승려 도림(道琳)이 모집에 응하여 말하였다.

“어리석은이 승려(僧侶)가 아직 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

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대왕은 신을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 지시하여 시키신다면 기약코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長壽王)이 기뻐하여 비밀리에 백제를 속이게 하였다. 이에 도림은 거짓으로 죄를 짓고 도망하여 온 것 같이 하여 백제로 들어왔다. 이때에 백제왕 근개루(近蓋婁, 蓋鹵王)는 바둑과 장기를 좋아하였다. 도림이 대궐문에 나아가 고하였다.

“신은 어려서 바둑을 배워 자못 신묘한 경지에 들었습니다. 원컨대 곁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왕이 불러들여 바둑을 두어보니 과연 국수였다. 드디어 그를 높여 상객으로 삼고 매우 친근히 지내면서 서로 만나기가 늦은 것을 한탄하였다. 도림이 하루는 왕을 모시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신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왕께서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은총을 매우 두터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한 가지 기술로써 보답하였을 뿐 일찍이 털끝만한 도움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한 말씀 드리려 하는데 왕의 뜻이 어떠하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말해 보라. 만일 나라에 이로움이 있다면 이는 선생에게 바리는 바이다”라고 말하였다.

도림이 말하였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산과 언덕과 강과 바다입니다. 이는 하늘이 배운 힘 한 요새요, 사람의 힘으로 된 형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데 거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마땅히 존귀하고 고상한 위세와 부강한 업적으로써 남의 이목을 두텁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곽은 수선되지 않았고 궁실도 수리되지 않았으며 선왕의 해골은 맨땅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고, 백성의 집은 자주 강물에 허물어지고 있으니 신은 대왕을 위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왕이 “옳다. 내가 장차 그렇게 하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나라 사람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써서(蒸土) 성을 쌓고 안에는 궁실과 누각과 대사등을 지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 옥리하(郁利河, 漢江)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곽(柵)을 만들어 부왕(父王)의 뼈를 장사하고 강을 따라 독(毒)을 쌓았는데 사성에서 숭산(崇山, 黔丹山) 북쪽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국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나 나라의 위태로움은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심하였다. 이에 도림이 도망쳐 돌아와서 보고하니 장수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군사를 장수에게 내주었다. 근개루(蓋鹵王)가 이 말을 듣고 아들 문주(文周)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고 쫓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들은 쇠잔하고 군사는 약하니 비록 위태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마땅히 사직(社稷)을 위하여 죽겠지만 네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잇지 않겠는가?”

문주(文周)는 이에 목협만치(木峽滿致)와 조미걸취(祖彌桀取) 등과 함께 남쪽으로 갔다.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의 대로(對盧)인 재증걸루(再曾桀婁)와 고이만년(古爾萬年)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 風納土城)으로 推定하는 학자와 北漢山城으로 推定하는 학자도 있다)을 공격하여 7일만에 함락시키고 남성(南城, 夢村土城)으로 推定하는 학자와 南漢山城으로 推定하는 학자도 있다)으로 옮겨 공격하였다. 성안은 위태롭고 두려움에 떨었다. 왕이 성을 나가 도망치자 고구려의 장수 걸루(桀婁) 등은 왕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침을 뱉고는 그 죄를 꾸짖었다. 그리고는 왕을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

걸루(桀婁)와 만년(萬年)은 백제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는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이 기록을 소개하는 것은 도림이 말한 천험(天險)의 요새(要

塞)가 바로 남한산성(南漢山城)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도림의 말을 들은 개로왕(蓋鹵王)이 풍납토성(風納土城)과 몽촌토성(夢村土城)을 재축성하고 고다지추(高多只樞)라는 긴 제방을 쌓느라 국력을 낭비하였다는 것인데 흙을 써서 성(蒸土城)을 쌓았다고 하였는데 두 개의 토성 발굴조사에서는 증토(蒸土)는 일체 발굴된 사실이 없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은 근초고왕(近肖古王)26년(서기371) 겨울에 이도¹⁵⁾한 이후 풍납토성(風納土城)이나 몽촌토성(夢村土城)으로 다시 이도한 기록은 없다. 다만 도림이 말한 “그러나 성곽은 수선되지 않았고 궁실도 수리되지 않았으며 선왕의 해골은 맨땅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고…”라며 도림이 지적한 피폐되었다는 성곽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일 수도 있으나 북한산성과 남한산성 두 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도림(道琳)이 지적한 성이 두 곳이 맞는다면 결국은 성곽을 보수하고 궁실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수축한 기간을 빼더라도 남한산성이 근초고왕(近肖古王)26(서기371)년부터 개로왕(蓋鹵王)21년(서기475)까지 약 100년간 동안의 한성백제(漢城百濟)의 수도(首都)라는 사실이 입증(立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풍납토성(風納土城)과 몽촌토성(夢村土城)이나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옛 선조들이 구전으로 전한 산성주변의 지명과 전설 속 남한산성의 옛 성곽의 둘레나 주변의 작은 성이나 성남시 창곡동의 세자동(世子洞) 일대와 돌자개(일명 돌무더기)라는 지명 일대 주변과 조선중기 인조 때까지 경기관아와 광주관아가 있었던 하남시(河南市) 상사창동(上司倉洞)과 하사창동(下司倉洞) 등을 정밀 조사하여 보고 유적지의 발굴조사를 하여 백제성도(百濟城都)의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15) 삼국사기 권 제24 백제본기 권 제2 근초고왕26년.

2. 백제(百濟)의 전쟁사(戰爭史)

한성백제시대에는 헤아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면서도 날래고 굳센 백제군의 혁혁한 전과가 기록되어 있다. 온조(溫祚)2년에 재종숙부인 을음(乙音)을 우보(右輔)로 삼고 군사업무를 맡겼다가 28년에 다루(多婁)에게 군사업무를 총괄하게 한 것은 강병부국이 되려면 태자를 중심으로 장수들이 운집하여 충성경쟁을 시킴으로써 더 한층 강한 군대가 된다는 사실과 태자가 왕위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무르익은 충성심으로 왕을 보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한성백제 초창기부터 군사업무는 태자가 맡는 것이었고 태자가 어리거나 병중이든지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왕의 신임이 두터운 친척이 맡아온 것이 관행이었다는 사실이다. 온조41년에는 을음(乙音)이 죽자 또 다시 친척인 해루(解婁)를 우보(右輔)로 삼았으나 병권은 태자가 잡고 있었다.

다루왕(多婁王)3년 겨울 10월에 동부의 흘우(屹于)가 말갈(靺鞨)과 싸워 크게 이겼다는 기록과 다루왕(多婁王)4년 고목성의 곤우(昆優)가 말갈과 싸워 크게 이기고 200명의 머리를 베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태자시절부터 장수들의 충성심이 최고조에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다루왕(多婁王)5년에 만아들 기루(己婁)를 태자로 삼고 크게 사면하였다, 라는 기록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즉위 5년 밖에 안된 왕이 서둘러 태자를 봉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루왕(多婁王)5년에 해루(解婁)가 죽으니 흘우(屹于)를 우보(右輔)로 삼았다는 언급만 있고 군사업무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 것은 군사업무는 이미 태자인 기루(己婁)에게 맡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루왕(多婁王)39년부터 43년 47년 48년까지 신라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의 백제군은 태자를 중심으로 하여 상당한 충성심으로 뭉쳐진 장수와 군사들이었기에 백제는 극도로 융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44년을 태자(太子)로 활약하며 제왕(帝王)의 수업을 받은 기루왕(己婁王)이 등극하고 나서도 기루왕(己婁王)9년에서 28년까지는 전쟁의 연속이었다가 기루왕(己婁王)29년에 신라에 화친을 청하였다.

개루왕(蓋婁王)은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고 북쪽의 말갈(靺鞨)과 고구려의 내침에 대비하였고 초고왕(肖古王)이 등극한 후 초고왕(肖古王)2년과 25년에 신라를 쳐서 원산성(圓山城, 醴泉)과 부곡성(釜谷城, 軍威)을 빼앗았고, 45년에는 적현성(赤峴城)－옥천(沃川) 또는 당진(唐津)으로 추정(推定)－과 사도성(沙道城)－연천(連川)으로 추정(推定)－을 쌓고 동부의 민가를 움졌다, 라는 기록은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구수왕(仇首王)8년에 한수에서 크게 사열(査閱)하였고 구수왕(仇首王)9년에는 신라의 우두진(牛頭陣)－예천(醴泉)으로 추정(推定)－을 쳐서 빼앗았고 고이왕(古爾王) 7년에는 숙부인 진충(眞忠)을 좌장(左將)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업무를 맡기고 동년 7월에 석천(石川, 漢江)에서 크게 사열하였다. 14년에 진충(眞忠)을 우보(右輔)로 삼고 진문(眞們)을 좌장(左將)으로 삼아 군사업무를 맡겼다. 고이왕(古爾王)27년에는 조정의 직제를 개편하였다.¹⁶⁾

내용을 보자.

봄 정월에 내신좌평(內臣佐平)을 두었는데 왕명출납을 맡았다. 내두좌평(內頭佐平)은 창고와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았고 내법좌평(內法佐平)은 예법과 의례에 관한 일을 맡았고 위사좌평(衛士佐平)은 왕궁을 지키는 숙위 군사에

16) 삼국사기 권 제24 백제본기 권 제2 고이왕27년.

관한 일을 맡았고, 조정좌평(朝廷佐平)은 형벌과 감옥에 관한 일을 맡았고 병관좌평(兵官佐平)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았다.

또 달솔(達率), 은솔(恩率), 덕솔(德率), 한솔(扞率), 나솔(奈率) 및 장덕(將德), 시덕(施德), 고덕(固德), 계덕(季德), 대덕(對德), 문독(文督), 무독(武督), 좌군(佐軍), 진무(振武), 극우(剋虜)를 두었다.

6좌평은 모두 1품(粟)이요, 달솔은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한솔은 5품, 나솔은 6품, 장덕은 7품, 시덕은 8품, 고덕은 9품, 계덕은 10품, 대덕은 11품, 문독은 12품, 무독은 13품, 좌군은 14품, 진무는 15품, 극우는 16품이었다.

2월에 명령을 내려 6품 이상은 자주색 옷을 입고 은꽃(銀花)으로 관(冠)을 장식하게 하였으며, 11품 이상은 다홍색(緋色) 옷을 입게 하고, 16품 이상은 푸른색(靑色) 옷을 입게 하였다. 3월에 왕의 동생 우수(優壽)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

다음해인 고이왕(古爾王) 28년에 고수(叩首)로 위사좌평(衛士佐平)을 삼고 유기(惟己)로 병관좌평(兵官佐平)을 삼았고 고이왕(古爾王) 39년부터 50년까지 신라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가 50년에 신라와 화친을 청하였으나 대를 이은 책계왕(責稽王)이 전사하고 분서왕(汾西王)은 낙랑태수(樂浪太守)가 보낸 자객에 의하여 살해되어 비류왕(比流王)이 등극하였는데 비류왕 9년에 해구(解仇)를 병관좌평(兵官佐平)으로 삼았다. 진사왕(辰斯王) 21년에 국경을 수비하는 관문을 설치하여 국경수비를 튼튼히 하였다. 진사왕(辰斯王)은 구원(狗原, 樂生)행궁에 나가서 사냥(山行, 軍事訓練)을 하기도 하였다.

진사왕(辰斯王) 6년에 진가모(眞嘉謨)를 병관좌평(兵官佐平)으로 삼고 친히 군병을 양성하고 훈련시켰는데 결국은 구원행궁에서 죽었다. 아신왕(阿莘王) 7년에 사두(沙豆)를 병관좌평(兵官佐平)으로 삼았고 늘지왕(努支王) 3년에 해구(解丘)를 병관좌평(兵官佐平)으로 삼았는데 모두 왕

의 친척들이었다.

놀지왕13년 동북부의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사구성(沙口城)을 쌓았다. 비류왕(毗有王)29년 한산에서 사냥하였다.¹⁷⁾ 개로왕(蓋鹵王)이 등극하여 처음에는 국방을 튼튼히 하여 개로왕(蓋鹵王)이 등극한 후에는 아들 문주(文周)가 군사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로왕(蓋鹵王)15년에는 청목령(靑木嶺, 開城)에 큰 목책(木柵)을 세우고 북한산성의 군사들을 나누어서 지키게 하는 등 국력이 강부하였으나 장수왕(長壽王)의 간자인 도림의 간계에 속아 개로왕(蓋鹵王)21년에 한성백제시대의 종막을 내리고 말았다.

실로 494년간의 장구한 세월동안에 수많은 장수들이 왕이나 태자(太子)에게 충성을 바쳐 구국의 일념으로 일관하여 왔건만 어리석은 개로왕(蓋鹵王)의 실책으로 한성백제는 처절하고 처참한 종말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갈의 침략을 목숨 바쳐 분쇄하고 공을 세웠거나 태자(太子)를 중심으로 맺어진 충성전쟁을 마다하지 아니한 군의 사기를 높여 평가하여야 한다. 또 고구려를 쳐서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죽게 한 백제의 무사도와 승리만을 위한 전승정신은 얼마나 강인하였겠는가? 신라와의 누대에 걸쳐진 수백 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패전을 거듭하던 때에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장수들과 장병들의 충성심은 삼국 중 어느 나라보다 강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기록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IV. 고려시대(高麗時代)

고려사(高麗史)에는 세가(世家)에 43, 지(誌)에 17, 열전(列傳)에 36편

17)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권 제3 비류왕29년.

등 총(總) 96편의 기록이 있다.

고려사(高麗史) 지(誌)에 광주목에 관한 기록은 처음 백제시조 온조왕(溫祚王)이 한(漢)나라 성제(成帝) 홍가(鴻嘉)3년에 나라를 세워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였다가 13년에 이르러 한산 밑에 나아가 책을 세우고 위례성 민호를 옮겨 드디어 궁궐을 세우고 살다가 이듬해에 도읍을 옮기고 이름을 남한산성이라 하였다. 근초고왕(近肖古王)25년에 서울을 남평양성(南平壤城, 南漢山城)으로 옮겼다.

그 후 개로왕(蓋鹵王)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패퇴하여 잡혀 죽자 문주왕(文周王)이 공주로 천도하기까지 100년간의 기록에 남한산성에서 다시 위례성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없다.

신라 태종무열왕에 이르러 김유신(金庾信)을 보내어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과 함께 백제를 협공하여 이를 멸망시킨 뒤 당나라 군사가 돌아가고 문무왕(文武王)이 점차로 그 땅을 수복하여 고쳐 남한산주로 삼았는데 경덕왕(景德王)15년에 이름을 한주로 고쳤고 태조(太祖)2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같았다.

성종(成宗)2년에 처음 12목(牧)을 두니 광주는 그 하나이다. 성종14년에 12주(州)절도사를 두고 봉국군(奉國軍)이라 이름하여 관내도(關內道)에 소속하였다가 현종(玄宗)2년에 패하여 안무사(按撫使)로 삼았다. 현종 9년에 8목(牧)을 정할 때 그대로 목관(牧官)을 삼으니 별호는 회안(淮安, 準王의 궁城 이름)인데 성종(成宗)때 지정(指定)한 것이라 한다.

일장성(日長城, 신라(新羅) 문무왕(文武王) 때 쌓은 바로 즉 주장성(晝長城)이 있다. 4군(郡)과 3현(縣)이 속(屬)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천녕군(川寧郡, 驪州一帶), 이천군(利川郡, 利川一帶), 죽주(竹州, 安城一帶), 과주(果州, 果川, 衿川, 安養一帶, 陽川一帶) 등 4군(郡)과 지평현(砥平縣, 楊平一帶), 용구현(龍駒縣, 龍仁一帶), 양근현(楊根縣, 楊平一帶) 등 3개현(縣)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세가(高麗史世家) 중 태조총서(太祖叢書)를 보면 광주의 중요성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광화(光化)3년에 궁예(弓裔)가 태조(太祖, 王建)에게 명하여 광주, 충주, 청주의 3주와 당성(唐城)－당진(唐津) 일대(一帶), 괴회(槐懷), 괴산(槐山)과 회인(懷仁) 일대의 군현 등을 치게 하니 이를 다 평정하였으므로 그 공으로 아찬을 제수하였다¹⁸⁾는 기록으로 보아 광주는 이미 지명으로 사용하였으나 태조(太祖)23년 이후 성종(成宗)2년에 목(牧)으로 승격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종(獻宗)2년 정월 을해 삭에 거란주(據丹主)가 경성에 쳐들어와 대묘와 궁궐과 민가를 불태워서 남김이 없었다. 이날에 왕은 광주에 이르렀다. 무인에 왕이 광주를 출발하여 비뇌(鼻腦)역에 이르렀다.

성종(成宗)2년 6월에 광주에 지진이 일어났다, 는 기록이 있고 문종(文宗)11년 5월과 문종18년 11월의 기록은 광주에 가뭄이 심각하여 기우제를 지내고 순무하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으며 문종33년 7월에는 송(宋)나라에서 왕순봉(王順封)이 와서 고려의 우수한 약재를 요구하니 여러 고을에서 나는 약재를 바치게 하였는데 광주에서는 목향(木香), 정향(丁香), 혈갈(血竭), 육두구(肉荳蔻), 몰약(沒藥), 빈낭(檳榔), 필발(苾發), 봉아무(蓬莪茂), 광향(藿香)을 받아 보냈다¹⁹⁾는 기록이 있다.

선종(宣宗)4년 12월에 윤관(尹瓘)을 함문지후(閤門祇候)로 임명하여 광주, 충주, 청주도에 순무하게 한 기록과 의종(毅宗)21년 8월 갑자(甲子)에 어가(御駕)가 가돈원(加頓院)에 이르니 광주에서 의위와 압부를 갖추어서 맞이하고 아울러 말 2필, 견여 1구와 양산 3병을 바쳤다.

의종(毅宗)21년 8월 병자에 몽고병(蒙古兵)이 안변도호부에 침입하였다는 기록을 시발로 몽고의 침략이 빈번하여지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18)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태조총서(太祖叢書).

19) 고려사 세가 9 문종33년 7월.

다. 고종(高宗)22년 임오에 광주와 남경(南京, 현재 서울)을 강화에 합입(合入)하였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몽고(蒙古)에 군사적, 행정적으로 대항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법이었을 것으로 평가한다.

고종40년 8월 경신에 몽고병(蒙古兵) 300명이 척후기로 들어와 광주의 여사를 분소하였다는 기록과 고종41년 11월에 팔관회를 올리는데 표를 올린 곳이 남경(南京, 서울), 광주, 수주(水州), 부천(富川)뿐이었다. 고종41년 8월에 또 다시 몽고병(蒙古兵)의 척후기병들이 광주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보면 남한산성을 지니고 있는 광주가 대단한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광주는 백제부터 군사적으로 천혜의 요충지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산세가 험준하여 수비에 최적 요인을 지닌 남한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던 것이다.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승려 육연(六然)을 시켜 유리기와(琉璃瓦)를 굽게 하였는데 그 제조법에 황단(黃檀)이 많이 쓰이므로 광주 의안(義安, 의왕시일대(義旺市一帶))의 흙을 가져다 구우니 빛깔이 남상(南商, 중국의 남쪽 상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파는 것보다 나았다는 기록이 있어 광주는 흙조차 타 지역의 흙보다 쓰임새가 많았던 것 같다. 이것은 광주가 지니고 있는 광(鑛)물을 포함하여 지하자원이 그런대로 풍부한 편이었기 때문이라 평가한다.

충선왕(忠宣王)2년 9월 을유에 대대적인 개각이 있었는데 장선(張瑄)을 검교평리(檢校評理) 광주목사(廣州牧使)로 삼으니 재상(宰相)이 목사(牧使)로 나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²⁰⁾고 기록되어 있고, 동왕 4년 3월, 정사에 성영임(成永任)으로 찬성사(贊成事) 광주목사(廣州牧使)로 삼았다는 기록은 광주의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마정과 물산의 중요성에 대한 예우일 것이다.

20) 고려사 세가 32 충선왕2년 9월.

공민왕(恭愍王)10년 5월에 승려 보허(普虛)가 광주 미원장(米院莊)－양근(楊根) 양평읍일대(楊平邑一帶)－에 우거(寓居)하였는데 보허(普虛)가 왕에게 아뢰어 현(縣)으로 승격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공민왕(恭愍王)11년 11월에 몽고(蒙古)가 “1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니 속히 항복하라”는 기록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공민왕(恭愍王)이 무진에 사평원(沙平院, 廣州, 現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 있던驛 이름)에 이르렀다가 광주 관아(官衙)가 있던 하남시(河南市), 상하사창동(上下司倉洞)에 이르렀고 다음날인 기사에 경안역(慶安驛, 광주시 경안에 있던驛 이름)에 이르렀고 다음다음날인 신미에 이천(伊川, 利川)에 다음날인 임신에 음죽(陰竹)－안성(安城)과 음성(陰城)－에 이르고 올해에 충주에 이르렀다는 기록으로만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공민왕(恭愍王)12년 윤월 을유에 적과 화친하고 공신들을 녹훈하였다. 광주시 실촌면 삼합리에는 공민봉(恭愍峰)이라는 산도 있는데 공민왕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처자와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전설도 있어 공민왕과 광주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지(高麗史誌) 중에 인종(仁宗)12년 5월 무인에 광주에 혈우가 내렸다는 기록을 필두로 신우(辛隅)11년 7월 경진에 광주 도미사(河南市)－검단산(黔丹山)에 있던 절－산정에서 물이 솟아 인가가 표몰하였다.

성종2년에 처음 12목(牧)을 두니 광주는 그 하나이다. 태조(太祖)23년에 지금 이름으로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왕건태조(王建太祖)가 등극하기 이전에 궁예(弓裔)에게서 광주, 충주, 청주를 치라고 명을 받아 이를 평정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세가(高麗史世家) 중 태조총서(太祖叢書)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어느 곳 하나는 잘못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성종(成宗)14년 양광도 경내를 나누어 10도(道)로 삼아 양주와 광주를 관내도에 예속시켰다.

고종(高宗)22년 5월 광주는 신묘, 임진년에 적병(蒙古兵)이 포위공격(包圍攻擊)하였을 때 능(能)히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으니 정한 바의 요역과 잡역을 면제하라고 하였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고려사지 36/병/마정(馬政)에 의한 목장(牧場)은 용양(龍陽, 黃州), 농서(農西, 洞州), 은천(銀川, 白州), 양관(陽關, 開城), 좌목(佐牧, 貞州), 회인(懷人, 淸州), 상자원(象子院, 見州), 엄호현(廣戶峴, 廣州), 강음(江陰, 山靑), 동주(東州)²¹⁾ 등 10곳이 있었는데 광주목장(廣州牧場)이 규모가 제일 컸고 말의 능력이 최고로 좋았다고 전해 오고 있다.

마정(馬政)에 의하면 의종(毅宗)13년에 각 목장에서 말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를 정²²⁾하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마(戰馬, 戰爭에 타고 나가는 말) 1필(匹)에는 황초절(黃草節, 가을에서 이른 봄)에는 1일에 패(稗, 피라는 곡물 이름) 1두(斗), 두(豆, 콩) 1승(升, 되), 말두(末豆, 까지 않은 콩) 4승(升)이고, 청초절(靑草節, 봄에서 초가을)에는 패(稗) 1두(斗), 말두(末豆) 3승(升)이었다.

잡마(雜馬) 1필(匹)에는 황초절(黃草節) 1일에 패(稗) 4승(升), 두(豆) 2승(升), 말두(末豆) 3승(升)이었으며, 청초절(靑草節)에는 패 3승, 말두(末豆) 2승(升)이었다.

낙타(駱駝) 1수(首)에 황초절에는 1일에 패 5두, 두(豆) 2두, 염(鹽) 5합(合)이었고, 청초절에는 패 2두 9승, 염 3합이었다.

러루(驢驘, 당나귀와 큰 노새) 각 1필에 황초절(黃草節)에는 1일에 패 6승(升), 두 2승, 말두 3승이었고, 청초절(靑草節)에는 패 6승, 말두 3승이었다.

역우(役牛) 1두(頭)에는 황초절에는 1일 패 6승, 두 2승이었고, 청초절

21) 고려사지(高麗史誌) 36 병(兵)/마정(馬政).

22) 고려사 세가 18 의종13년.

에는 패 4승, 말두 2승이었다.

독우(犢牛, 송아지) 1두에 황초절에는 패 4승, 두 2승이었고, 청초절에는 패 3승, 말두 2승이었다.

상승국(尙乘局, 사무를 보기 위하여 타고 다니는 것을 관리하는 관청 이름)의 어마(御馬, 왕이 타는 말이나 길들여진 말) 1필에 황초절에는 전미(田米, 보리, 조, 수수, 옥수수, 귀리, 패 등의 껍질을 깠던 밭곡식) 각 실두(實斗, 곡식 1말) 및 말두(末斗) 각 5승(升)이고, 청초절(靑草節)에는 단지 실두만을 제외(除外)하였다.

건마(件馬) 1필에는 황초절에는 전미 실두 각 3승이었고, 청초절에는 실두는 제외하였다.

역루(役驤, 일을 시키는 큰 노새) 1필에는 황초절에 패 1두, 실두 2승, 말두 3승이고, 청초절에는 두를 제외하였다.

빈마(牝馬, 암말) 1필에는 황초절에 패 1두 2승, 말두 3승이고, 청초절에는 패 1두, 말두 3승이었다.

삼세구(三歲駒, 삼년 이상 묵은 망아지)는 황초절에는 패 4승, 두 2승이고, 청초절에는 패 3승, 두 2승이었다.

파부마(把父馬, 길들이는 말) 1필에는 1일에 가괘(加稗) 3승, 두 2승이었다.

전구역루(典廐役驤,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새나 당나귀) 1필에 황초절에는 패 1두 5승, 실두 각 3승이고, 청초절에는 실두를 제외하였다.

대우(大牛, 큰 소) 1두에는 1일 패 8승, 실두 3승, 황초 7속(束, 묶음 다발)이었다.

대복시별립마(大僕寺別立馬) 1필에는 황초절에는 패 1두 3승, 실두 3승, 말두 4승이었고, 청초절에는 실두를 제외하였다.

역루(役驤, 일을 부리는 노새나 당나귀)에는 황초절에는 패 1두, 실두 2승, 말두 3승이고, 청초절에는 실두를 제외하였다.

이렇듯이 목장(牧場)은 엄청난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였고 비록 우마(牛馬)라도 전시에 대비하여 실전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로부터의 전함이다. 국가는 우마증식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충렬왕(忠烈王) 원년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사신을 파견하여 우마를 점열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우마의 공급이 부진하자 동왕13년 5월에는 백관으로 하여금 전마(戰馬)와 기명을 의무적으로 내는데,²³⁾ 재추(宰樞)는 적마(狄馬) 1필, 향마(鄉馬) 1필을, 치사재추(致仕宰樞)와 현관판사(顯官判事) 3품은 적마 1필, 치사(致仕) 3품과 현관(顯官) 4품은 향마 1필, 현관(顯官) 5, 6품은 2원이 아울러 향마 1필, 현관(顯官) 7, 8품은 2원이 아울러 유철기(鑰鐵器, 낫쇠나 동, 철기) 1사, 권무(權務)는 9품 3원이 아울러 유철기(鑰鐵器) 1사를 납부하게 하였다. 그래도 마정이 여의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충렬왕(忠烈王)14년 2월에 마축자장별감(馬畜滋長別監, 우마 등의 가축의 번식을 장려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두어 마축(馬畜)의 증식장려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면서 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터득한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정책은 공민왕(恭愍王) 때에도 계속되었는데 공민왕(恭愍王)3년 6월에 백관으로 하여금 말을 내게 하고 관부에서 초루를 사들여 고우(高郵, 고지대의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는 곳)를 정벌하는 군사들에게 지급하였는데, 3품 이상 제군(諸君), 재추(宰樞)는 말 3필을 내고 6품 이상 4품 이하는 말 1필을 내었으며, 승도(僧徒)도 또한 거주하는 사원(寺院)의 고하에 따라 말을 내게 하였다.

공민왕(恭愍王)8년 12월에 승선(承宣) 이상으로 하여금 말 1필씩을 내게 하고, 또 선교(禪敎)의 각사(各寺) 승도로부터 말을 거두어 군용에 충

23) 고려사 세가 30 충렬왕(忠烈王)13년 5월.

당하였다. 동왕10년 10월에 공후(公侯) 이하로 하여금 전마(戰馬)를 차등 있게 내도록 하여 이를 거두었다. 곧이어 11월에 공후(公侯)로 하여금 전마를 차등 있게 내도록 하였다. 공민왕11년 10월에도 문신으로 하여금 전마를 내도록 하였다. 신우 원년 9월에 여러 절의 주지승(住持僧)에게서 전마 각 1필씩을 징발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에 전마(戰馬)는 오히려 군사들보다 중요시하였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마를 관리하고 훈련을 시키는 군사의 수도 많고 때로는 불시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항상 긴장하여 대기상태로 지냈다. 우마들의 먹이를 삶아주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장작의 수량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다. 군사들의 식사와 우마(牛馬)의 죽을 쑤어 먹일 때 소요되는 장작은 태워지고 나면 숯이 남게 되는데 숯은 물의 자정원소로 최고이기 때문에 숯을 물에 버리어 목장(牧場)의 냇물은 언제나 숯으로 가득 채워졌었다고 전하여 온다. 성남의 탄천(炭川)과 광주의 탄벌리(炭汲里)도 그런 연유에 의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성남 탄천은 한성백제 시조인 온조왕 때부터 왕세자인 다루(多婁)가 군의 총수(總帥)가 되어 백제전역의 군사를 모아 대열이라는 대단위군사훈련을 하던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장작을 때게 되었고 남은 숯을 냇물에 버리어서 숯이 냇물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하여서 숯내라고 부르다가 한문표기로 탄천이라 부르고 쓰게 된 것이다.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서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현종(玄宗)2년 정월에 거란왕(巨丹王)이 침공하여 왕이 광주에 지차하였는데, 두 왕후를 잃어버려서 지채문(池採門)으로 하여금 가서 찾아오게 하니, 요탄역(峽坦驛)에 이르러 이에 찾아서 봉환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3일을 유하였다²⁴⁾는 기록이다. 이는 현종(玄宗)이 군사들이 많고 대적하기에 탁월

24) 고려사 열전(列傳)3 종실(宗室) 현종(玄宗) 2년 정월.

한 지세인 남한산성에서 임시 피난을 하였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토록 광주지역 사람들의 충성심이 계계승승하여 이어오는 데에는 진한(辰韓) 또는 회안(淮安)이라고도 불린 진국을 창건 개국한 고조선(古朝鮮)의 마지막 임금인 준왕 때부터 지역정서가 충성을 전제로 한 교육가치관이 폭 넓게 형성되어 길이 전래되었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토록 국가의 중요한 마정에 필수기관인 목장 중 광주목장이 제일 컸다는 것은 광주가 군사적인 요충이라는 사실과 한강을 이용한 운송수단이 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아 돌지수송의 활동영역의 중요성과 연관되는 것이다.

전마는 오래도록 멀리 달리는 기예를 필요로 하는데 한강을 비롯하여 남한산성과 청계산에서 탄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맑고 수량도 많았으며 송파에서 성남 분당일대에 드넓고 기름진 초지의 이용이 가능하여 말을 사육하고 조련하는 데 최적지였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것 같다. 특히 세거문중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군사요충지의 민관들의 충성심 여부에 따라서 전쟁이 발발할 시에 국운과 직결되는 승패가 결정되는 일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V. 조선시대(朝鮮時代)

조선시대에는 태조(太祖)4년(1395)부터 광주의 기록이 나오고, 태조(太祖)7년(1398)에는 광주에서 대종(大鐘)을 만들었다. 태종(太宗)6년(1406)부터는 개국 초기이므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광주의 정금원일대(鄭金院一帶, 지금의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까지의 별판이다)에서 대열을 하였는데 팔도의 군사를 차출하여 동서군(東西

軍)으로 나눈 양군(兩軍), 또는 남, 북, 중의 삼군(三軍)으로 나뉘어 실천과 같은 전술훈련을 실시하여 정예군을 기르는 데 총력을 경주하였다. 양군은 동, 서군으로 나누어 습진훈련을 하였으며, 삼군으로 나눌 때에는 삼남과 기호, 관북의 세 편으로 나누었다.

대열이라는 군사훈련의 시초(始初)는 송(宋)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수많은 전쟁의 외중에서 군사들이 각종 전술을 익혀두었다가 전쟁에 임하여 숙련된 전술과 개인기로 적을 압도하여 승리로 이끌곤 하였으므로 다른 나라 군사들도 따라한 것이 대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조28년 다루(多婁)를 태자(太子)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군권을 다루(多婁)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군사훈련의 막중한 업무를 태자에게 준 것인데 태자가 병권을 잡고 있는 동안 태자에게 충성하던 장수들이 태자가 왕이 되면 더욱 충성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국사에 총력을 기울이며 백제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다루(多婁)는 지금의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세자동(世子洞) 일대에 태자궁(太子宮, 백제 때에는 태자궁이라 불리다가 고려 이후에 세자궁말이라고 불렀다고 전해 온다)을 설치하고 송파와 성남시 일원에서 군사를 조련하였다고 전해 오는 이 지역전설을 상고하고 삼천병마골(三千兵馬谷)이나 수기실(宿騎室)²⁵⁾이라는 지명을 상고하여 볼 때에 성남일대는 한성백제(漢城百濟)의 군사훈련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열을 실시하는 의의는 상당한 전투력 향상으로 인한 국가보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신라 문무왕(文武王)17년에 강무전(講武殿) 남문에서 활쏘기를 관람하였다는 기록은 삼국시대에서도 강무(講武)라는 이름과 대사열이라는 이름의 대열을 자주 실시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5) 성남문화원 발행, 2007년 12월 31일, 돌마마을지(상) p.124, p.128, 대창인쇄사.

고려 때에도 태조 이후에 명종(明宗)5년과 명종(明宗)14년 대열을 실시하였다는 기록과 고려사세가(高麗史世家)에 총 39건의 대열기록(大閱記錄)이 있고 『고려사(高麗史)』 「지(誌)」에 4건과 『고려사(高麗史)』 「열전(烈傳)」에 7건 등 50여건의 대열기록이 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특히 세종(世宗)은 강병부국(強兵富國)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대열이 꼭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세종3년 5월 13일 대열편제에 대한 기본방책을 정하였고, 이어 오위진법(五衛陣法)을 정립하여 군사들이 교범대로 일목요연하게 군진을 형성하고 풀어 나가 적진을 교란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진법훈련에 익숙하게 하였다.

세종(世宗)3년 5월 18일²⁶⁾에 상왕(上王, 太宗)을 모시고 정금원 들에서 대열을 실시하였는데 처음으로 오위진(五衛陣)을 편성하여 크게 대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위진은 임금을 모시는 중위(中衛)에는 의정부(議政府), 돈령부(敦寧府), 이조(吏曹), 병조(兵曹), 대언사(代言司),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 내금위(內禁衛), 충의위(忠義衛)가 예속되고, 좌위(左衛)에는 예조(禮曹)가 예속되고, 우위(右衛)에는 형조(刑曹)가 예속되었고, 전위(前衛)에는 호조(戶曹)가 예속되었고, 후위(後衛)에는 공조(工曹)와 한성부(漢城府)가 예속되도록 하여 진법을 구축하였으며 진법에 의하여 종2품 이상의 군직을 지닌 자들은 모두가 진도를 예습하게 하였다. 세종 3년에 시작된 대열편제(大閱編制)와 대열의주(大閱儀註)는 세종6년 9월 24일 대열의 기일과 절차에 대한 의례로 확정되었다.

대열의주(大閱儀註)에 의하면 농사철이 지난 음력 9월이나 10월에 도성(都城) 밖에서 대열을 행하되 강일을 정하고 기일 전 11일에 병조에서 대열교지를 받은 후에 장수를 정하고 팔도에서 군사들을 선발하며, 대열

26) 조선왕조실록 원전 2집 433면 세종3년 5월 18일.

장소에 풀을 베어내고 터를 닦는데 한쪽 길이가 1,200보씩으로 하여 정사 각형으로 만든다. 네 곳에 군문(軍門)을 만드는데 화문(和門)이라 칭하고 동서(東西)에다 보병(步兵)과 기병(騎兵)을 나누어 두 개의 진영을 만들어 마주보게 하며, 한가운데는 300보(步)의 거리를 두게 하고 50보마다 표(標)를 한 줄로 세우는데 5줄이 되게 하고, 표(標)와 표(標) 사이가 50보가 되게 하여 군사들이 나아가고 멈추는 표준이 되게 하였다. 대열장(大閱場) 북쪽에는 별도의 대(臺)를 만들어 임금의 계실 대차(大次)에 어좌(御座)를 만들고 동쪽에는 소차(小次)를 만들고, 소차(小次)의 남쪽에 왕세자의 막차(莫次)를 만들고, 왕세자와 문무백관이 절할 자리는 대차(大次)의 남쪽에다 설치하게 하였다.

이하 대열의 절차는 생략하기로 한다. 실록을 상고하라.

세종15년 7월 4일에 관중추원사(判中樞院事) 하경복(河慶福), 병조판서(兵曹判書) 정흠지(鄭欽之),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정초(鄭礎), 병조우참찬(兵曹右參贊) 황보인(皇甫仁) 등이 진서(陣書)를 만들었는데 행진(行陣), 결진(結陣), 군령(軍令), 응적(應敵)으로 나누어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세종(世宗)2년 9월 15일에 나타나는 배다리(舟橋)는 전쟁 중에 도하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튿날에는 태종비(太宗妃) 빈전에서 건전을 지내고 거가가 헌능으로 행차할 때에 평지 길을 밟듯이 하였다고 하는 기록을 상고하여 보면 배다리의 부설기술이 상당하였던 것 같다. 주교는 태종(太宗) 때에도 놓아 건년 기록이 있는 전통기법의 도하설비기술이 겸비된 방법이었다. 세조4년에는 낙천정(樂天亭, 지금의 紫陽洞)에 이르러 대열을 하였다. 세조5년 10월 10일에는 화양정(華陽亭)에서 대열을 하였고, 대열 후에 곧바로 온양으로 휴양을 떠난 기록으로 보아 10여 일간의 대열기간은 임금조차도 피로가 누적될 정도로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세조4년 2월 7일 기록에는 좌찬성(左贊成) 신숙주(申叔舟), 병조판서

(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정(楊汀)을 주장(主將)으로 삼아 대야원(大也院. 지금의 城南市 上, 下大院洞 一帶) 등에서 습진훈련을 하게 하였다.²⁷⁾ 성종(成宗)6년 9월 26일에는 2만 8천 1백 15인으로 대열하였으며, 성종8년 2월 18일과 동년 10월 3일에도 대열을 실시하여 군사들의 임전태세를 확실하게 점검하였다. 성종은 19년 9월 24일과 20년 9월 28일에도 대열을 크게 실시하였다.

연산(燕山)10년 10월 2일에도 정금원에서 대열을 하였는데, 광주 정금원은 드넓은 평야와 물의 양이 많은 숲내가 있어 백제시대 초 다루왕(多婁王)때부터 대열병장으로 최고의 군사요충지였으며 태종(太宗)의 능침이 있어서 대열이 끝나면 조선개국에 특등공신인 태종능침(太宗陵寢)에 참배할 수 있고 청계산이나 문헌산 사장에서 사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대열은 거의가 현릉 인근에서 이루어졌고, 거의가 정금원(鄭金院)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다.

광여도(廣輿圖) 광주부(廣州府)편에 보면 정금원(鄭金院) 주변에는 교장대(敎將臺)와 수어둔창(守禦屯倉)과 갑사창(甲士倉)²⁸⁾이 있고 마량창(馬糧倉)이 있었던 것을 종합하여 추리해 보면 정금원(鄭金院)에는 대열과 유사시에 대비하여 군비를 저축해둔 창고가 즐비하게 많이 있었고,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는 많은 군사시설과 각종 창고가 있었으므로 정금원(鄭金院)에서 대열훈련은 다른 곳에 비하면 운송비용을 확실하게 절감되고 장비의 이동이나 식사 등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우선은 양질의 물 공급이 손쉬웠고 주위에 각종 창고가 산재하여 있어서 준비에 차질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록에 의하면 정병(正兵)이 3만 여이고 솔종(率從, 勞務部隊員)이 8~9만이라고 하고 있다. 기록대로 계산하면 대열 때에는 11~12만 정도의

27) 조선왕조실록 7집 258면 세조4년 윤 2월 7일.

28) 광여도(廣輿圖) 광주부편, 1760년대 제작,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군사들이 참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훈련을 하려면 참여하는 군사들과 참관하는 만조백관과 기라성 같은 종친부의 귀빈들을 비롯한 동원된 군용 우마에 대한 취사시설 문제와 식사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쌀감의 공급도 상당한 문제였다. 또한 모든 병장기와 대열장비와 무기류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금원에 각종 창고가 준비하였으나, 훈련 중 부상당하는 장졸과 참관자의 비상 응급 치료소를 비롯한 단기간을 사용하는 숙박과 후생시설 등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엄청난 국고가 급작스런 지출로 탕진되었다.

우선 양식만 해도 전체수효가 대략 110,000명이라고 계산하면 $110,000 \times 1/3 \text{되} = 33,000 \text{되} \div 100 = 330 \text{가마(石)}$ 가 된다. 이것은 한 끼니만의 계산이므로 $330 \times 3 = 990 \text{가마}$ 가 1일(日) 소요량이다. $990 \text{가마} \times 10 \text{일}$ 이면 9,900가마의 쌀이 필요하고, 그 외에 부식으로 사용할 식자재의 종류와 수량도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연료(燃料)는 거의 장작을 사용하였는데 쌀 한 가마를 밥으로 짓는데 소요되는 장작은 장정의 큰 짐으로 한 짐이 소요되므로 $9,900 \times 1 = 9,900 \text{짐}$ 이 된다. 이것을 마차 단위로 환산하면 마차(馬車) 1대에 실을 수 있는 양은 대충 장정의 짐으로 6짐으로 치는데 $9,900 \div 6 = 1,650 \text{마차}$ 분이 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장작을 때고 나면 많은 양의 숯이 남게 되는데, 숯은 물에 버리고 갔다. 그것은 숯이 물의 자정원소로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후일 훈련 때에 양질의 좋은 물을 병사들이나 우마에게 먹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마병(騎馬兵)들이 타는 말의 수를 제외하더라도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우마의 수도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이 많다.

이렇듯이 식량(食糧)과 연료 소비량만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부식(副食)으로 사용하게 될 각종 장류와 우마에게 먹이는 잡곡과 마초 등을 고려시대 마정의 할당량으로 합산하여 보면 대단한 경제적 소요와 곡물의 원활한 보급이 어렵게 예상되어, 비관적 경제비중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열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왕의 전교가 떨어지면 수많은 신료들이 갖가지 사유를 들어 대열을 연기하거나 아예 중지를 요구하며 대열을 극구 만류하는 진언을 하는 관료들도 상당히 많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산(燕山)10년 10월 2일에 왕이 정금원 평에서 대열병을 하였다²⁹⁾는 기록이 마지막이고, 중종(中宗)31년 8월 26일에 “경연에 나가 대열할 때 군사징발과 관련한 논의를 하다”라는 실록의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대열의식을 행할 때마다 왕들이 몸소 친견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성남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왕실문화를 익히게 되었고 왕실문화에 익숙하여지다 보니 저절로 충절의 기상이 내재되게 되었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高登洞)의 지명은 일제에 의해 고산리(高山里)와 등자리(登子里)가 합성된 마을이름이지만 고산리라는 곳에는 대열 때에 서군의 사령탑(司令塔)인 장대(將臺)가 세워지고 높은 신분의 고관대작들과 장수들이 오르내렸다고 하여 산은 높지 않은 마을인데도 고산리라고 이름지어졌다고 전해 온다.

송파구 장지동에도 동군의 사령탑인 장대가 세워졌었다고 전해 오고 있다. 성남지역에는 포구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 지금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산 1-1번지와 산 1-4번지 일대의 산 이름이 배매산이다. 배매산 아래 탄천에 배가 드나들 때에 배를 매어두던 곳이라고 한다. 산 51-52번지 일대의 산 이름도 “배밑들산”이다. 모두가 군사훈련 때에 군용시설과 민간인들이 배를 이용할 때에 긴요하게 이용하던 접안(接岸)시설들이 있었던 곳이다.

실록의 기록을 상고하다 보면 대열이라는 대단위 군사훈련이 없어지자 군사들의 기강이 해이하여지고 개인의 무예실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9) 조선왕조실록 13집 665면 연산10년 10월 2일.

조선의 군사조직력은 흐트러지고 사기조차 급전직하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권력다툼과 당파싸움으로 정국이 혼미하게 되고 군사력이 나후되자 드디어 왜국에 의하여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여 국가의 위명에 치욕을 덧칠함은 물론 수많은 인명이 무참하게 살상되는 비극적 참사를 맞게 되었다. 이때에도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으로 한 광주일원에서 많은 의병이 창궐하여 광주인의 기개를 드높였다. 특히 성남을 포함한 광주 출신들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여러 전선전투에서 맹활약한 전쟁사를 정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최초의 승전보를 울려 영해부사에서 경상감사로 수직승진하고 이순신에게 관옥선을 만들어 준 한효순(韓孝純)을 비롯하여 도독 이여송의 차사원으로 차출되어 전승에 공을 세운 한술(韓述)과 조령전투에서 순직한 이경류(李慶流)나 이순신의 휘하에서 순국전사한 남유(南瑜) 같은 충신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성남에는 400여년 전통의 세거문중이 약 60여 문중이 있는데 각문중의 선대들이 임진왜란 때에 각급 직책에서 오직 조국수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온몸을 던져 직무에 충실하였고 백성들을 위무하면서 때로는 장렬한 전사를 하였고 때로는 크게 전공을 세워 공신반열에 오른 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상당수 있고 왕을 지근에서 호종하여 호성원종공신(扈聖願從功臣)에 오른 분들과 전란이 끝날 때까지 목민관으로 오직 백성들의 무탈과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활약한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한 충절정신은 계속 후대로 이어져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도 수많은 광주 출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묘호란(丁卯胡亂) 당시(當時)에 안주병사(安州兵使)로서 장렬히 산화하여 조선장수들의 충절기개를 드높였던 충장공(忠壯公) 남이흥(南以興) 장군(將軍)과 함께 충민공(忠敏公) 이상안(李尙安) 장군(將軍)의 충절정신은 길이길이 빛나고 있다. 그 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도 이 지역 성

남 출신이나 성남일원에 거주하던 분들의 충절의 기상은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 같은 사실은 『남한기략』(南漢記略, 金尙憲 著 1冊 36章 筆寫本)이나 『기오수록』(己午隨錄, 韓明勸 著 1冊 43章)과 『남한일기』(南漢日記, 石志亨 著 4冊 筆寫本)와 또 다른 『남한일기』(南漢日記, 鄭之虎 著 1冊 78章, 筆寫本) 등에도 전쟁 상황과 인조대왕의 호종과 국제정세를 비롯한 군사업무와 외교 분야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남한산성을 재축성한 각성대사(覺性大師)도 의병장의 한 사람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성남지역은 조선시대에 광릉(廣陵)이라는 지역 이름으로 빛나는 충절의 전통과 화려한 문맥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었다.

광릉 일대에 선산이 없으면 반가의 축에 끼지 못한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성남 일대에 정착한 문중에서 문과(文科)나 무과급제자(武科及第者)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 문음(門蔭, 祖上의 蔭德으로 特採되어 벼슬에 나가는 것)으로 출사하여 고관대작에 이른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대열 외에도 사냥이라는 이름의 군사훈련을 겸한 왕의 사냥에 지역 주민들이 자주 동원되면서 지존 지엄한 왕과의 접촉이 가능하였고 그로 인하여 충절의 사상과 어찌하여서 국가에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지를 터득하고 살아온 선대들로 인하여 충절사상과 엄격한 교육이 세습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VI. 대한제국시대

대한제국시대(大韓帝國時代) 이전부터 일제의 사악하고 영리한 계교에 의하여 조선의 국운이 풍전등화 같다고 느낀 애국심이 강력한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막강한 광주의병(廣州義兵)의 활동이 많이 있었다.

1895년 국모시해사건(國母弑害事件)부터 더욱 격렬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동년 12월 단발령으로 민심이 흉흉하여지면서 강력한 국민저항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의병이 전국에서 크게 창궐하였다. 1896년 이천의병(利川義兵)에서 활동하던 조성학(趙性學)이 남한산성에서 300여명의 의병을 규합하여 별패진포군(別牌陣砲軍)이라 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³⁰⁾

1896년 1월 17일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가 결성되어 18일에 곧바로 일본군수비대(日本軍守備隊) 100여명을 백현(魄峴, 넝고개, 利川과 廣州의 境界에 있는 고개)에서 공격하여 크게 전공을 세웠는데 동년 2월 12일 일본정규군의 반격으로 크게 패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의병규합을 하여 인원이 188명에 이르렀는데 광주의병장(廣州義兵將) 심진원(沈鎭元)이 남한산성(南漢山城)이 포위되어 전세가 불리하다는 격문에 이천의병이 일시에 남한산성으로 돌진하여 산성을 포위하고 있던 일본군수비대(日本軍守備隊)를 격퇴하고 남한산성에 입성하여 광주의병과 합세하였다. 그 후 일한 을사늑약에 의하여 조선의 국권이 흔들리며 위태하게 보이더니 1910년 막상 일한합방이라는 경술국치(庚戌國恥)가 확정하여지자 남한산성을 중심거점으로 의병들의 활동이 더욱 치밀하고 왕성하여졌으며, 규모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의병활약이 거세게 전개되었다.

특히 성남일대 출신인 이명하(李命夏), 윤치장(尹致章), 남상목(南相穆) 의병장 등이 두터운 인맥을 동원하여 의병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또 지역유지들을 설득하여 군자금을 조달하였고, 최신식 장총 등 신무기를 구매 배포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전과를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총독부와 일정에 제일의 경계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19년 2월 고종황제(高宗皇帝)의 국상을 당하여 많은 사람

30) 성남문화원 발행 성남지역의 의병조사연구, p.55, 2002년 12월 동진인쇄

들이 상경하여 통분을 나누면서 민족대표(民族代表)인 독립만세 주도운동가들과 만나서 독립만세운동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직접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3일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장례를 마치고 난 후 그길로 귀향하여 자기 지역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켜 독립만세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삼천리 방방곡곡에 만세운동이 활화산이 폭발하듯이 강력하게 번지게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돌마면 율리(현 분당구 율동) 출신의 한백봉(韓百鳳), 한순회(韓順會), 낙생면 운중리(현 판교신도시) 출신의 남태희(南泰熙) 등의 광주유림을 대표하던 지도자들도 당시 상경하여 손병희(孫炳熙), 권병덕(權炳德), 오화영(吳華榮), 한용운(韓龍雲), 오세창(吳世昌) 등의 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지도부와 만나 만세운동취지에 동감하여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고,³¹⁾ 민족대표 33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3일 황제국상(皇帝國喪)을 마치고 귀향하여 문중어른들과 이웃마을 문중대표와 지역유지를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취지와 이유를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한편으로는 시위자금을 모금하여 태극기(太極旗)와 머리띠를 만드는 등 비밀리에 지하 독립만세운동 준비를 철저하게 전개하였다. 3월 26일 율리의 뒷동산인 모란봉(木丹峰)에서 주민 100여 명이 초저녁부터 시위예고를 알리는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27일 새벽까지 부르다가, 각기 자기 집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분당리 장터에 모여 10시부터 거세고 끈기 있는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돌마면(突馬面)과 낙생면(樂生面)의 관내를

31) 경성지방법원 판결문(韓百鳳) 1919년 5월 2일, 한국독립운동사 김승학, 독립문화사 1964년. 성남지역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 제조명,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발행, 2008년 3월 1일, 돌마마을지(하), 성남문화원 2008년.

순회하며 시위하였는데 두 먼민이 합세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조선총독부에서 본국정부(本國政府, 日本國)에 보고문서인 「조선소요사건일람표(朝鮮騷擾事件一覽表)」에 기록된 인원이 보통사람들만 3,000명이라고 보고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지역에 수백 년간을 거주하며 조상으로부터 충절교육을 받아온 세기문중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충절의 사상이 뿌리 깊게 지역정서를 이루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VII. 결론

이상과 같은 성남지역의 문헌상(文獻上)으로 전해 오는 역사적 사실과 방중자료들을 종합하여서 판단하여 보면 성남지역을 포함한 경기지역은 2200년의 경기도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성백제의 찬란하였던 문화와 무수한 전통과 유적들이 모두 전란에 소실되고 역사는 승전국인 신라, 당나라에 의하여 고구려의 역사와 함께 형언할 수 없이 참혹하게 지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사라졌어도 수천 년간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전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하여 오고 있으며, 또 후손만대에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한성백제의 찬란하였던 최고급문화를 창출하였던 고장이기에 태자를 축으로 하는 강병부국(強兵富國)의 면모를 갖춘 융성한 백제문화와 이를 창출하는 데 크게 공헌한 군사들의 사기는 충절의 기상과 함께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남한산성은 한성백제 초창기에 이미 성도의 배후산성으로서 골격과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근초고왕(近肖古王)26년(371)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을 때에 고국원왕을 죽이고 군을 되돌려 궁성으로 귀환하여 고구려의 보복 침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으로 이도한 후에 다시 어느 곳으로도 이도한 사실이 없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주는 것이다.

한성백제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애국이 왜 필요한지를 몸소 겪었던 쓰라린 아픔을 잊을 수 없었던 이 지역에 세거하던 문중인을 중심으로 몽쳐진 주민들이기에 역사 속에서 가장 충절의 기상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高麗)시대에도 충절의 정신이 이어져 국난을 당하여 피신하기에 급급하였던 왕을 극진한 예우로 적극 보좌하여 오히려 왕이 스스로 깨우치게 한 충절의 사고방식을 다시 일깨워 후손만대에 전하게 하여야 한다. 조선(朝鮮)시대에 이르러서는 빈번한 왕의 행차를 접함에 익숙하여지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존경과 신뢰로 인하여 왕실문화에 친숙하여지는 면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 무수한 이 지역출신들이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켜내었다.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도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서 나라를 구하고 영위하는 데 이 지역에 많은 선인들이 동참하였다. 국난을 당하면 더욱 강해지는 충절의 정신과 주민단결력은 이 지역 성남시를 비롯하여 광주권(廣州圈) 정신문화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한층 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문화의 창출과 화려하고 찬란하였으며 장엄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새로 정리된 전통의 역사를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전당서와 후당서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백제의 영토를 확인하여야 하고, 한성백제 역사를 재조명하여야 한다.

또한 남한산성이 수도인 위례성(慰禮城)의 배후성곽으로서의 역할과

축성기법과 연대를 확실히 정리기록하여야 하고, 한성백제후기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보복침공이 두려워 남한산성으로 서울은 옮긴 이후의 수도(首都)로서의 위상과 찬란하였던 한성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특히 백제시조 온조왕의 사당이 왜 남한산성에만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 준왕(準王) 이후 시대별로 수많은 충신열사의 정신사고를 이어온 정맥을 찾아 모든 자료를 발췌하여 검토하고 질서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실되고 참다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광주(廣州)권 문화권인 성남시를 비롯하여 광주시, 하남시와 서울시의 강동구, 송파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성백제의 재조명을 위한 학술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조사연구 활동에 돌입하여야 한다.

朝鮮時代烽燧遺蹟의 文化資源活用方案

— 龍仁 石城山烽燧를 중심으로 —

백종오(白種伍)

忠州大學校 教授

◆ 차례 ◆

- I. 머리말
- II. 基本前提 構想
- III. 遺蹟保存 및 活用方案
- IV. 맺는말

I. 머리말

石城山烽燧¹⁾는 조선시대 전체 5개의 봉수노선 중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로서 동쪽의 용인 건지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성남 천림산봉수²⁾에 전달하던 유적이다.

일반적으로 봉수는山城과의 관련성에서 경기지역의 봉수³⁾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과거 행정치소의 중심지에 위치할 경우 산성내 혹은 산성과 인접하여 설치되는데 석성산봉수 역시 石城山城내에 설치되어 산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봉수유적이 위치하는 석성산성 유적 정비와 연계하여 조화로운 정비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현존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훼손된 부분은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정확한 고층에 의거하여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되는 주변경관 조성권과 전통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역사적 고층을 바탕으로 주변경관과 적절히 조화된 복원·정비계획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전통문화 환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성산봉수와 그 주변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역사문화 자원의 특색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발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주변지역에 위치하는 석성산성과 할미산성 등 관방유적과 연계하여 고대 이래 이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져야 한다. 그리고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

1) 석성산봉수에 관한 문헌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勝覽 卷 10 京畿 龍仁縣 烽燧條 “寶蓋山烽燧 東應竹山縣巾之山 北應廣州穿川縣”, 『東國輿地志』
 卷 2 京畿道 龍仁縣 烽燧條 “寶蓋山烽燧 東應竹山縣乾至山 北應廣州穿川峴”, 『輿地圖書』 京畿道 龍仁縣 烽燧條 “寶蓋山烽燧 東應竹山府巾之山 北應廣州府穿川縣”, 『京畿誌』 第4冊 「龍仁縣邑誌」 烽燧條 “寶蓋山烽燧 東應竹山府巾之山 北應廣州府穿嶺峴”, 『輿圖備志』 京畿道 左道 龍仁縣 烽燧條 “石城山 卽 世宗寶錄 卷 148 理志 京畿 龍仁縣 烽火一處 石城 在縣東 東淮竹山巾之山 北淮廣州穿川山”, 『新增東國輿地寶蓋山古城』, 『大東地志』 卷 4 京畿道 20 邑 龍仁 烽燧條 “石城山 古城內”, 『京畿邑誌』 第5冊 「龍仁縣邑誌」 烽燧條 “寶蓋山烽燧 在東邊面距官門十五里 東應竹山府巾之山 北應廣州府穿嶺山”, 『始興郡邑誌』 “寶蓋山烽燧 一名石城山 在東邊面距官門十五里 東應竹山府乾止山 北應廣州府穿嶺山”, 『龍仁郡誌』 “寶蓋山烽燧 在東邊面距官門十五里 自乙未年廢棄”, 『增補文獻備考』 卷 124 兵考 16, 烽燧 2. “木覓山烽燧 自東至西五炬 - 第二準慶尙忠清京畿兼廣州天臨山烽 - 第2炬 天臨山 石城山 巾之山 望夷城” 이의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5 쪽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覽』 (上卷), 279 쪽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90, 『韓國의 城郭과 烽燧』 (下), 643 쪽 :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處仁城·老姑城·寶蓋山城』, 116 ~ 118 쪽 : 응주대학교, 2009, 『용인 석성산봉수 종합정비기본계획』, 57 ~ 76 쪽 등에 간략한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

2) 성남 천림산봉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이 참고된다.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0, 『성남 천림산봉수 정밀지표 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1, 『성남 천림산봉수 발굴조사 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3, 『성남 천림산봉수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3) 金周洪, 2000, 『京畿地域의 烽燧研究』, 祥明大學校 碩士學位論文.

삽도 1. 석성산봉수 옛지도



여지대전도(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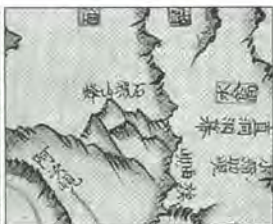
여지도(1735년)



해동여지도-龍仁(1735년)



해동지도-龍仁縣(1750년대)



경기도지도-龍仁縣(18세기중엽)



여지도-龍仁縣(18세기중엽)



말도군연지도-龍仁(1760)



광여도-龍仁縣(1767~1776년)



18세기 후반-龍仁



말도지도-龍仁(1785~1800)



동국여도-龍仁縣(1800)



해동여지도-龍仁(1800년)

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봉수유적인 석성산봉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자원 활용방안의 기본전제 구상과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록 하겠다. 이는 추후 봉수유적의 학술조사와 유적정비 및 복원에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基本前提 構想

1. 基本構想

석성산 일대는 유적의 분포에 따라 석성산봉수와 석성산성, 할미산성 지역으로 공간이 구획되며 이중 석성산봉수는 매장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한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대상지역을 크게 유적 분포와 유구의 매장 가능성에 따라 유적분포지역을 유적보존구역으로, 유구의 매장이 확실시 되는 지역을 유구매장구역으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유구매장잠재구역과 유구미매장구역 등 모두 4개의 구역으로 구획할 수 있다.⁴⁾ 이를 토대로 공간 구성에 따른 공간 활용, 동선체계, 도입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

1) 공간구상

㉑ 유적보존공간은 유구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와 탐방객의

4) 이들 4개 구역의 내용을 좀 더 언급하면, ㉑ 유적보존구역은 유적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각 유적을 통한 역사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적보존공간, ㉒ 유구매장구역은 유구 및 유물이 매장되어 있으므로 일체의 시설은 배제하고, 시원하고 탁 트인 정적 공간, ㉓ 유구매장잠재구역은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급적 시설을 억제하여 휴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유구미매장구역과 유구매장구역 및 유적보존구역과의 이질적 공간을 차단하는 완충적 공간, ㉔ 유구미매장구역은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탐방객을 위한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시설공간 등이다.

5) 필자는 2009년 용인시로부터 '석성산봉수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의뢰받아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이하 본장의 내용은 상기 결과와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혀둔다.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이해 증진, 볼거리 욕구가 충족되는 공간으로 활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발굴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과정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교육의 산 현장으로 활용한다. 또 발굴조사로 노출된 유구 중 특수한 건물지 및 연조유구에 대한 노출전시의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⑥ 정적 공간은 유구가 매장되어 있는 공간으로 발굴조사 완료 후 유구의 성격에 따라 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되도록이면 시설공간으로의 활용을 억제하고 탁 트인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발굴조사 기간 중에는 발굴조사단의 시설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탐방객의 유적 탐방 이전에 교육 및 홍보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완충 공간 역시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시설공간으로의 활용을 억제하며, 시설공간과 유구보존공간과의 완충적인 공간이므로 수림을 조성하여 휴식 및 산책 공간으로 이용한다.

⑧ 시설 공간(동적공간)은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공간으로 탐방객을 위한 기초 기반시설 공간으로 활용한다.

2) 동선체계 구상

동선은 크게 대상지역내 동선과 대상지역 접근을 위한 동선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동 수단에 따라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보행자동선

대상지역 진입에서 석성산봉수가 있는 석성산 일대의 등산로를 활용하여 유적 탐방과 휴식, 산책 등을 위한 자유롭고 다양한 동선으로 구분한다. 석성산봉수 접근을 위한 동선은 조선시대 관방·통신유적의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석성산봉수 탐방 동선은 유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

표지판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고 역사교육탐방을 위한 체계적인 동선으로 구상한다. 등산로 정비를 통한 석성산성·할미산성과의 연계 동선도 필요하다.

⑥ 차량동선

탐방객 차량동선은 그 출입이 용이하게 유도하고 봉수박물관 및 주요 진입로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관리자와 서비스 차량동선은 탐방객 차량동선과 중복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봉수박물관·관광안내소 등과 연결하며 화재 등 비상시 긴급차량의 진입로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대상지역 접근 동선인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서로간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동선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3) 도입시설 구상

공간구성에 따라 각 공간에 맞는 도입시설과 탐방객의 활동성향에 따른 도입시설 등으로 구상한다.

④ 유적보존공간

유적보존을 우선하므로 가급적 시설 조성을 억제하며 유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 차원의 배수시설이 요구된다. 향후 발굴조사가 진행될 경우 발굴조사과정 탐방을 위한 시설이나 석성산성과 연계하여 역사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안내판 시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정적공간과 완충공간

역시 유구가 매장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시설 조성은 가급적 억제한다. 발굴조사 기간 중에는 발굴조사단을 위한 시설, 교육 및 홍보 임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발굴조사 이후에는 파고라, 벤치 정도의 휴식 시설을 설치한다.

© 시설공간

석성산봉수 역사광장과 일부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과 봉수대 아래쪽 약수터 주변으로 건물지를 일부 발굴하여 복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굴된 유적 주변으로 유적 설명 데스크, 화장실, 식수대 등 등산객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한다. 그리고 통회사 진입로 정비를 유도하는 등 사유지를 경유하는 진입동선에 대한 정비도 요구된다.

표 1. 석성산봉수의 SWAT분석

<p>◆ 강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존상태 양호함• 봉수대라는 차별성• 수려한 자연환경 보유• 주변 유적과 연계 가능성	<p>◆ 기회요인(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과 다운타운에서 가까이 위치한 높은 활용 가치• 공원으로로서 발전가능성 높음• 꾸준한 방문객 확보 가능
<p>◆ 약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험준한 지형으로 접근성 낮음• 사유지와 군사보호구역 존재• 인접 관광자원 빈약• 고유의 정체성 부재• 방문객 안전사고 우려 상존	<p>◆ 위험요인(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벨트 해제요구 높음• 조사 미비로 인한 자료 부족• 성남시 천림산 봉수 정비 등 경쟁 대상 사업의 본격화

2. 綜合構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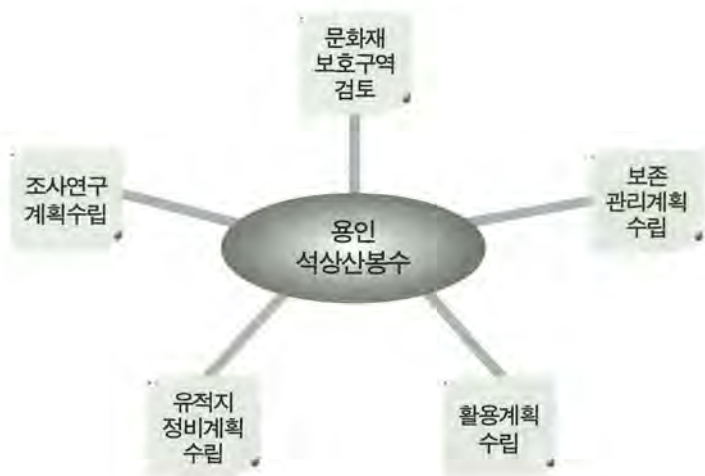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구역을 공간구성에 따른 개념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며 각각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주변 정비, 석성산봉수 정비, 역사광장 조성, 부대시설 조성, 봉수박물관 건립 순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향후 발굴 유구의 훼손 방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관람객에게 발굴지의 개방이 가능한 탐방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석성산봉수와 용인의 관방유적을 종합하는 봉수박물관을 건립하여 용인의 역사적 흔적을 담아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를 통해 역사적 자료와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토기류 제작 및 모형 조립 등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은 봉수박물관 주변으로 차폐식재를 하여 현대 건축물과 유적간의 괴리감을 완화시키고, 진입로를 따라 안내시설, 편의시설, 주차장을 설치한다. 봉수박물관의 앞으로는 트인 공간을 조성하고 진입공간과 주차장 사이에 전통수종을 이용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 이들 공간은 관람객의 휴식공간으로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역사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표 2. 기본전제 개념도



III. 遺蹟保存 및 活用方案

1. 方向設定

1) 조사와 정비

먼저 석성산봉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그 현황에 따라 발굴 및 보존 활동 정도와 정비방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현존 봉수의 상태를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 발굴, 보존의 방법과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유구의 훼손 방지 및 역사성 보존을 제1목표로 삼아야 한다. 봉수와 주변은 이미 군사시설로 사용되면서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등산로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도 보존과 활용의 수위 결정에 감안할 사항이다.

그리고 유적이 위치하는 석성산성의 발굴 및 보존·정비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존의 수위를 결정하여 보존단계를 설정한 후 보존 및 복원함으로써 호국 및 관방, 역사·문화의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곳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활동을 통해 호국의 역사·문화 보존과 계승의 중심 장소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문화 전략 관점에서의 유적지 활용이 필요하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개발전략은 자원의 발굴, 공간의 결합, 기능의 복합화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㉓ 지역에 위치하는 문화유적지를 조사·발굴하여 그 유적의 고유한 성격을 자원화하며, ㉔ 주변의 공간과 결합함으로써 문화재의 성격이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를 조성, 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운영과 관리 ㉖ 보존 및 활용 방안의 지향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지향 목표는 미래의 조사발굴을 준비하는 장기적 비전을 담은 활용방

안, 시민의 생활과 공존하는 활용방안, 역사성, 교육성, 현장성을 중시하는 시민사용 장소로서의 활용방안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로 석성산봉수의 현상에 따른 구역별 보존 방안 설정이다.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구역별 훼손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여 현재 사용시설 및 등산로의 존치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함께 각 구역별로 조사, 발굴, 보존, 활용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현상별 보존 방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1수준: 유적지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보존

- 보호책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의 진입을 통제하여 물리적 훼손 방지
- 기존 등산로는 동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

㉡ 2수준: 더 이상의 유적 훼손 최소화

- 우회가 불가능할 시 등산로의 유적 관통을 허용하되, 테크를 설치하여 등산로로 활용함으로써 등산객의 유적 진입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 봉수의 훼손 정도에 따라 일부를 복토, 정비함.
- 봉수 내부의 헬리포트 등의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군사시설 이전 후에는 낮은 보호책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진입을 방지하여 물리적 훼손을 미연에 방지함

㉢ 3수준: 조사 후 보존 활용

- 발굴조사 이전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여 물리적 훼손을 미연에 방지함
- 발굴조사 후 복토 정비하고, 잔디 등을 식재하여 토사 유실 방지
- 붕괴 우려 지점에 한해 방호벽 일부 복원
- 노출되어있는 건물지는 조사 후 기단부 노출 정비

2) 관련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및 적용

유적의 정비 복원 및 관리운영 계획은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문화재보

호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공원의 조성과 이용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또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및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 등 상위 개발계획에 발맞추어 유적정비 및 복원을 추진하되 유적의 성격을 잘 부각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의 일부 수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유적 이용의 가장 큰 제약사항인 군사보호구역은 이전대체부지 확보 등 장기적인 재원마련을 통하거나 군 당국과 협의하에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주변의 유적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

관광자원화를 위해 석성산봉수와 연계한 석성산 일대 문화유적의 활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석성산봉수 및 석성산 주변에 산재한 유적을 체험 가능한 연령별, 인원별 다양한 코스를 설정하여 운영하며 석성산봉수 및 문화유적을 좀 더 재미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등산객들에게 석성산봉수와 문화유적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안내판 설치하고 석성산성과 할미산성 등 지역관련 역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석성산봉수의 역사성을 현대에 이을 수 있는 문화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의 조성이다. 석성산과 할미산을 하나의 역사 유적지로 인식하여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순한 등산코스가 아니라 석성산성 및 할미산성과 연계한 관방 유적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체계 구성과 탐방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유적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하여 고대 통신체계인 봉수의 신호 전달체계를 인식할 수 있는 활용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 석성산봉수 탐방로와 석성산성 및 할미산성과 연계한 지점에 용인 시유적전시관이 위치하는데 이곳을 역사·문화에 대한 발견과 교육의 현장이자 석성산봉수의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아

야 할 것이다.

4) 유적의 보호관리 및 향후 복원계획

유적의 보호관리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보존 방안 수립하여 문화재 보존방향을 설정하고 활용하는데 이때 인위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붕수의 훼손 원인을 파악하여 붕수의 추가적인 훼손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붕수의 보존방향을 중심으로 붕수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토사유출로 인한 석재의 노출 등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보호와 등산로 우회로 및 펜스 등을 설치하고 문화재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문화재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1) 문화재의 활용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문화재 사랑 실천'의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선진 시민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석성산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에게 석성산붕수 역사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자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하고 붕수와 주변문화재에 담긴 역사·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탐방객에게 전달하는 문화재 해설코스를 운영·활용한다.

또 석성산이 가지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붕수 및 산성 등 문화재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문화재 홍보 및 보존에 활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문화공간 조성

유적지의 역사, 문화,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

는 하나의 역사적인 매개체로 성격을 통합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복합용도 공간구조(Multiple Use Module) 개념을 도입하여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석성산봉수를 핵심보전지역에 두고 그 외곽에 제1완충지역, 제2완충지역을 배치하여 보존과 이용의 강도와 밀도를 조정한다.

삽도 2. 복합용도 공간구조(M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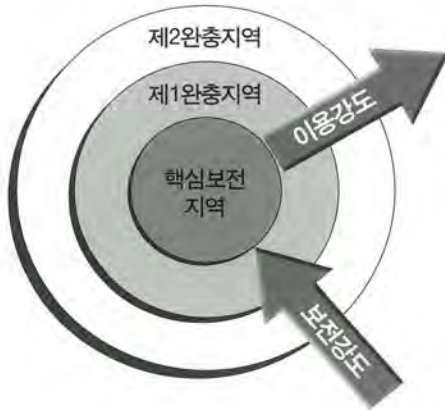


표 3. 공간구상의 기준설정

지역설정	적용지역	중심기능
핵심보전지역	봉수지역	문화재 보존기능
제1완충지역	산성지역	문화재 보존 및 활용기능
제2완충지역	석성산지역	활용기능

앞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배치의 기본방향은 봉수지역, 산성지역, 석성산지역으로 나누어진다.

㉔ 봉수지역은 수준별 봉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적용하여 봉수 보존 및 복원방향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한다.

㉕ 산성지역은 봉수와 시설지역(등산로) 사이의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등산객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등산로를 우회시킨다.

㉖ 석성산지역은 석성산 등산로 진입부에서부터 유적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며, 아울러 할미산성 등산로와도 연계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2. 단계별 정비·활용방안

1) 발굴조사 계획

석성산봉수의 기 조사는 모두 지표조사로써 유적의 간단한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결과 봉수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만 이루어졌을 뿐 정확한 현황 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비·활용방안 수립에 앞서 유적의 정확한 규모와 구조 등의 현황과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봉수의 외곽을 둘러싼 석성산성과 할미산성의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석성산봉수의 축조와 운영 그리고 석성산성 및 할미산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유적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중장기 연차조사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조사계획은 유적의 현황, 성격 규명 및 정비 등 활용자료 확보 등을 위해 봉수대와 그 하단 우물지 주변 평탄지를 하나의 석성산봉수 권역으로 묶어 조사구역을 설정하여 조사의 효율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석성산봉수의 발굴조사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 5와 같다.

표 4. 계획지표와 방안

	계획지표	계획방안
조사연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보존을 위한 봉수 훼손 요인 파악하여 유구의 훼손 방지 방안 제시 • 원형 고증 및 유적 정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발굴조사 실시하며 발굴조사단의 의견을 수렴, 반영 • 발굴조사시 조사과정 및 유구탐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사교육의 산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실측조사, 안전점검, 자연생태환경조사 • 발굴조사계획 수립
문화재보호 구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 보호 및 효과적인 관리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검토 • 역사문화환경 개념을 도입하여 주변 환경까지를 고려한 확대 지정안 및 협의구역 일부 지역 조정안 제시 • 석성산봉수 유적에 위치하는 관련 유구의 분포 가능성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요구 • 유구매장 가능성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과 성내 시설물 보존 • 주변 군사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정비방안 구상
유적지 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대 및 연조 노출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원형 보존에 입각한 보존, 정비, 복원 계획 수립 • 효율적인 유적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제거 안전 펜스 및 데크 설치 • 유구별 보존, 정비, 복원 • 장기과제로서 성곽박물관 등의 교육 홍보시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유적보존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수대 훼손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점검 • 장기적으로 봉수대 훼손 요인을 감소시키면서 군부대와 조화를 이루는 유적정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수목제거, 배수로 등 관리 • 관리자 및 전문가에 의한 정기 점검 실시 • 군사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유적 정비안 마련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관방 통신 유적 성격에 맞는 활용 방안 제시 • 주변 문화재 및 문화유적과의 연계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역사 체험 교육 • 주변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탐방 코스 정비

표 5. 석성산봉수 조사 계획(안)

구분	면적	비고
1차	1,500m ²	석성산봉수 시굴조사 및 석성산성 정밀지표조사
2차	1,000m ²	석성산봉수 봉수영역 발굴조사
3차	500m ²	석성산봉수 거주영역 발굴조사

(1) 봉수대

봉수대는 봉수영역과 거주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⁶⁾ 봉수영역은 연조, 망대 방호벽, 건물지 등 중심시설로 구성되며, 거주영역은 건물지와 음료 유구(샘, 우물 등) 보조시설로 구성된다.

석성산봉수는 봉수영역 내부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평탄지가 좁기 때문에 봉수대 하단 우물지 주변에 별도의 거주영역을 두어 평탄지가 협소한 봉수대 내부 평탄지를 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 잔존상태만 가지고는 유적의 정확한 현상확인이 불가능하여 정비 및 복원안 수립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선 봉수영역과 거주영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분포범위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발굴조사는 이들 두 영역을 년차별로 나누어 진행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정비복원을 위한 고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 봉수대 주변

석성산봉수는 석성산성내에 위치하므로 이들 유적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접지역의 할미산성과의 연계성도 함께 파악하며 이외에 동백지구 등지에서도 다수의 유적이 확인된 사례가 있

6) 李喆永, 2006, 『朝鮮時代 沿邊烽燧에 관한 研究』, 大邱가톨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어 석성산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석성산의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석성산성과 할미산성 등도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석성산봉수 정비와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이 갖는 군사지리적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관방유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되는 유적 중 기존 조사계획안의 내용과 부합되는 부분은 1차 조사계획안을 수정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석성산봉수 발굴조사에 앞서 발굴인력 및 장비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조사기간 동안 석성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조사단의 편의를 구하기 위함이다.

표 6. 주변유적 조사방안

구분	조사지역	비 고
단기	석성산성	정밀지표조사
	등산로	정밀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중·장기	석성산성	발굴조사(별도 수립)
	할미산성	발굴조사(별도 수립)

2) 유적지 내·외부

(1) 봉수 : 유적지내 유구 보존방안

석성산봉수는 간단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약간의 시설물들이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현상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앞서 언급한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의 현상을 확인한 후 정비방안 마련해야 한다. 중심시설인 연조, 방

호벽, 건물지 등의 시설물은 정비를 원칙으로 하나 시설물중 조사를 통해 보존상태가 양호한 곳을 택하여 복원을 검토한다. 복원은 유적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유적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시설물의 복원 및 정비는 유적내 탐방 동선을 고려하고 일부지역에 집중하여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현재 유적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등산로이기 때문에 유구를 복토하거나 등산로를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훼손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유적 주변지역의 수목 및 잡풀을 제거하여 화재시 유적을 보호하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표 7. 유적 정비 방향

유 구	정비방향
연조	정밀조사 후 복원 또는 복토
방호벽	정밀조사 후 복원 노출전시
건물지	잔디식재 후 노출
우물지 및 기타	음수대 설치, 목조 보호각 설치
유적탐방로	박석 계단 및 강회다짐

(2) 석성산성: 유적지를 둘러싼 유적 보존방안

석성산성은 축조 후 산성만 경영되었으나 봉수가 조성된 이후에는 산성과 봉수를 하나의 조합으로 인식하여 경영하였다. 산성과 봉수의 조합은 용인 석성산이 교통과 통신의 요충지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따라서 석성산봉수의 정비는 봉수를 둘러싸고 있는 석성산성의 정비가 동반되어야 효과적인 유적 정비방안이 될 수 있다.

① 성벽

석성산성은 지표조사를 통하여 일부 성벽은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축성 방법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의 구조와 축조법을 파악한 후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굴조사 후 축성방법이 확인된 구간 중에 보존상태가 양호한 곳을 택하여 복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벽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벽에서 자라는 수목으로 일시에 뿌리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성벽 주변의 수목도 정리하여 성벽을 일주할 수 있는 탐방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탐방로의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벽 내외측 20m 범위의 수목 및 잡풀을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화재시 성벽을 보호하고 성벽 정비시 작업로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성내시설물

성내 시설물은 문지, 치성, 망대, 건물지 등의 주요 구조물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CLR으로 한다. 복원은 유적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유적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유사한 성격의 시설물의 복원은 최소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설물의 복원 및 정비는 성내 탐방 동선을 고려하고 일부지역에 집중하여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각의 유구에 대한 정비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외 주변유적의 정비방안 설정은 단일유적 아닌 석성산봉수와 석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복합유적의 개념으로 각각의 유적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등산로 개설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유구에서 최소한의 거리를 이격시키고 자연지형을 이용한 등산의 동선을 최대한 활용한다. 위험

표 8. 유적 정비 방향

유 구	정비방향
성벽석축	정밀조사 후 노출전시
석렬 및 적심	잔디 식재 후 부분 노출
주춧돌 및 석축	멸실 부분 복원 후 노출
우물지 및 기타	음수대와 목조 보호각 설치
유적탐방로	박석 계단 및 강희다짐

구간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바닥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해 포장하는데 구간별 박석 계단 및 강희다짐, 흙시멘트 포장, 고압블럭 등 재료의 변화를 준다.

3) 문화공간 조성

현재 용인시에는 처인성, 석성산성, 할미산성, 임진산성 등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으며 석성산봉수, 건지산봉수 등 봉수유적이 위치한 호국과 관방문화의 중심지이다. 때문에 용인시의 관방유적과 군사통신시설의 성격 규명을 통하여 용인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임을 재조명하며 그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석성산봉수에 역사광장 건립이 제기된다. 문화발전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주변 유적지와 연계성 및 새로운 문화지구를 형성하는데 석성산 일대는 최적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 일대는 인지도가 높은 장소로 역사적 상징성이 우수하고 대중교통 및 자가용 교통의 접근성이 훌륭한 편이다.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하며, 주변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하다. 물론 사업의 용이성 측면에서 큰 제약사유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석성산봉수 역사광장 건립을 통해 봉수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후 석성산봉수, 석성산성, 할미산성의 추가 발굴 조사와 정비를 통해 봉수박물관의 당위성을 천명한 뒤 봉수박물관과 유적을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봉수역사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9. 봉수역사광장 추진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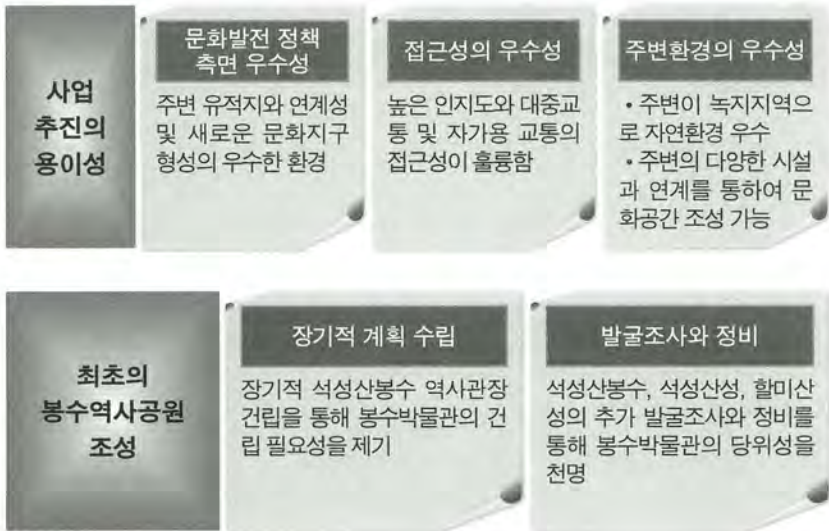


표 10. 봉수박물관 건립 대상지(안)

구분	대상지	선정사유	문제점	비고
1안	시청 주변지역	순환적 동선체계	동선이 김	
2안	백현마을 공원지역	주변 공원지역과 연계 최적지	등산코스가 가장 가파름	
3안	터키군 참전비주변지역	할미산성 연계 최적지	영동고속도로와 근접	

㉔ 전시주제 및 대상 : 봉수 관련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주변 관방유적 출토유물

㉕ 전시관 활용방안 : 랜드마크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㉖ 차별성 : 기존 향토사료관 및 동백지구 유적전시관과는 별도의 봉수 및 관방유적 중심의 전시관으로 활용

4) 문화자원 연계

문화자원 연계 계획은 지역단위와 광역단위로 나누어진다.

먼저 지역단위 관광계획은 석성산성 및 석성산봉수 · 할미산성 · 처인성 등의 관방유적, 경기도박물관 · 백남준 아트센터 · 경기도국악당 · 용

표 11. 활용방안 개념도



인시문화유적전시관·호암미술관 등 용인관내 다수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에버랜드·민속촌과 각종 리조트 등 연계 관광 코스가 매우 풍부한 편이다.

광역단위 관광계획은 지역단위 관광코스의 주변지역인 수원·화성·성남·안성·평택·광주 등의 문화유산과 연계할 수 있는데 석성산봉수의 살린 관방유적 답사코스, 박물관 및 미술관과 연계한 코스, 위락시설과 연계한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용인 석성산봉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봉수유적의 문화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활용방안이 구체화되어 실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와 잠재력을 전망하며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유적 내에 위치한 시민광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는 문화유적지로서의 현장성을 살리고 주변 문화유적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재 애호의식을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공헌할 것이다. 그리고 용인 지역의 시간적·공간적 역사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용인시의 역사유적을 그대로 느끼고 감흥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역사광장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체감 형성 및 향토에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건강 증진의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이와 함께 관내 학교와 연계를 전제로 교육의 현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될 것이다. 한편, 인접지역

의 봉수대 유적과 연계하여 조선시대 통신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용인의 역사적 위상과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문화시설로의 성격이 극대화된다. 역사광장에서는 시민의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석성산봉수 역사광장 내에서는 역사유적의 성격과 형성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산 역사의 체험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청소년 관련 체험학습, 정서함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인 멘토링 활동의 장으로 활용가능하다.

따라서 용인 석성산봉수 역사광장과 봉수박물관의 설립은 지역사회 문화활동의 중심지로서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이자 종합문화체험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도 3 석성(신물수 물수영(上), 거주영(下) 조간도(물산과학대학 이철영교수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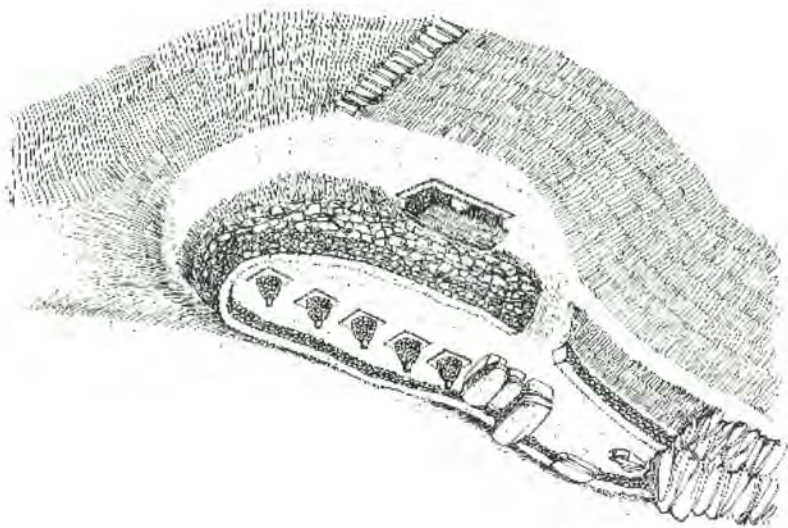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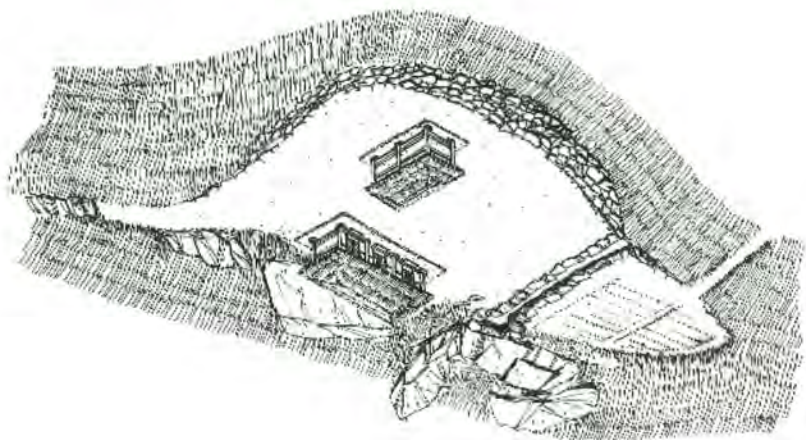




사진 1. 석성산성과 봉수 전경(남쪽에서)



사진 2. 석성산성과 봉수 전경(서쪽에서)



사진 3. 봉수영역 상단대지(동쪽에서)



사진 4. 봉수영역 연조



사진 5. 봉수영역 내 군용 초소



사진 6. 봉수대 방호벽(서벽)



사진 7. 봉수영역 하단대지 헬리포트



사진 8. 봉수영역 하단대지내 건물지



사진 9. 거주영역 전경(북쪽에서)



사진 10. 거주영역 건물지 전경(남쪽에서)



사진 11. 거주영역내 샘(우물) 전경



사진 12. 거주영역 건물지내 석재



사진 13. 거주영역 동쪽 축대



사진 14. 석성산성 포곡식 남벽(진입로 주변)



사진 15. 석성산성 포곡식 남벽 조사모습



사진 16. 석성산성 동문지



사진 17. 석성산성 동벽내 통화사



사진 18. 석성산성 테외식 서벽



사진 19. 석성산성 테외식 서벽 축조상태1



사진 20. 석성산성 테외식 서벽 축조상태2



사진 21. 석성산성 테외식구간 수습 토기류



사진 22. 석성산성 테외식구간 수습 기와류

朝鮮後期 地方地圖의 烽燧標記

김주홍(金周洪)

IH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사

◆ 차례 ◆

- I. 머리말
- II. 烽燧의 標記形態
- III. 烽燧 標記形態의 考察
- IV. 맺는말

【국문초록】

朝鮮後期 地方地圖는 19세기 서양의 東漸에 대한 조선정부의 집권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高宗9年(1872)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봉수의 표기를 총 11가지 23형태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이렇듯 용도별로 다양하게 표기된 형태는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烽燧軍의 生活, 烽燧의 炬火 및 防護施設 등 운용과 구조·형태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과거 봉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여기에 성남 天臨山烽燧는 적색의 두터운 불꽃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봉수의 거화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봉수의 표기에 있어 이전시기 발간의 『海東地圖』에는 家屋·煙臺·깃발[旗]·城郭·촛불·烽燧名稱 墨書의 6가지 10형태로 단순하다. 이런

원인은 지도를 제작한 화공마다 봉수의 표현시 가장 일반적이고 특징적인 속성을 단순화시켜 표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로 작성한 表를 통해 연대+깃발·성곽+깃발·성곽+연대 등의 세 형태는 해동지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표기사례임을 소개하였다. 이중 깃발(旗)형은 신호전달시 주로 視覺에 의지하여 晝間에만 사용되었으므로 조선후기 봉수는 대응봉수간 효율적인 신호전달을 위해 햇불과 연기 외에 깃발이 널리 활용되었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輿地圖書에는 봉수의 표기가 총 14가지 21형태로 세분된다. 따라서 별도로 작성한 표를 통해 가옥+연조·연대+불꽃·장대형·성곽+불꽃·성곽+원형·요새형·국화형·□형 등의 여덟 형태는 여지도서에서만 확인되는 표기사례임을 소개하였다. 이중 家屋形 표기의 사례를 통해 당시 잔존하고 있었던 가옥의 종류와 위치를 추정하였다. 이어 長臺形 표기의 사례는 道別로 慶尙道 남해현 소재의 錦山·猿山 등 소수의 봉수에서 확인된다. 이는 이들 봉수가 極邊初面に 위치하였던 초기봉수로서 주간에 신호를 보내야 했으므로 연대나 연기 대신 장대 모양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要塞形과 菊花形은 봉수의 여러 기능 중 성곽형과 마찬가지로 방호기능을 강조한 유형이다. 道別로는 황해도 연안도호부와 함경도 종성부 소재의 소수 봉수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그만큼 이들 지역이 국방상 중요 지역이었기에 봉수의 여러 일반적인 표기형태와는 달리 요새형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여지도서의 봉수표기는 그 의미하는 바가 앞서 발간된 해동지도와는 달리 다양하다. 즉, 봉수군의 생활, 봉수의 거화 및 신호, 거화모습, 봉수형태의 표기 외에 국방상 중요 지역의 봉수인 경우 사례가 소수지만 城郭·要塞·菊花形 등으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봉수연구는 문헌기록의 고증을 통한 현장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지도를 접목한 봉수연구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봉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또한, 남한뿐만 아니라 현장조사가 곤란한 북한의 봉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제어: 봉수, 봉수군, 해동지도, 여지도서, 조선후기 지방지도, 연골, 연조, 연대, 연통

1. 머리말

朝鮮은 19세기부터 본격화된 서구열강의 문호개방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鎖國政策으로 국권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高宗3年(1866)의 丙寅洋擾, 동왕 8年(1871)의 辛未洋擾를 겪게 되었다. 朝鮮後期 地方地圖는 서양의 東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軍制의 개편, 군사 시설의 확충과 경비 태세의 강화 필요성에서 제작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1871년 전국 각 군현의 邑誌 편찬과 1872년 지방지도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국 각 지역의 군사시설 및 지역에 대한 중앙의 집권력 강화 노력의 소산물이다.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측면 특히 海防이 강조된 지도로 군현에 설치되어 있는 鐵堡 등 군사시설의 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특히, 전라지역의 군현과 진보 지도는 회화적 아름다움을 지니면서 지도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조선후기 지방지도에는 이전시기 발간의 海東地圖·輿地圖書와 다르게 봉수의 표기가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주된 표기형태는 봉수군의 생활시설인 家屋, 거화시설인 煙窟·煙竈·煙臺·煙筒, 거화모습을 표기한 불꽃·촛불, 봉수가 성곽 내에 있을 경우 城郭으로 표기한 형태 등이다. 이중 성남 天臨山烽燧는 淸溪山 우측의 穿川峴 산정에 적색의 불꽃 모양으로 거화모습을 표기한 불꽃형이다. 따라서 거화 모습 외에 봉수의

다른 생활·거화시설 여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조선후기 지방지도는 타 지역 봉수표기의 사례를 통해 이전시기 주로 한 가지 요인으로만 표현되었던 표기가 생활, 거화, 신호수단, 방호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과 어울려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표기는 과거 봉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반면, 봉수의 실제 형태와는 다르게 원형, 방형, ‘凸’字形 외 봉수명칭만 묵서한 단순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고는 제II장에서 조선후기 지방지도에 표기된 각종 봉수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봉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남 천림산봉수의 표기가 타 지역 봉수의 표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이어 제III장에서는 조선후기 지방지도에 앞서 제작 및 발간된 해동지도와 여지도서를 통해 조선후기 봉수표기 형태의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도에 표기된 봉수의 형태와 실제 잔존하고 있는 관련유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상호 비교할 수 기회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과거 봉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또한, 남한뿐만 아니라 현장조사가 곤란한 북한의 봉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II. 烽燧의 標記形態

1. 生活施設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봉수에서 교대로 쉼을 서며 상주하였던 봉수군에게 생활시설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조선후

기 지방지도에는 생활시설이 대부분 家屋形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옥 단독으로 표현시 瓦家와 草家로 구분되며, 와가는 위치에 따라 山頂·山中·山下로 구분된다. 또한, 가옥이 여러 요인과 결합된 형태로 가옥 옆에 깃발을 표기한 가옥+깃발형, 가옥 옆에 불꽃을 표기한 가옥+불꽃형, 촛불 모양으로 형상화한 봉수 인근이나 아래에 가옥을 표기한 가옥+촛불형 등이다.

본 절에서는 가옥과 관련된 형태로 깃발·불꽃·촛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가옥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 연굴·연조·성곽 등은 이들 요인이 봉수의 주요 거화·방호시설인 만큼 별도 표기형태로 살펴볼 것이다.

각 형태별 유형은 <그림 1~13>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가옥형으로 초기는 나주 지도인 鐵馬山 瞭望臺,¹⁾ 와가는 산정인 언양 夫老山烽燧,²⁾ 산중은 천안 大鶴寺烽燧,³⁾ 산하는 거창 金貴山烽燧⁴⁾ 등이다. 가옥의 기능을 강조하여 가옥 단독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가옥+깃발형은 거제 加羅山烽燧⁵⁾이다. 산정 소규모의 초가 좌측에 우측으로 펼쳐이는 깃발을 적색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가옥+불꽃형은 서산 都飛山烽燧,⁶⁾ 의성 繩淵山烽燧⁷⁾이다. 모두

- 1) 지지서에 문헌기록이 없으며 군사적으로 중요하였던 해당營·巖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權設烽燧이다.
- 2)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의 해발 391.7m인 산정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부산대대 포진 鷹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內地烽燧이다. 대응봉수는 남으로 양산 渭川烽燧, 북으로 울산 蘇山烽燧에 응하였다.
- 3)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대리의 해발 455.5m인 大鶴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여수 防踏嶺 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직봉노선의 內地烽燧이다. 대응봉수는 남으로 공주 雙嶺山烽燧, 북으로 아산 鶯菴山烽燧에 응하였다.
- 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당동의 해발 836.4m인 金貴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남해 錦山에서 초기하는 제2거 간봉(9)노선의 內地烽燧이다. 대응봉수는 남으로 합천 所峴山烽燧, 북으로 거창 集末屹山烽燧에 응하였다.
- 5)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의 해발 585m인 加羅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제2거 간봉(2)노선이 초기하는 沿邊烽燧로서 서쪽으로 彌勒山烽燧에 응하였다.



그림 1. 家屋形(草家), 전라도 나주 지도진



그림 2. 家屋形(瓦家-山頂)①, 경상도 안양현



그림 3. 家屋形(瓦家-山中)②, 충청도 천안군



그림 4. 家屋形(瓦家-山下)③, 경상도 양산현



그림 5. 家屋+깃발(旗形), 경상도 거제부



그림 6. 家屋+꽃봉(花)①, 충청도 서산군



그림 7. 家屋+꽃봉(花)②, 경상도 문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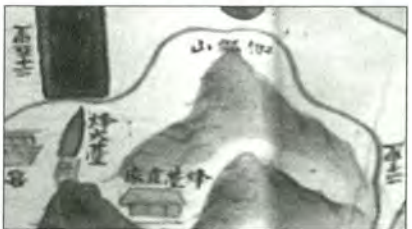


그림 8. 家屋+춧돌(草家)①, 전라도 광양현

- 6) 충남 서산시 부석면 산동리와 지산리 경계의 해발 351.6m인 都飛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옥구 花山에서 초기하는 제5거 간봉(2)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동남쪽으로 홍성 高丘烽燧, 서북쪽으로 태안 白華山烽燧에 응하였다.
- 7)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원골의 해발 164.6m인 산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부산 다대포 鷹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內地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남으로 義興縣 繩木



그림 9. 家屋+촛불형(草家)②, 전라도 영암 추자도



그림 10. 家屋+촛불형(草家)③, 전라도 임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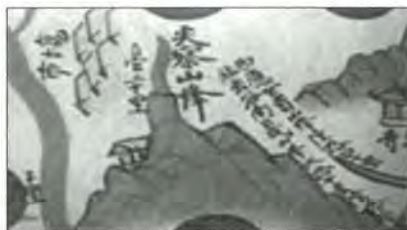


그림 11. 家屋+촛불형(草家)④, 전라도 진도부



그림 12. 家屋+촛불형(瓦家)①, 전라도 강진현



그림 13. 家屋+촛불형(瓦家)②, 경상도 의흥현

와가로서 前者는 산정에 가옥과 좌측에 뾰족하고 길쭉한 삼각형태로 적색의 불꽃이 피어 오르는 모습을 작게 표현하였다. 後者는 산봉우리 정상 가옥 좌측에 적색 불꽃이 길

게 피어 오르는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넷째, 가옥+촛불형은 초가가 광양 件對山烽燧⁸⁾·영암 추자도 達摩山烽燧⁹⁾·임치진 瓮山烽燧¹⁰⁾·진도 尖察山烽燧¹¹⁾ 등이며, 와가는 강진 佐谷

山烽燧, 북으로 大也谷烽燧에 응하였다.

- 8) 전남 광양시 골약동과 광양읍 경계의 해발 472.7m인 件對山 정상에 위치하는 제5거 간봉(1)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남으로 여수 進禮山烽燧, 서로 여수 城隍堂烽燧에 응하였다.
- 9)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의 해발 485m인 達磨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여수 防踏嶺 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직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동으로 莞島烽燧, 서로 해남 館頭山烽燧에 응하였다.
- 10)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천리의 해발 82m인 烽臺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여수 防踏嶺 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직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남으로 高林山烽燧, 서남으로 海際烽燧에 응했다.

山烽燧¹²⁾· 의흥 甫只峴烽燧 등이다. 먼저 초기는 위치가 산정의 웅산봉수와 산중의 건대산·달마산·침찰산봉수로 구분된다. 이중 건대산봉수는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초가 상부에 “烽臺直家”라 묵서된 유일한 사례이다. 따라서 건대산봉수의 사례를 통해 당시 봉수에는 봉수군이 교대로 쉼을 서는 도중 風雨와 寒暑를 피하고 生活을 하였던 가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촛불의 표현에 있어 건대산봉수는 붓과 같은 모양이며, 달마산봉수는 촛대에서 불꽃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서 타오르는 모습이다. 이외에 웅산·침찰산 두 봉수는 불꽃을 한 갈래의 적색으로 표현하였다. 다음 와기는 위치가 모두 산정이며 의흥 甫只峴烽燧는 가옥 우측의 촛불 모양에 십자까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2. 炬火施設

거화시설은 晝煙夜火의 봉수제에서 봉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지방지도에는 煙窟·煙窟·煙臺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煙窟 <그림 14~15>은 조선후기 지방지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연조와 동일한 기능 및 역할을 하였으나, 표기방식은 차이가 있다. 확인예가 소수이며 사례는 북한의 평안도 西城鎮 藥山烽燧, 함경도 고원군 熊望山烽燧¹³⁾ 등이다. 前者는 연굴+불꽃형으로 평안도 서성진 藥山城 내 西將臺 우측에

11) 전남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와 의신면 사천리 경계의 해발 485.2m인 산정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여수 防踏窟 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직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남으로 女貴山烽燧, 북으로 黃原城烽燧에 응하였다.

12) 전남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의 해발 101m인 봉대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여수 防踏窟 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직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동으로 강진 垣浦烽燧, 해남 莞島烽燧에 응하였다.

13)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초기하는 제1거 직봉노선의 봉수이다. 대웅봉수는 북으로 城隍峙烽燧, 남으로 天佛山烽燧에 응하였다.



그림 14. 煙窟形①, 평안도 서성진



그림 15. 煙窟形②, 함경도 고원군

土饅頭 형태의 연굴 5기와 적색의 불꽃모양이 표현되어 있다. 아울러 연굴 상부에 종으로 “烟窟五” 및 불꽃 모양 우측에 종으로 “藥山烽燧”라 묵서하였다. 後者는 연굴+가옥형으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와가 아래에 원형의 작은 연굴 5기가 표현되어 있다. 가옥과 연굴 우측에는 종으로 “烽臺”라 묵서하였다.

둘째, 煙窟 <그림 16~21>는 조선시대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육지 내륙의 內地烽燧에서 햇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1거를 하던 거화 시설이다. 이전시기 발간의 고지도에서 봉수 표기의 한 유형으로 표현되었던 방식이다. 조선후기 지방지도에는 연조 단독 혹은 가옥·성곽·불꽃 등의 여러 요인이 다양하게 결합된 채 표현되어 있다. 표현시 내지·연변봉수의 구분 없이 모두 연조형으로 표기되어 있다. 각 형태별로 소개하면 연조만 표현한 형태로 청도 南烽燧¹⁴⁾·함경도 함흥부 執三烽¹⁵⁾·倉嶺烽·草古坵烽 등이다. 前者는 방호벽으로 여겨지는 대 위에 방형으로 5기의 연조를 표기하였다. 다음 함경도 함흥부 소속의 後者는 읍치의 배후 純陵이 위치한 북쪽 산 능선에 백색으로 모두 5기씩의 연조를 길쭉한 작대기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14)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와 청도읍 원리 경계 해발 804m의 남산 봉우리에 위치한다. 노선과 성격상 부산 天城堡에서 초기하는 제2거 간봉(8)노선의 內地烽燧이다. 대응봉수는 남으로 밀양 盆頂烽燧, 북으로 청도 北山烽燧에 응하였다.

15)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초기하는 제1거 직봉노선의 봉수이다. 초축시기는 『輿地圖書』의 발간을 전후하여 신설되었다. 대응봉수는 북으로 洪原 南山烽燧, 서로 倉嶺烽燧에 응하였으며 烽火士 100명이 輪番守直하였다. 『增補文獻備考』에는 曩三仇味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16. 煙竈形①, 경상도 청도



그림 17. 煙竈形②, 함경도 함흥부



그림 18. 煙竈+家屋形①, 충청도 서천군



그림 19. 煙竈+家屋形②, 함경도 문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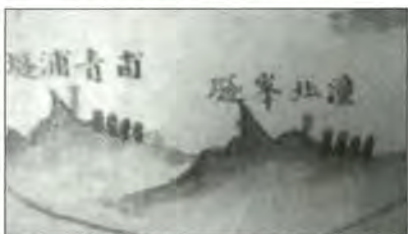


그림 20. 煙竈+불꽃形①, 함경도 종성부



그림 21. 煙竈+불꽃形②, 함경도 경흥부

다음 연조+가옥형은 서천 雲銀山峰燧¹⁶⁾· 함경도 문천군 天佛山烽燧¹⁷⁾ 등이다. 前者는 해발고도가 높게 표현된 산정의 와가 좌측에 연조 5기를 작게 표현하였다. 실제 위치와 잔존 형태를 비교하면 봉수는 연변봉수로써 해발고도가 높지 않은 곳에 있으며 연조 5기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

16) 충남 서천군 마서면 봉남리와 남산리 경계의 해발 146.9m인 南山의 서쪽 봉우리 烽火山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옥구 花山에서 초기하는 제5거 간봉(2)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남쪽의 옥구 古方山烽燧, 북쪽의 서천 漆枝山烽燧에 응하였다.

17) 함경남도 문천시와 천내군 경계의 天佛山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초기하는 제1거 직봉노선의 봉수이다. 대웅봉수는 조선전기에 북으로 高原 熊望山, 남으로 宜川 戌帖에 응하였다. 중기에는 북으로 고원군 웅망산, 남으로 德源府 楡峴에 응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북으로 고원군 웅망산봉수, 남으로 덕원 蘇達山烽燧에 응하였다.

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사례로 볼 수 있다. 後者は 산정에 5기의 연조와 산 중턱에 초가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조+불꽃형은 함경도 종성부 潼北¹⁸⁾·甯靑浦烽燧¹⁹⁾·경흥부 牛巖烽燧²⁰⁾ 등이다. 표현에 있어 함경도 종성부 소속의 봉수는 가장 앞에 1기의 연조를 적색으로 크게 표현 후 그뒤에 작게 4기의 연조를 표기하였다. 다음 경흥부 우암봉수 역시 종성부 소속 봉수와 동일한 표현이다. 조선시대 제1거 직봉노선의 초기 연변봉수인 만큼 주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 보고 있는 강변으로 다수의 把守가 배치되어 있다.

셋째, 煙臺 <그림 22~32>는 조선시대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변경이나 해안 沿邊烽燧에서 햇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1거를 하던 거화시설이다. 높이 3m 내외의 토축, 석축 혹은 토+석 혼축의 인공적인 시설물로 연대 상부 중앙에는 원형 혹은 방형의 燃燒室이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지방지도에 연대형으로 표현된 봉수는 모두 연변봉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연대형 표기의 사례는 순수하게 煙臺만 표기하거나 연대 상부 중앙부에 연통을 마련한 연대+연통형, 연대 상부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연대+불꽃형, 성곽처럼 표현한 연대 상부에서 촛불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표기한 연대+촛불형의 네가지 형태이다.

각 형태별로 소개하면 연대 단독형은 양양 草津山烽燧²¹⁾·강화 鎮江山烽燧²²⁾·기장 阿爾烽燧²³⁾·영종 白雲山烽燧²⁴⁾ 등이다. 이중 초진산·진강

18)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초기하는 제1거 직봉노선의 봉수이다. 대응봉수는 潼關鎮 甯靑浦烽燧, 長城門烽燧에 응하였다.

19)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초기하는 제1거 직봉노선의 봉수이다. 대응봉수는 온성 永達堡 小童建烽燧, 潼關鎮 北峰烽燧에 응했다.

20) 조선시대 제1거 직봉노선의 초기 沿邊烽燧이며 造山鎮 南山烽燧에 응하였다.

2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의 河越臺가 봉수터이다. 대응봉수는 남으로 陽野山烽燧, 북으로 水山烽燧에 응하였다.

22)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의 해발 443.1m인 鎮江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 상 여수 防踏鎮 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직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응봉수는 동으로 大母城山烽燧, 서로 望山烽燧에 응하였다.



그림 22. 煙臺形①, 강원도 양양읍



그림 23. 煙臺形②, 경기도 강화부



그림 24. 煙臺形③, 경상도 기장



그림 25. 煙臺形④, 경기도 영종



그림 26. 煙臺+煙筒形①, 경기도 교동부



그림 27. 煙臺+煙筒形②, 전라도 장흥부

산봉수는 해안과 산정에 모두 원통형으로 연대를 표기하였다. 다음 영종 백운산봉수는 산 능선에 3기의 연대를 표기하였는데, 고지도의 표현형태

2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의 해발 129.2m인 烽台山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 격상 부산 干飛鳥에서 초기하는 제2거 간봉(1)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남쪽의 부산 南山烽燧, 북쪽의 울산 爾吉烽燧에 응하였다.

24)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면 운남동·운서동 일원의 해발 255.5m인 백운산 정상에 3개소의 煙臺가 남아 있다. 조선 중기 발간된 각종 地誌書에 기록이 없는 대신 1872년 제작의 永宗防禦營『永宗地圖』(奎 10347)에 비로소 보인다. 여기에는 瞿曇寺 뒤의 높다란 산 봉우리에 白雲山烽臺 명칭으로 3개소의 연대시설이 뚜렷하게 채색되어 있다. 19세기 말을 전후하여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鎖國政策 강화에 따라 연대를 설치한 권설봉수이다.



그림 28. 煙臺+煙筒形③, 전라도 보성군



그림 29. 煙臺+불꽃形①, 전라도 흥양현 녹도진



그림 30. 煙臺+불꽃形②, 평안도 신도진



그림 31. 煙臺+촛불형①, 황해도 서흥부 소이진



그림 32. 煙臺+촛불형②, 황해도 해주 용매진

와 실제 잔존 유지의 수량 및 형태가 동일한 경우이다.

다음 연대+연통형은 교동부 華蓋山烽燧·장흥부 億佛山烽燧²⁵⁾·보성군 正興山烽燧 등이다. 이중 교동 화개산봉수는 산정의 석축 연

대 상부에 2단의 길쭉한 煙筒施設을 사실적으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실제 연대 상부에는 거화시 연기가 바람에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통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흥 억불산봉수는 산정 2단으로 설치한 연대 상부의 연통에서 불이 피어 오르는 모습을 적색으로 표기하였다. 보성 전일산봉수는 억불산봉수와 표현이 유사하나 연대 하부 중앙에

25)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목리의 해발 518.2m인 억불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제5 거간봉(1)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종 동쪽의 숲日山烽燧, 북쪽의 강진 修仁山烽燧에 응하였다.

방형의 火口施設을 표현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대 하부의 방형 화구에서 거화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좋은 자료이다.

다음 연대+불꽃형은 녹도진 帳機山烽燧²⁶⁾·평안도 薪島鎭 烽燧 등이다. 모두 繪畫式으로 산정과 해안에 설치되어 있던 연대에서 피어 오르는 불꽃을 단순하게 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대+촛불형은 황해도 서흥부 소이진 所々山烽燧²⁷⁾·황해도 해주 용매진 延坪烽燧²⁸⁾ 등이다. 前者는 산중의 방형 연대 위에 높이가 낮은 촛불 표기를 통해 거화모습을 표현하였다. 後者는 용매진이 위치한 延坪島 내에 전자와 유사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다만 연대 상부에 표기한 촛불 모습의 촛대 길이와 화연을 길쭉하게 한 차이가 있다.

3. 防護施設

방호시설은 내지·연변봉수에서 外賊과 惡獸로부터 봉수군과 봉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防護壁·壕 등이다. 조선후기 지방지도에는 방호벽이나 호 대신 봉수가 위치한 곳이 성곽 내일 경우 산정이나 사면에 城郭形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 생활시설의 가옥형과 마찬가지로 성곽형에는 연조·가옥·불꽃·촛불 등의 여러 요인이 다양하게 결합된 채 표

26) 전남 고흥군 도암읍 용정리의 해발 226.8m인 장계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여수 防踏鎭 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직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동쪽의 天燈山烽燧, 북쪽의 보성 正興寺烽燧에 응하였다.

27) 江界 餘屯臺에서 초기하는 제3거 직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봉수명칭과 대웅봉수는 조선전기 所乙麼山烽火 명칭으로 북으로 鳳山 巾之山烽燧, 남으로 本府의 回山烽燧에 응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所卞山烽臺 명칭으로 烽燧監官 3명, 烽燧軍戶保 100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增補文獻備考』에 소변산이 『輿覽』에는 소음마산으로 되어 있고, 『備局勝錄』에는 所々山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28) 서해안 경기만에 소재하는 다수 列島 중 하나인 延坪島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義州 古靜州에서 초기하는 제4거 직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봉수의 조축 시기는 『輿地圖書』의 발간을 전후한 조선후기이다. 대웅봉수는 북으로 睡鴨烽燧, 동으로 龍媒烽燧에 응하였다.



그림 33. 城郭+家屋形, 충청도 노성현



그림 34. 城郭+煙窠形①, 수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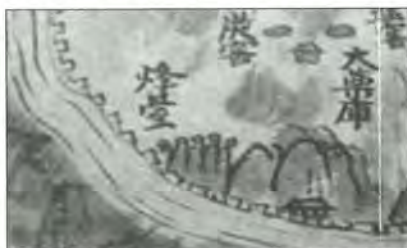


그림 35. 城郭+煙窠形②, 경상도 김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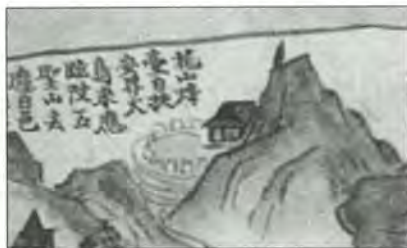


그림 36. 城郭+家屋+불꽃形①, 전라도 옥구현



그림 37. 城郭+家屋+불꽃形②, 경상도 울포진

현되어 있다.

각 형태별로 소개하면 <그림 33~37>에서 잘 나타난다. 첫째, 성곽+가옥형은 노성현 魯城山烽燧²⁹⁾인데, 산하에 성곽과 산중에 가옥을 표기하였다.

둘째, 성곽+연조형은 수원부 華城烽墩³⁰⁾·김해부 盆山城烽燧³¹⁾ 등이다. 前者는 조선후기 軀築의 초축연도가 확실한 봉수로서 고지도의 표기

29)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의 해발 348m인 노성산 정상부의 將臺址에서 남쪽으로 35m 떨어진 동벽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여수 防踏鐵 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직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남으로 논산 皇華臺烽燧, 북으로 공주 月城山烽燧에 응하였다.

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수원성곽 내 팔달문과 창룡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연도는 조선후기 정조 20년(1796)이다. 대웅봉수는 서남쪽으로 화성 乾達山烽燧, 동으로 용인 石城山烽燧에 응하였다.

31) 경남 김해시 어방동 盆山城내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부산 天城堡에서 초기하는 제2거 간봉(8)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부산 省火也, 김해 子菴烽燧에 응하였다.

형태와 잔존 모습이 사실적이다. 또한 5기의 연조 중 중간 연조에서 적색의 불꽃이 피어 오르는 표현을 통해 평화시 매일 올리던 1거의 거화는 중간 3연조에서 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後者は 분산성 내에 봉수를 상징하는 5기의 연조를 표기하였다.

셋째, 성곽+가옥+불꽃형은 옥구현 花山烽燧³²⁾·울포진 加羅山烽燧 등이다. 前者는 산하에 원형의 성곽 표기 후 산중에 와가와 산정에 적색으로 불꽃표기를 하였다. 아울러 좌측으로 명칭과 대응노선의 봉수를 묵서하였다. 後者는 산정으로 둥글게 원형의 성곽과 불꽃 표기 후 산중 가운데에 와가를 표기하였다. 아울러 우측에 종으로 명칭과 거리를 묵서하였다. 한편 동일시기에 작성된 경상도 거제부 지도에는 가옥+깃발(旗)형으로 표기상 차이가 있다.

4. 其他形態

봉수의 표기형태로서 위에서 소개한 생활·거화·방호시설과는 다른 기타의 표기형태가 있다.

이를 소개하면 첫째, 불꽃형 <그림 38>은 봉수의 실제 거화모습을 적색의 불꽃으로 상징화한 표기형태이다.



그림 38. 불꽃형, 경기도 광주부(천림산 봉수)

불꽃 단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가옥·성곽·연굴·연조·연대 등의 여러 요인과 결합된 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표현시에는 불꽃을 두텁게 하거나, 가느다랗게 한 줄로 표기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성남 天臨山烽燧는 불꽃형 표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불꽃을 두텁게 표

32) 전북 군산시 옥서면 군산비행장 내 해발 50.9m인 화산 정상에 위치하는 沿邊烽燧이다. 조선시대 제5거 간봉(2)노선의 초기 봉수이며 서천 雲銀山烽燧에 응하였다.



그림 39. 촛불형①, 경기도 장단부



그림 40. 촛불형②, 평안도 증산현



그림 41. 촛불형③, 함경도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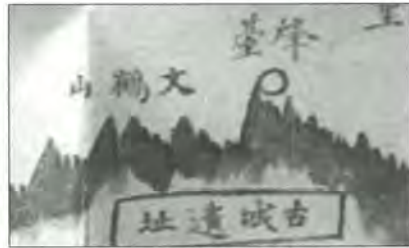


그림 42. 圓形, 경기도 인천부

현하였다.

둘째, 촛불형 <그림 39~41>은 이전시기 발간의 고지도에서도 봉수 표기의 한 방법으로 내지·연변봉수에 공통적으로 표기된 사례이다. 앞의 불꽃형과 마찬가지로 봉수의 실제 거화모습을 촛불형태로 상징화한 표기 형태이다. 촛불 단독형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여러 요인과 결합된 채 표현되어 있다. 촛불 단독형 표기의 사례는 경기도 장단부 都羅山烽燧³³⁾·평안도 증산현 봉수³⁴⁾·함경도 무산 峴西³⁵⁾·鍾峴烽燧³⁶⁾ 등이다. 이중 장단부와 증산현 소속의 봉수는 산정과 해안가의 절벽에 굽고 뚜렷한 촛불

33)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의 해발 167m인 都羅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강계 餘屯臺에서 초기하는 제3거 직봉노선의 內地烽燧이다. 대응봉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심하였으나 최종 서로 개성 松嶽烽燧, 동으로 파주 大山烽燧에 응하였다.

34) 조선후기 함경도 증산현에는 炭串立所·甕山·西山등 3기의烽燧가 있었으나, 명칭의 미표기로 인해 고지도에 표기된 봉수 원래의 명칭은 미상이다.

35) 제1거 간봉(2)노선의 봉수로서 梁永堡에 속하였다. 대응봉수는 남으로 鍾峴烽, 북으로 大巖烽에 응하였다. 會寧 雲頭峰에 집결하였다.

36) 제1거 간봉(2)노선의 봉수로서 梁永堡에 속하였다. 대응봉수는 남으로 南嶺烽, 북으로 西峴烽에 응하였다. 會寧 雲頭峰에 집결하였다.

형태로 봉수를 표현하였다. 반면, 함경도 무산현 소속의 봉수는 두만강변 해발고도가 높은 산정에 가느다랗고 짧은 촛불 형태를 표기하였다.

셋째, 圓形 <그림 42>는 봉수가 위치하는 산정을 원형으로 단순하게 표기한 형태이다. 따라서 봉수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 수 없으며 위치만 알 수 있는 표현 형태이다. 이 형태의 사례는 인천부 文鶴山烽燧로 원형으로 표기한 산정 좌측에 “文鶴山” 및 상부에 “烽臺”라 묵서하였다.

넷째, 方形 <그림 43>은 봉수가 위치하는 산정을 방형으로 단순하게 표기한 형태이다. 이 형태의 사례는 鷄立嶺로의 영동현 麻骨烽燧

³⁷⁾이다. 방형으로 붉게 표기한 산정 상부에 “麻骨烽”이라 묵서하였다.

다섯째, 凸形 <그림 44>는 산정에 凸字形으로 단순하게 표기한 형태이다. 표현상 연변봉수로서 연대와 상부의 거화를 위한 연통시설을 형상화한 형태로 여겨진다. 이전시기 발간의 『여지도서』에서도 봉수 표현의 한 형태로 쓰인 표기형태이다. 이 형태의 사례는 홍양현 呂島鎭 瞭望臺이



그림 43. 方形, 충청도 영동현



그림 44. 凸形, 전라도 홍양현 여도진



그림 45. 봉수명 묵서, 충청도 태안

37) 충북 충주시 상모면 사문리와 미륵리 경계의 지름재 남쪽 해발 640m의 산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거제 加羅山烽燧에서 초기하는 제2기 간봉(2)노선의 內地烽燧이다. 대웅봉수는 동쪽의 문경 炭項烽燧, 서쪽의 충주 周井山烽燧에 응하였다.

다. 산정에 붉게凸자형으로 표기 및 상부에 “瞭望臺”라 묵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표현이 없이 단순히 봉수가 위치하였던 산정에 烽燧名稱만 墨書 한 사례로 <그림 45>이다. 따라서 봉수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 수 없으며 위치만 알 수 있는 표기 형태이다. 이 표기의 사례는 태안 白華山烽燧³⁸⁾로 봉수가 위치한 산정 사면으로 엇비슷하게 “烽火臺”라 묵서하였다.

III. 烽燧標記 形態의 考察

朝鮮後期 地方地圖는 19세기 서양의 東漸에 대한 조선정부의 집권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高宗9年(1872)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봉수의 표기를 총 11가지 23형태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이렇듯 용도별로 다양하게 표기된 형태는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烽燧軍의 生活, 烽燧의 炬火 및 防護施設 등 운용과 구조·형태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외에 불꽃·촛불·원형·방형 등으로 표기된 其他形態는 봉수의 대응 관계·위치·형태 등을 함축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봉수의 표기상 이전시기 발간의 海東地圖와 輿地圖書에 비해 다양성을 띠는 만큼 신유형의 표기형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전시기에 주로 쓰이던 표기형태가 이때에 이르러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선후기 지방지도에 앞서 제작 및 발간된 해동지도와 여지도서를 통해 조선후기 봉수표기 형태의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38)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의 해발 284.1m인 백화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옥구 花山에서 초기하는 제5거 간봉(2)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응봉수는 동으로 서산 北山烽燧, 남으로 都飛山烽燧에 응하였다.

1. 海東地圖

해동지도는 370종의 지도를 8첩에 수록한 군현지도집이다. 도별로 작성된 원본을 일차 정서한 지도로 보이며 전체 지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색과 산지의 표현 등 지도를 그리는 기법, 주기의 내용과 형식 등을 볼 때 도별로 다르다. 아울러 제작 시기나 제작 과정, 제작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략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³⁹⁾

여기에는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경·평안도 등 8도의 각 군·현별로 600기가 넘는 烽燧가 烽臺·煙臺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기형태는 家屋·煙臺·깃발(旗)·城郭·촛불과 봉수가 위치한 산정에 봉수명만 묵서한 총 6가지 10형태이다. 이는 지도를 제작한 화공마다 봉수의 표현시 가장 일반적이고 특징적인 속성을 단순화시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중 가옥·성곽형은 드물게 확인되며, 깃발·연대·촛불형이 대부분이다. 세부적으로 가옥형은 가옥만 표기한 형태와 깃발을 첨가한 가옥+깃발형으로 구분된다. 성곽·연대형의 경우도 가옥형과 마찬가지로 사례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의 <表1>은 조선후기 지방지도를 포함한 이전 시기 발간의 고지도와 지지서의 봉수표기 형태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를 검토하면 해동지도에는 생활시설인 가옥, 거화시설인 연대, 신호전달 수단의 깃발, 방호시설인 성곽, 거화모습을 표기한 촛불, 명칭만을 표기한 묵서 등 총 6가지의 단순한 형태이다. 또한 관련있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표기됨으로서 총 10가지의 세부형태로 구분된다. 아울러 연대+깃발·성곽+깃발·성곽+연대 등의 세 형태는 해동지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표기사례이다. 이중 깃발은 표기상 봉수가 위치하는 산정에 적색의 깃발

39) 楊普景, 「郡縣地圖의 발달과 <海東地圖>」 『海東地圖』 解說·索引,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68~70쪽.

〈表 1〉古地圖의 烽燧標記形態

標記形態	細部形態	海東地圖	輿地圖書	朝鮮後期 地方地圖	備考
家屋形	가옥(초가)	×	●	●	生活施設
	가옥(와가)	●	●	●	
	가옥+깃발	●	×	●	
	가옥+연조	×	●	×	
	가옥+촛불	×	●	●	
	가옥+불꽃	×	×	●	
煙窟形	연굴+불꽃	×	×	●	炬火施設
	연굴+가옥	×	×	●	
煙竈形	연조	×	●	●	炬火施設
	연조+가옥	×	●	●	
	연조+불꽃	×	×	●	
煙臺形	연대	●	●	●	炬火施設
	연대+깃발	●	×	×	
	연대+불꽃	×	●	×	
	연대+연통	×	×	●	
	연대+불꽃	×	×	●	
	연대+촛불	×	×	●	
깃발(旗)形		●	●	×	信號傳達
長臺形		×	●	×	信號傳達
城郭形	성곽	●	●	×	防護施設
	성곽+깃발	●	×	×	
	성곽+연대	●	×	×	
	성곽+불꽃	×	●	×	
	성곽+원형	×	●	×	
	성곽+가옥	×	×	●	

標記形態	細部形態	海東地圖	輿地圖書	朝鮮後期 地方地圖	備考
城郭形	성곽+연조	×	×	●	防護施設
	성곽+가옥+불꽃	×	×	●	
要塞形		×	●	×	防護施設
菊花形		×	●	×	防護施設
불꽃형		×	●	●	炬火모습 표기
촛불形		●	●	●	炬火모습 표기
圓形		×	●	●	對應·位置 표기
方形		×	×	●	位置 표기
冂形		×	●	×	烽燧形態 표기
凸形		×	●	●	烽燧形態 표기
墨書		●	●	●	烽燧名稱 표기

이 꽃혀 있는 형태이다. 해동지도에 봉수를 상징하는 특징적인 형태로 다수 표기된 깃발은 조선 전시기에 걸쳐 봉수의 주요信號傳達備品으로 규정되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비품이다. 조선후기 발간의 지지서에는 白旗⁴⁰⁾·大旗⁴¹⁾·大白旗⁴²⁾·上方高超旗⁴³⁾·五色表旗⁴⁴⁾·五方神旗⁴⁵⁾ 등의 각종 깃발이 1면에서 5면씩 기록되어 있다. 歷史的으로 깃발은 조선전기인 世宗14년(1432) 6월 북방여진의 방어책으로 함길도 도순찰사 鄭欽之의 건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慶源·石幕 上院平 성터 이북과 남쪽의 龍城에 이르는 곳에 煙臺 17개소를 설치하여 煙火를 마주보며 포성을 서로

40) 『輿地圖書』下(補遺), 慶尙道 梁山郡邑誌 烽燧條 渭川烽燧의 白旗 1面

41) 『輿地圖書』下(補遺), 慶尙道 三嘉縣邑誌 烽燧條 金城烽燧의 大旗 1面

42) 『獻山誌』「彥陽本縣誌」烽燧汙物條 夫老山烽燧의 大白旗 1面 및 『慶尙道邑誌』第8冊, 「金山邑誌」烽燧條 高城山·所山烽燧의 白大旗 1面

43) 『南木烽燧別將書目』南木烽燧의 白大旗 1面, 上方高超旗 5面

44) 『輿地圖書』下(補遺), 慶尙道 梁山郡邑誌 烽燧條 渭川烽燧의 五色表旗 5面 및 『獻山誌』「彥陽本縣誌」烽燧汙物條 夫老山烽燧의 五色表旗 5面

45) 『湖南邑誌』第10冊, 「靈巖郡邑誌」軍器條 烽臺軍器條의 達摩山烽燧 五方神旗 5面

듣게 하고 연대 한 곳마다 火燭肄習人 1명, 봉수군 3명을 두어 간수하게 하고 信砲 信~3개, 大發·大伴~5자루, 白大旗 등의 비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적변이 일어나면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 밤에는 햇불을 들며 또 신호포를 쏘아 서로 호응하며 백대기를 장대에 달아 편의한 방법으로 적변을 알리게 하였다⁴⁶⁾는 기록을 통해 일찍부터 신호전달의 보조수단으로 비치 및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깃발은 신호전달시 주로 視覺에 의지해야 했으므로 야간보다 晝間에 널리 사용되었다. 아울러 가옥·연대·성곽 등과 어울려 가장 많이 표기된 형태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봉수는 대응봉수간 효율적인 신호전달을 위해 햇불과 연기 외에 깃발이 널리 활용되었음을 고지도의 표기를 통해 알 수 있다.

2. 輿地圖書

輿地圖書는 英祖33年(1757)과 34년 사이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개수하여 全 55책으로 成冊한 것이다. 즉, 輿地圖(각읍지도)와 書(각읍지)로 이루어진 全國地理誌임을 뜻한다.

여기에는 <표1>을 통해 봉수의 표기형태가 봉수군의 생활시설인 家屋, 거화시설인 煙籠·煙臺, 신호전달 수단의 깃발(旗)·長臺, 방호시설인 城郭·要塞·菊花, 거화모습을 표기한 불꽃·촛불, 대응관계를 표기한 圓形, 형태를 표기한 卍·凸형, 명칭만을 표기한 墨書 등 총 14가지 형태가 확인된다. 아울러 이들 표기형태는 관련있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총 21가지의 세부형태로 구분된다. 아울러 가옥+연조·연대+불꽃·장대형·성곽+불꽃·성곽+원형·요새형·국화형·卍형 등의 여덟 형태는 여지도서에서만 확인되는 표기사례이다.

46) 『世宗實錄』 卷56, 14年 6月 癸巳 條.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여지도서에 표기된 다양한 형태의 봉수표기를 통해 각 유형별로 의미하는 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家屋形은 瓦家와 草家로 구분되며 위치에 따라 山頂·山中·山下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당시 잔존하고 있었던 가옥의 종류와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산정의 가옥 옆에 거화시설인 연조를 표기한 가옥+연조형, 촛불을 표기한 가옥+촛불형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煙籠形은 봉수에 따라 연조가 3개 혹은 5개 등으로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의 봉수가 5거제를 근간으로 했던 만큼 연조가 3개로 표기된 사유는 불명확하다.

셋째, 煙臺形은 봉수가 위치한 산정에 연대만을 표기하거나, 연대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연대+불꽃형으로 구분된다.

넷째, 長臺形은 깃발형과 마찬가지로 봉수의 신호전달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道別로 경상도 남해현 소재의 錦山烽燧⁴⁷⁾·猿山烽燧⁴⁸⁾ 등에서 확인되는데, 이들 봉수는 연대를 갖춘 沿邊烽燧임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사례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장대형으로 표기되었을까. 이는 이들 봉수가 極邊初面に 위치하였던 초기봉수로서 주간에 신호를 보내야 했으므로 연대나 연기 대신 장대 모양으로 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城郭形은 성곽만을 표기하거나 성곽내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성곽+불꽃형, 성곽 상부에 원을 표기한 성곽+원형으로 구분된다.

여섯째, 要塞形은 봉수가 위치하는 산정에 木柵을 이어 엮어 마치 요새 처럼 견고한 모양으로 표현한 형태이다. 봉수의 여러 기능 중 성곽형과

47)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의 해발 681m인 금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제2기 간봉(9)노선이 초기하는 沿邊烽燧로서 남해 臺防山烽燧에 응하였다.

48)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의 해발 617m인 호구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선과 성격상 제2기 간봉노선의 沿邊烽燧이다. 대응봉수는 시기에 따라 축조 초기 동으로 錦山烽燧와 남으로 所訖山烽燧에 응하였다. 후기에는 동쪽 노선은 변동이 없는 대신 서로는 본 현에만 응했다. 원산봉수가 서로 응했던 본 현은 이동면에 위치하였으며 남포현이라 불리었다.

마찬가지로 방호기능을 강조한 유형이다. 道別로는 黃海道 연안도호부 소재의 看月山烽燧⁴⁹⁾ 등 해당 봉수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그만큼 이들 지역이 국방상 중요 지역이었기에 봉수의 여러 일반적인 표기형태와는 달리 요새형으로 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요새형과 마찬가지로 방호기능 및 국방상 중요지역의 봉수표기 형태도 菊花形이 있다. 이는 봉수가 위치하는 산정에 국화 모양으로 표현된 형태이다. 국화형 봉수표기의 사례는 함경도 중성부 소속의 新岐伊烽燧⁵⁰⁾ · 防垣南烽燧⁵¹⁾ · 烏碣巖烽燧⁵²⁾ · 三峯烽燧⁵³⁾ · 南烽烽燧⁵⁴⁾ 등이다.

이상을 통해 여지도서의 봉수표기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다양함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봉수군의 생활, 봉수의 거화 및 신호, 거화모습, 봉수형태의 표기외에 국방상 중요 지역의 봉수인 경우 사례가 소수지만 城郭 · 要塞 · 菊花形 등으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표기형태는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의 실제 모습과 운용상황 및 지역적 특수성을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49) 義州 古靜州에서 초기하는 제4거 직봉노선의 봉수이자 제4거 간봉(3)노선이 초기하는 봉수이다. 대웅봉수는 定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白石山에 응하였으며, 교동 修井山에 응하기도 하였다.

50)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초기하는 제1거 직봉노선의 봉수로서 防垣堡에 속하였다. 대웅봉수는 북으로 防垣, 남으로 細川堡浦項에 응하였다.

51) 제4거 노선의 봉수로서 대웅봉수는 북으로 烏碣巖, 남으로 新岐伊에 응하였다.

52)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초기하는 제1거 직봉노선의 봉수이다. 대웅봉수는 북으로 三峯, 남으로 防垣烽燧에 응하였다.

53)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초기하는 제1거 직봉노선의 봉수이다. 대웅봉수는 북으로 南烽, 남으로 烏碣巖烽燧에 응하였다.

54)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초기하는 제1거 직봉노선의 봉수이다. 대웅봉수는 북으로 北峯, 남으로 三峯에 응하였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봉수표기와 이전 시기 발간의 고지도 및 지지서를 중심으로 봉수표기 형태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각각의 형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검토하였다. 용도별로 다양하게 표기된 형태는 각각 봉수군의 생활, 봉수의 거화, 방호시설, 거화모습, 위치, 형태, 명칭 등을 함축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중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11가지 23 형태의 표기형태는 이전시기 발간된 海東地圖와 輿地圖書에 비하면 봉수의 표기형태와 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과거 봉수의 실제적인 구조·형태와 당시까지 잔존하고 있었던 봉수의 형태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文獻記錄에만 의존하였던 연구방법론에 古地圖와 실제 잔존하고 있는 봉수의 관련유지를 비교 서술함으로써 차이점과 유사점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家屋形은 조선후기 지방지도에 가장 많은 구성 요소가 다양하게 결합되어 표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옥만 표현된 경우는 瓦家와 草家로 구분되며, 위치에 따라 산정·산중·산하로 구분된다. 또한, 가옥 옆에 깃발·불꽃을 같이 표기하거나, 촛불 모양으로 형상화한 봉수 인근이나 아래에 가옥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이 형태는 과거 봉수군의 생활공간이자 실제 존속하고 있었던 가옥의 기능을 중시하여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煙窟·煙籠·煙臺·불꽃·촛불형태의 봉수표기는 봉수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거화시설과 거화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煙臺形의 봉수에서 연대 상부에 煙筒을 마련한 것은 成宗6년(1475) 晝煙시 바람에 의해 대응봉수에서 후방이 곤란함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되었던 연통시설이 조선후기 지방지도에 표기된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당시까지도 본문에서 사례로 들은 각 봉수에는 연대 상부에 연통이 잔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 '凸'字形은 봉수가 위치하는 산정에 적색으로 표기한 형태이다. 표현상 연대와 상부의 거화를 위한 연통시설을 형상화한 형태이다. 셋째, 봉수가 성곽 내에 위치하는 경우 城郭形의 표기는 방호기능으로서의 성곽이 강조되었던 표기형태이다. 끝으로 圓形·方形·烽燧名墨書 등은 봉수가 위치하였던 산정에 부호표시를 통해 위치나 명칭만 표기한 형태이다. 따라서 과거 봉수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조선후기 지방지도와의 비교·검토를 위해 이전 시기 발간의 海東地圖 및 輿地圖書에 표기된 봉수표기 형태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동지도에는 봉수의 표기가 家屋·煙臺·깃발旗·城郭·춧불·烽燧名稱 墨書의 6가지 10형태로 단순하다. 이런 원인은 지도를 제작한 화공마다 봉수의 표현시 가장 일반적이고 특징적인 속성을 단순화시켜 표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로 작성한 表를 통해 연대+깃발·성곽+깃발·성곽+연대 등의 세 형태는 해동지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표기사례임을 소개하였다. 이중 깃발旗형은 신호전달시 주로 視覺에 의지하여 晝間에만 사용되었으므로 조선후기 봉수는 대응봉수간 신호전달을 위해 햇불과 연기 외에 깃발이 널리 활용되었음을 검토하였다.

둘째, 여지도서에는 봉수의 표기가 총 14가지 21형태로 세분된다. 따라서 별도로 작성한 표를 통해 가옥+연조·연대+불꽃·장대형·성곽+불꽃·성곽+원형·요새형·국화형·□형 등의 여덟 형태는 여지도서에 서만 확인되는 표기사례임을 소개하였다. 이중 家屋形 표기의 사례를 통해 당시 잔존하고 있었던 가옥의 종류와 위치를 추정하였다. 이어 長臺形 표기의 사례는 道別로 慶尙道 남해현 소재의 錦山·猿山 등 소수의 봉수에서 확인된다. 이는 이들 봉수가 極邊初面に 위치하였던 초기봉수로서 주간에 신호를 보내야 했으므로 연대나 연기 대신 장대 모양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要塞形과 菊花形은 봉수의 여러 기능 중 성

곽형과 마찬가지로 방호기능을 강조한 유형이다. 道別로는 황해도 연안 도호부와 함경도 종성부 소재의 소수 봉수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그만큼 이들 지역이 국방상 중요 지역이었기에 봉수의 여러 일반적인 표기형태와는 달리 요새형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여지도서의 봉수표기는 그 의미하는 바가 앞서 발간된 해동지도와는 달리 다양함을 추정하였다. 즉, 봉수군의 생활, 봉수의 거화 및 신호, 거화모습, 봉수형태의 표기 외에 국방상 중요 지역의 봉수인 경우 사례가 소수지만 城郭·要塞·菊花形 등으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상으로 조선후기 제작된 고지도와 지지서의 봉수표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형태가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지도를 제작한 화공마다 봉수의 표현시 가장 일반적이고 특징적인 속성을 단순화시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인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부 봉수는 아예 특정 형태로 표기되었다. 이외에도 국방상 중요 지역의 경우 봉수의 여러 일반적인 표기형태와는 달리 要塞·菊花 모양 등의 특수한 형태로 표기되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소개한 자료는 조선후기 잔존하고 있던 봉수의 구조·형태와 운용 등을 추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향후의 봉수연구는 문헌기록의 고증을 통한 현장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지도를 접목한 봉수연구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봉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봉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海東地圖

輿地圖書

朝鮮後記 地方地圖

世宗實錄

獻山誌

湖南邑誌

南木烽燧別將書目

楊普景, 「郡縣地圖의 발달과 <海東地圖>」 『海東地圖』 解說·索引,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ABSTRACT】

Indications of Signal Fire Stands on Local Map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ju hong

The Joseon Dynasty acknowledged the necessity for expansion of military facilities and intensification of its national security system since the 19th century when it underwent invasions by western countries. Thus, it started making local maps by county(Gun and Hyun), which put emphasis on the military aspect.

On the local maps of the late Joseon Dynasty, signal fire stands were indicated in various forms, unlike ancient maps of previous times.

The main forms of indication were the houses that were living facilities for signal fire soldiers; the fire facility for signal fires such as a chimney(煙窟), ignition spots(煙竈), signal fire pedestals(煙臺), and smoke pipes(煙筒) a flame or candle that indicated the signal fire soldier who had raised the signal fire; the flag that was used by the signal fire soldier as a tool for communication; and the fortress where the signal fire was inside the fortress. The indications were expressed in various ways, being related to daily life, activity in raising a signal fire, and communication tools that had been indicated in a single form in previous times. Such diverse forms of indication could provide clues to the approach to substantial facts on signal fire stands, unlike in the past.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cases when only the code or the name of a signal fire stand was written, being different from the real form of the signal fire stand.

Like such, some of the indications of signal fire stands expressed on local maps were similar to the real form but some were not. This was because of the simplification process for the most general or characteristic features. In the process of this simplification, some signal fire stands were indicated in a specific form. These data on local map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re very useful in predicting the structure and form of signal fire stands that had remained up to that time. Thu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ome progress in research in the future on signal fire stands, when they are combined with various ancient maps in addition to the local maps of the lat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findings of exploratory trips through historical evidence in the records.

Key words : Signal Fire Stands, Signal Fire Soldier, Local Map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imney, Ignition Spots, Signal Fire Pedestals, Smoke Pipes

明善 · 明惠公主에 대한 고찰

윤중준(尹鍾俊)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차례 ◆

I. 머리말

II. 본론

1. 명선 · 명혜공주의 출생과 성장
2. 명혜 · 명선공주의 잇따른 죽음
3. 명선 · 명혜공주 제사비용 등에 대한 논쟁
4. 제사에 대한 의절(儀節)
5. 봉국사와 명선, 명혜공주
6. 명선 · 명혜공주의 태실과 묘역

III. 맺음말

I. 머리말

성남시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능원과 묘역이 있었고, 세거 문중의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의 묘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 그 중에 조선시대의 왕실과 관련된 묘역들 또한 다수 있었다. 현대 도시화 이전에 옛 광주권의 영역 안에는 현재 서울 강남구에 편입된 선릉, 정릉, 현릉, 인릉 등의 왕릉을 비롯하여 영창대군¹⁾의 수많은 왕자와 공주 등 왕실 관련 인사들

1) 영창대군: 선조의 아들

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 현재 성남시 일대에는 제안대군 묘, 평원대군 묘, 영창대군 묘, 숙명공주²⁾와 청평위 묘, 명선공주와 명혜공주 자매의 유택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와서 전국의 태실과 왕자·공주 묘 대부분이 현, 서삼릉³⁾ 경내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 성남에 있던 숙명공주나 명선공주, 명혜공주의 묘 또한 서삼릉으로 이장하였다. 그리고 1970년을 전후로 하여 서울시의 철거민 정책에 따라 급격한 속도로 인구가 팽창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태평동 시청 자리를 비롯한 인근의 묘역들이 강제로 이장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그리하여 영창대군의 묘는 안성으로 이장해 갔고, 그 외 제안대군⁴⁾이나 평원대군⁵⁾의 묘 또한 다른 곳으로 이장해 갔으나 아직까지 그 소재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문화재 행정의 과거보다 많이 발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조선왕조의 왕릉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기에 이른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그늘에 묻혀 있는 역사의 자료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본고를 쓰게 되었다.

조선 제18대 현종 임금의 두 딸,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는 여성이라는 입

2) 숙명공주: 효종의 둘째 딸

3) 서삼릉: 사적 제200호. 한때 이곳에 있었던 중종(中宗)의 정릉(靖陵)을 중심으로 회릉(禧陵)·효릉(孝陵)이 있는데, 근처에 왕실 묘지가 이루어져 명종(明宗)·숙종(肅宗) 이후 한말까지 역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의 묘가 만들어졌고, 고종(高宗) 원년에 예릉(睿陵)이 들어서면서, 효릉·회릉·예릉의 3릉을 일컫어서 서삼릉이라 하였다. (1) 효릉: 중종의 아들 인종(仁宗)과 그 비(妃)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朴氏)의 능. (2) 회릉: 중종의 계비(繼妃)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 왕후가 승하하자 처음에는 능터를 광주(廣州) 헌릉(獻陵) 구역 내에 택정하였으나, 이를 둘러싼 권력다툼의 결과로써 새로이 길지(吉地)를 찾아 현재의 위치에 모시게 하였다. (3) 예릉: 철종(哲宗)과 철인왕후 안동김씨(哲仁王后安東金氏)의 능.

4) 제안대군: 예종의 둘째 아들

5) 평원대군: 세종의 일곱째 아들

장인 데다가 비록 14살과 9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기에 역사적인 큰 사건의 중심인물로 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나, 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짧은 생애를 마감한 이후로 이에 대한 예우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회적 논쟁이나 사망의 원인이었던 전염병으로 인한 당시 사회의 곤란함 등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한 사료가 된다. 그리고 두 공주의 태실과 묘의 이장 과정과 보존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문화재 보호 활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기에 충분하다.

현재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원찰이었던 봉국사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지만 그 주인공인 명선공주, 명혜공주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더구나 서삼릉의 왕자·공주 묘역은 일반인 공개가 월1회로 강력하게 제한되어 있기에 쉽사리 답사를 갈 수조차 없는 현실이다.

과연 두 공주가 태어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기에 그렇게 단명해야 했으며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태실과 묘역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문화재 보존의 방향에 대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명선·명혜공주의 출생과 성장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는 조선 제18대 현종(顯宗, 1641~1674) 임금의 첫째와 둘째 딸이다.

현종(재위 1659~1674)의 자(字)는 경직(景直), 휘(諱)는 연(棼), 효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우의정 장유(張維)의 딸 인선왕후(仁宣王后)이고 비는 돈령부영사 김우명(金佑明)의 딸 명성왕후(明聖王后)이다.

병자호란 후 아버지 봉림대군(鳳林大君: 孝宗)이 불모로 가 있던 중국 청나라 심양(瀋陽)에서 출생하였다. 1644년(인조22) 귀국하여 1649년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되고, 그해 효종이 즉위하자 왕세자가 되었다. 1659년(효종10) 즉위 뒤 효종의 상례(喪禮)로 인조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가 일어나자, 남인이 주장하는 3년설을 물리치고 서인의 기년설(旮年說: 1년설)을 채택함으로써 서인이 집권하게 하였다.

그러나 남인인 허적(許積)을 영의정에 유임시킴으로써 남인 재기의 바탕이 마련되던 중, 1674년(현종15) 어머니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자의대비의 복상문제가 일어나, 이번에는 남인의 기년제를 채택하여 대공설(大功說: 9개월설)을 주장한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에 서인이 온갖 방법으로 재기를 꾀함으로써, 그의 재위 중에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계속되어 국력이 쇠퇴해졌으며, 게다가 질병과 기근이 계속되었다. 함경도 산악지대에 장진별장(長津別將)을 두어 개척을 시도, 1660년(현종1) 두만강 일대에 출몰하는 여진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북변의 여러 관청을 승격시켰으며, 1662년 호남의 산군(山郡)에도 대동법(大同法)을 실시, 다음해 경기도에 양전(量田)을 실시하였다. 1668년 김좌명(金佐明)에게 명하여 동철활자(銅鐵活字) 10만여 자를 주조시켰고, 다음해 송시열(宋時烈)의 건의로 동성통혼(同姓通婚)을 금하고, 병비(兵備)에 유의하여 어영병제(御營兵制)에 의한 훈련별대(訓練別隊)를 창설하였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의 동구릉(東九陵) 안에 있는 승릉이다.⁶⁾

6) 두산백과사전

〈연려실기술〉 제31권, 현종조 고사본말(顯宗朝故事本末)

현종은 명성왕후 김씨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숙종임금이요, 이어서 명선, 명혜, 명안 세 공주를 두었다. 명선·명혜공주는 일찍 죽고, 명안공주는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에게 출가하였다.

숙종임금은 언젠가 효종의 꿈에 명성왕후 침실에 이불을 씌워 놓은 물건이 있어서 떠들고 보았더니 용이어서 꿈을 깬 효종이 기뻐하면서, 장차 원손(元孫)을 얻을 길몽이라고 하고 미리 이름까지 지어두고 기다렸었는데, 과연 현종 신축년 8월 15일에 경덕궁 회상전에서 탄강했던 것이다. 나이 5세에 명성왕후가 산후병으로 음식을 못 먹고 있을 때 숙종은 꼭 끓여 앉아 미음을 떠 넣었고 얼굴에는 걱정하는 빛이 완연하였으므로 후가 말하기를, “내가 이리 권하니 내 어찌 안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억지로 드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르던 새 새끼가 죽자, 그냥 버리지 말고 묻어 주라고 했으며, 내의원에서 소젖을 짤 때 송아지가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 우유를 먹지 않았을 정도로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물건을 대했을 때의 인자함이 어려서부터 이미 그러했었다.⁷⁾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의 본관은 청풍(淸風)이며 성은 김씨(金氏)이다. 아버지 영돈녕부사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과 어머니 송씨(宋氏) 사이에서 1642년 5월 서울 중부 장통방(長通坊)에서 출생하였다.

1651년 11월 10세에 어의동 본궁(於義洞本宮 :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사저)에서 가례(嘉禮)를 올리고,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며 1659년 5월에는 왕비로 책봉되었다. 왕비가 된 2년 후 1661년 8월에는 현종과의 사이에 원자인 숙종을 낳았다.

이후 명선(明善)·명혜(明惠)·명안(明安)의 3공주를 낳았다. 현종은 즉위 초, 효종이 승하한 후 인조의 비 장렬왕후가 상복을 얼마간 입어야

7) (국조보감) 제41권, 숙종조1, 즉위년(갑인, 1674)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 명성왕후와 그의 아버지 김우명은 서인의 편에서 있었으며 남인들을 축출하기 위해 많은 계락을 꾸몄다.

이에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의 세 아들 삼복을 ‘홍수(紅袖 : 궁녀)의 변’ 사건(1675년)에 연루된 것으로 무고하였다가 궁지에 몰리게 되자 정청(政廳)에서 통곡하여 삼복을 귀양 보내기도 하였다. 당파적 입장이 강했던 명성왕후는 궁내의 남인세력의 여자들을 추방하는 것에도 관여하였으며 당시 남인가의 여인이었던 숙종의 여인 장옥정(훗날 장희빈)을 궐 밖으로 내치기도 하였다. 1683년 12월 5일 창경궁 서승전(儲承殿)에서 42세로 사망하였으며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의 동구릉 묘역 송릉(崇陵)에 현종과 함께 묻혀 있다.⁸⁾

현종 임금의 딸들을 끔찍히 여겼다. 사신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올 때면 청국(淸國)에서 으레 은자(銀子)와 비단을 조정에 보내면서 상사(賞賜)라고 하였다. 이때 동지사(冬至使)가 받아온 은자가 1천 냥이었는데, 현종임금이 명선공주에게 하사하니 송준길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저들 나라에서 으레 보내는 것을 호조에 내려 저들을 접대할 때의 비용으로 쓰도록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듣건대 다른 곳에 썼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에 내리지 아니한 것은 불과 두 번이다” 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공적으로 얻은 것을 위에서부터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니, 전처럼 호조에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⁹⁾

8)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연려실기술〉 제31권, 현종조 고사본말(顯宗朝故事本末)참조

9) 현종10년 기유(1669, 강희 8) 3월 11일(갑진)

현종개수실록 10년 기유(1669, 강희 8) 3월 11일(갑진)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를 양육한 것은 상궁 임씨이다. 상궁 임씨 묘지명은 숙종39년(1713)에 세워졌는데, 크기는 높이 142cm, 너비 53cm, 두께 20cm로서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여우골에서 출토되어 현재 상명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상궁(尙宮) 임씨(林氏)를 장사지낸 지 4년만인 1713년에 건립한 묘비이다. 이 묘비에는 상궁 임씨의 약력이 간략히 적혀 있다.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임효원(林孝元)이고, 조부는 통정대부를 역임한 임희(林檜)로 드러났다. 어머니는 해주 오씨인 오금(吳錦金)의 딸이다. 임씨는 승



상궁 임씨 묘비 탁본

정 을해(1635년) 5월 26일에 태어나 13살 때인 인조26년(1648)에 액정서(掖庭署)에 배속됐다.

이후 현종이 되는 원손(元孫)의 동궁에 소속됐다. 그는 현종을 30년 동안 돌보았으며, 숙종이 특별히 아꼈다. 묘비에 의하면 임 상궁은 인조 계비인 장렬태후와 숙종 어머니인 명성태후를 모셨다. 특히 숙종과 명선공주(明善公主), 명혜공주(明惠公主), 명안공주(明安公主)의 4남매를 보살폈다. 말년에는 명안공주 집으로 배속시켜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기축년(1709년) 정월 11일에 임 상궁이 75세로 병사하자 관재와 포백을 하사해 장사지내게 하였다. 상궁의 묘비는 드문 것으로서 이를 통해 당시

궁중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즉 국왕과 망매의 정이나 이를 돌보았던 상궁에 대한 처우 등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¹⁰⁾

2. 명혜·명선공주의 잇따른 죽음

현종 14년 계축(1673, 강희 12) 4월 27일에 동생인 명혜공주가 먼저 죽었고, 곧 이어 8월 2일에 언니인 명선공주가 세상을 뜨니 불과 10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공주는 세상을 달리하게 되었다. 두 공주가 죽은 것은 그 당시 유행한 전염병인 천연두가 원인이었다.

약방제조(藥房提調) 등과 여러 승지가 청대하고 들어와 아뢰기를, “들으니, 명선공주의 병 증세가 분명히 두역(痘疫)¹¹⁾이라고 합니다. 상께서도 빨리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공주도 마땅히 껌 밖으로 내어다 두고 치료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안으로 마땅히 경덕궁(慶德宮)으로 옮기겠다. 왕세자(王世子)와 세자빈(世子嬪)을 먼저 가게 하라” 하고, 저녁에 상이 경덕궁으로 옮겼다.¹²⁾

당시 천연두(天然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다. 두창(痘瘡)·포창(疱瘡)이라고도 하며, 속칭으로는 마마(媽媽)·손님이라고도 한다. 주요 증세는 고열과 전신에 나타나는 특유한 발진(發疹)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예전에는 대유행을 되풀이하여 많은 사망자를 내기도 했으나 19세기 이후 영국 의사 E. 제너가 창시한 종두가 보급되고부터 격감하였다.

제너는 우두에 걸렸던 사람이 소의 젖을 짜면서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백신을 개발하였다. 한국에는 19세기 말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을 수행하여 일본에 간 지식영(池錫永)이 종두를 도입하였다.

10) 金右臨, 1998, 「朝鮮時代 神道碑·墓碑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11) 두역: 한방에서 천연두를 일컫는 말

12) 현종 14년 계축(1673, 강희 12) 7월 23일(경인)

현종개수실록 14년 계축(1673, 강희 12) 7월 24일(신묘)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4만여 명의 천연두 환자가 발생했으나, 1960년 3명의 천연두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천연두가 사라졌다. 1980년 WHO에서는 천연두 근절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후 한국도 천연두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았으며, 1993년 천연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001년 9월 11일 미국대폭발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과 그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숨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하여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 탄저균 다음의 생화학무기의 테러는 천연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백신개발을 재개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2001년 11월 6일 천연두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였다.¹³⁾

현종 임금 때에는 특히 천연두가 유행하였다. 현종임금이 능행차를 나서려 하므로 이경석(李景奭) 등의 신하들이 말리기를, “풍기(風氣)가 순조롭지 않고 기운이 절기에 어긋나 두역(痘疫)이 매우 성해 집집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 곳에 나아가 능소(陵所)에서 하룻밤 묵기까지 한다면, 위태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길(吉)·흉(凶)·회(悔)·인(吝)은 움직이는 데에서 생기는 것으로 길(吉)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니, 성현이 깊이 경계한 것은 바로 오늘날을 위해 말한 것입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중지하라는 명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¹⁴⁾

현종9년(1668) 5월 19일, 임금이 양심합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이때 숙정공주(淑靜公主)의 상(喪)을 막 당하였고 숙녕옹주(淑寧翁主)가 두역(痘

13) 네이버 백과사전

14) 현종개수실록 5년 갑진(1664, 강희 3) 3월 1일(계해)

疫)을 앓았으며, 숙안공주(淑安公主)의 병이 또 중하고 그 두 아들이 두역을 앓았는데, 임금이 두역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제궁모(諸宮母)에게 병의 상황을 아뢰도록 명하고 약방으로 하여금 글을 전하여 들이도록 명하였다.¹⁵⁾ 마침내 현종10년에는 함경도 지역에서는 정월 이후 두역(痘疫)으로 인한 사망자가 900여 명에 이르렀고,¹⁶⁾ 숙경공주¹⁷⁾가 죽었다. 공주가 대내(大內)에 나아가 알현을 하고 갑자기 두역(痘疫)에 걸렸는데,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¹⁸⁾ 그리고 현종14년(1673) 7월 23일에는 명선공주가 이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후로 숙종 때까지 두역은 계속 창궐하였다.

명혜공주(明惠公主)가 죽었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지금 명혜 공주가 뜻밖에 죽으니, 애통한 나머지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다만 부마(駙馬)에 대하여 생각하면 비록 위호(尉號)를 정했으나 아직 납채(納采)의 예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미 정혼하여 길례(吉禮)를 행한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 고사(故事)의 유무와 위호(尉號)를 그대로 두느냐의 여부를 즉시 예조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니,

예조가 회계(回啓)하기를, “이는 국조(國朝)에 없었던 변례이고 또 상고할 만한 문적이 없습니다.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장가드는데는 반드시 길일을 정하는데 여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공주가 말하기를 ‘사위가 자취복으로 조상을 하고 장사지내고는 벗는다’ 고 하였습니다. ‘길일을 정한다’ 고 한 것은 납채(納采)할 날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명혜공주는 납채한 일이 없었으니 길일을 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부마가 봉작(封爵)이 이미 정해진 뒤라서 여러 차례 금중(禁中)에 드나들었으니, 또한 고례(古禮)와

15) 현종개수실록 9년 무신(1668, 강희 7) 5월 19일(병진)

16) 현종개수실록 10년 기유(1669, 강희 8) 3월 10일(계묘)

17) 숙경공주(1648~1671): 효종의 다섯 번째 딸

18) 현종개수실록 12년 신해(1671, 강희 10) 1월 9일(신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더없이 중대한 변례를 신들이 감히 경솔하게 정할 수 없으니 유신(儒臣)을 시켜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하게 하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즉시 전례를 상고하여 품의하라” 하였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예기》의 증자문 한 조목은 근거할 수 없는 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경(禮經)을 두루 상고해 보아도 이번 경우와 근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감히 아뢰니”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예관(禮官)을 시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좌상 이경억(李慶億)이 의논드리기를, “제왕가의 혼례가 비록 사대부의 혼례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근(合簪)을 하고 방을 함께 쓴 다음에 비로소 부부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부부가 될 수 없는데, 이는 귀천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번 공주의 죽음이 육례(六禮)를 행하기 전에 났으니, 부마의 봉작은 그대로 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체가 중대하므로 병들고 정신이 혼미한 신의 견해로는 단정하지 못하겠으니 삼가 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위호를 정한 뒤라 은의(恩義)가 있었으므로 그 봉작을 환수하려 하니 참혹하고 애통함을 견디기 어렵다. 다만 생각건대 오륜(五倫) 속에 부부(夫婦)가 한 조목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 고 하였다. 지금 불행하게도 공주의 초상이 뜻밖에 났는데, 고기(告期) 등의 예를 미처 행하지 못했으니 예에 이른바 ‘아내가 되지 못했다’ 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부마에 대해서 그대로 위호를 두어 죽을 때까지 부부간의 즐거움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인정으로 볼 때 더욱 차마 못할 일이다.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부마는 바로 동안위(東安尉) 신요경(申堯卿)인데 신정(申晟)의 아들이

다.¹⁹⁾

동안위 신요경은 명혜공주와 약혼을 하여 공주가 죽기 직전인 현종14년(1673) 2월 9일에 아버지 신정(申叟)은 승지가 되고, 신요경(申堯卿)은 부마(駙馬)로 삼아 동안위(東安尉)라는 호(號)를 내린 바 있다.²⁰⁾ 그런데 공주가 혼인 예식도 치르기 전에 사망하게 되므로 신요경이 갖추어야 할 예법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때 임금은 죽은 공주를 불쌍히 여겨서 맹만택에게 내리는 작위를 정지하지 않고 부부가 되는 것을 성사시키고자 하니, 좌의정 이경억(李慶億)이 아뢰기를, “죽은 자를 성혼시키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하여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²¹⁾

명선공주(明善公主)가 세상을 뜨니 현종임금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연달아 참통한 상(喪)을 만나니 심사가 막히고 혼미하다. 다만 생각하건대 이 초상은 명혜공주의 초상과 같지 않다. 맹만택(孟萬澤)의 위호(尉號)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우의정 김수흥(金壽興)이 의논드리기를,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²²⁾에 있기를 ‘길일(吉日)을 정해 두고 여자가 죽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사위(嬖)는 자취복(齊衰服)²³⁾으로 조상을 하고, 장사지낸 후 복을 벗는다’ 하였으며, 해석한 자는 말하기를 ‘일찍이 청기(請期)²⁴⁾를 했기 때문에 자취복으로 조상한다. 그러나 아직 아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는

19) 현종14년 계축(1673, 강희 12) 4월 27일(병인) 명혜공주의 출기

20) 현종개수실록 14년 계축(1673, 강희 12) 2월 9일(기유)

21) 박세당, 《서계집》 제12권, 비명(碑銘) 5수(五首), 좌의정 이공(李公) 묘비명(墓碑銘) 임오년(1702, 숙종28)

22) 증자문(曾子問): 《예기》의 편명

23) 자취복(齊衰服): 엷은 삼베로 짓고 단을 꿰맨 상복.

24) 청기(請期): 친영(親迎) 전에 하는 육례(六禮)의 한 절차. 신랑 집에서 택일하여 신부집으로 보내 가부를 묻는 것.

벗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명선공주는 삼간택(三揀擇)²⁵⁾을 한 뒤에 부마(駙馬)를 봉작(封爵)했을 뿐만 아니라 납채(納采)·납폐(納幣)·명복(命服)을 들여오고 내가며 친영(親迎)하는 등의 길일을 아울러 모두 미루어 택하고 가례청(嘉禮廳)도 배설했으니 이는 바로 예문(禮文)에 이른바 '혼인의 날짜를 알린(告期)사위는 자최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최복을 입었다고 한다면 전날의 명혜공주(明惠公主)의 상(喪)과는 차이가 있는 듯하나, '아직 아내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호(尉號)에 관한 한 가지 일은 실로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으니 신의 천박한 지식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결단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길일을 정하고 또 가례청을 설치하였으니, 단지 혼인 날짜만 알린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작호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²⁶⁾

맹만택(孟萬澤, 1660~1710)의 본관은 신창(新昌). 자는 시중(施中). 좌의정 사성(思誠)의 후손이며, 할아버지는 세형(世衡)이고, 아버지는 승지주서(胄瑞)이며, 어머니는 홍처심(洪處深)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현종의 딸인 명선공주와 약혼을 했다가 1672년(현종13)에 공주가 사망하자 신안위(新安尉)에 봉해졌고, 이듬해에 사헌부의 건의로 이미 받았던 봉작이 환수되었다.

1684년(숙종10)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음보(蔭補)로 의금부도사·사복시주부를 지내고 1698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연관직을 거쳐 1702년에 사서·문학을 역임하고, 이듬해에 강원도감진어사(江原道監賑御史)가 되었다. 1704년에 사간·동부승지·황해도관찰사를 지

25) 삼간택(三揀擇): 왕·왕자·왕녀의 배우자를 세 번 고른 다음 정하는 것.

26) 현종14년 계축(1673, 강희 12) 8월 2일(기해) 명선공주의 즐기

현종개수실록 14년 계축(1673, 강희 12) 8월2일(기해) 명선공주의 즐기

내고 2년 뒤에 대사간이 되었다. 1708년에 충청도관찰사가 되고 이듬해에 다시 대사간이 되었다. 선정(善政)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지리에 능통했고,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안진경(顔眞卿)과 유공권(柳公權)의 체를 잘 썼다.²⁷⁾

현종 계축년 8월에 명선공주의 부마를 세 차례 간택한 후, 공주가 천연두를 앓아 갑자기 죽었다. 임금이 명하여 부마 맹만택의 작호(爵號)를 그대로 두게 하고, 또 궁중으로 들어와서 상사를 보게 하였다.

대신 김수흥(金壽興)이 의견을 아뢰기를, “혼례의 제반의 길일(吉日)을 이미 택하여 재가를 받았으며, 가례청(嘉禮廳)도 설치하였으니, 이는 바로 예경에 이른바, ‘기약을 정하여 놓고 신부가 되지 못한 것으로서 사위가 그 약혼자를 위하여 자취(齊衰)의 복을 입고서 조상하고, 장사 지낸 후에는 복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작호를 그대로 두는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실로 억측으로 판단할 수 없사오나 제왕가의 예절은 사대부와 같지 않으니, 작호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 비록 차마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역시 이미 이런 점을 생각하였는지요” 하니, 드디어 도로 작호를 거두게 하였다.²⁸⁾

이때, 옥당에서도 차자를 올리기를, “듣자오니, 어저께 대신의 헌의로 인하여 신안위(新安尉) 맹만택의 작호를 그대로 두라는 명이 있었다 하옵는데 가만히 생각하오니, 이것은 전하께서 끝내 차마 할 수 없는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이는 국조에서 전에 없었던 법이며, 옛날 역사에도 드물게 있는 일로서 억지의 의논을 받아들여 창졸간에 정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에 있어서 의거할 만

27) 네이트 한국학, 맹만택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陶谷集

28) 연려실기술 별집 제1권, 국조전고(國朝典故), 공주(公主)·부마(駙馬) (퇴우당집(退憂堂集))

한 것은 다만 《예기(禮記)》의 증자문편(曾子問篇)이운데 그 중에 ‘혼인을 정하여 길일을 택한 후에 여자가 죽으면, 신랑 될 사람이 자취복으로써 조상하고 장사 지낸 후에는 복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조상한다는 한 절목을 좇아, 드디어 부마의 칭호를 그대로 두려고 하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리로 인하여 새 예를 만들 경우도 아니며, 또 특별한 사정으로 권도를 행할 경우도 아닙니다. 옛일을 인용하자니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고, 현실을 좇자니 장애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들은 초상에 있어서 비록 친구간이라도 단문(袒免)하고 조상하기도 하며, 시마(總麻)·자취 등의 상복으로 조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장차 장가들려던 여자에게 자취복을 입는 것은 그 죽음을 조문하기 위하여 그러한 복을 입는 것이요,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며, 장사 지낸 후에 벗는 것은 죽음을 조상하는 뜻을 후하게 하는 것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오늘의 일로 말씀하면 자취복으로 가서 조상한 것은 옳지만, 작호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단연 불가합니다. 작호는 곧 의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작호를 두면 부부간이며 작호를 거두면 타인이 되는 것이니, 어찌 구차하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동안(東安)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은 가례청을 설치하고 혼인의 기일을 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이라는 것은 그 의식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의 의식을 거행하였더라도 친영(親迎)까지 못하면 부부가 되지 못하는 것이 고금을 통한 예법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기일을 고한 것은 이미 친영보다 가벼운 것이며 가례청을 배설한 것은 특히 출가를 준비하는 절목에 불과한 것이니, 아마도 이것을 빙자하여 작호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기는 어려울까 하옵니다. 또 신안위에게 이미 명하여 상사를 보게 하였고, 함렴(含斂)·곡전(哭奠)까지도 장차 주인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 부모 또한 복제(服制)가 있어야 할 것이며, 부모가 복제를 한다면 이것은 부부간이 된 것이니, 어찌 가서 조상하는 정도일 뿐이겠습니까. 살아서

서로 보지도 못하였는데, 죽은 뒤에 복을 입는다면 다시 이를 미루어 후손을 세우고 무덤도 함께 써야 할 것이니, 어찌 절절이 방해(妨礙)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한다면, 신안위가 이미 오랫동안 작을 받았고, 궁중에 출입하여 전하의 은총과 대우가 이미 부마와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불행하여 그로 인하여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진실로 전하께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만일 신안위가 한평생을 영원히 홀아비로 늙을 것을 민망히 여기시고 공주가 생전에 짝을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시면 신안위가 들어와 뵙는 것이 다만 전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할 것이니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였다.²⁹⁾

명선공주가 삼간택(三揀擇)을 마치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상이 부마 맹만택(孟萬澤)의 작호를 그대로 두라고 하였으며 들어와서 상사(喪事)를 보라고 하였다. 이에 김수흥(金壽興)이 의논드리기를, “이미 날을 받고 가례청(嘉禮廳) 또한 배설(排設)하였으니, 이는 곧 예(禮)에서 이른바 ‘날을 받아서 이를 통고한 뒤 아직 혼인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사위는 자취복으로 조상(弔喪)하고 장례가 끝나면 복을 벗는다’ 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제왕가(帝王家)의 예절은 사대부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작호를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이 비록 차마 못 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다음에 생길 난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니, 이를 따랐다.³⁰⁾

3. 명선 · 명혜공주 제사 비용 등에 대한 논쟁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임금이 즉위한 직후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에 대한

29) 연려실기술 별집 제1권, 국조전고(國朝典故), 공주(公主) · 부마(駙馬) 《업헌집(楮軒集)》

30)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4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추모 사업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두 공주의 사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를 관에서 돕도록 명하였다. 명혜공주(明惠公主)·명선공주(明善公主) 두 공주의 사당을 세울 때에 내사(內司)와 해조(該曹)는 제구를 관(官)에서 장만하여 주라고 명하였다.³¹⁾

그리고 이 사당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답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백성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었다. 숙종이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사(知事) 오정위(吳挺緯)가 아뢰기를,

“황해도내의 내수사(內需司)에서 쌓는 독은 비록 내수사의 종(奴)이 일을 한다 하지만 독 하나에 역군이 거의 3천이나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어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듣건대, 이는 명선공주·명혜공주 두 공주를 위해 전장(田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두 공주가 모두 출합(出閣)하기 전에 세상을 버렸으니 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³²⁾ 하니, 임금이 뒤에 마땅히 금지하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런데 이미 현종임금이 두 공주가 죽은 것을 매우 슬퍼하여 이미 많은 제물과 전민(田民)을 지급한 상태였다. 부교리(副校理) 박태손(朴泰遜)이 상소(上疏)하기를,

“청컨대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公主)의 제물(祭物)과 전민(田民)의 수(數)를 요량하여 정하고, 지부(地部)³³⁾로 하여금 그 세공(稅貢)을 징수(徵收)하여 양궁(兩宮)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여 내사(內司)³⁴⁾의 도장(導掌)³⁵⁾이 침학(侵虐)하고 투절(偷竊)하는 단서(端緒)를 단절시키소서.

31) 숙종1년 을묘(1675, 강희 14) 2월 3일(신묘)

32) 숙종3년 정사(1677, 강희 16) 4월 1일(정미)

33) 지부(地部): 호조(戶曹).

34) 내사(內司): 내수사(內需司).

35) 도장(導掌): 궁방(宮房)의 토지를 관리(管理)하고, 도조(賭租)나 결미(結米) 따위를 징수하는 사람. 나중에는 관둔전(官屯田)이나 개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도장'이라 부름.

그리고 전민(田民)으로서 남아 도는 자 및 각처(各處)의 절수(折受)한 시장(柴場)과 어살(漁筍)을 아울러 혁파하여 지부(地部)에 돌려서 국용(國用)에 보탬이 되게 하소서” 하였다. 두 공주가 출가하여 요사(夭死)하니, 현종께서 몹시 슬퍼하여 전민(田民)을 넉넉하게 주었는데, 이미 환시(宦侍)와 궁예(宮隸)의 무리들이 침징(侵徵)하여 백성을 병들게 한 근거가 된 지 오래였다. 그러므로 상소의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임금이 비국(備局)에 명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³⁶⁾

또 황해도 관찰사 김우석의 장계에서, “재령(載寧)의 명혜(明惠)·명선(明善)·명안(明安) 세 공주(公主) 집안의 둔전은 모두 금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뒤에 설치되었으니, 다른 사례에 의거하여 혁파하도록 청하고, 용진현(甕津縣)의 어전(魚筍)·염분(鹽盆) 중에 훈련도감(訓練都監)과 수어청(守禦廳) 그리고 이소의(李昭義)와 이숙의(李淑儀) 및 양 공주(公主)의 집안에 빼앗겼던 것은 아울러 혁파하여 본읍(本邑)에 도로 소속시킬 것”을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특별히 세 공주(公主) 집안의 세 곳은 그대로 두었다.³⁷⁾

두 공주의 묘는 광주 세촌(현재의 성남 태평동)에 있었으나 묘소의 관리와 제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황해도 지역에까지 소속 전답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⁸⁾

36) 숙종7년 신유(1681, 강희 20) 1월 12일(병인)

37) 숙종7년 신유(1681, 강희 20) 8월 9일(기축)

38) 숙종4년 무오(1678, 강희 17) 10월 11일(무인), “인천(仁川)의 대지제(大池堤)는 곧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는데, 갑인년(1674, 숙종 즉위년)에 또 명선공주방(明善公主房)에서 절수(折受)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도신(道臣)과 비국(備局)이 서로 이어서 모두 혁파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으나, 뒤에 대신(大臣)의 연백(筵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윤택하였다. 숙종8년 임술(1682, 강희 21) 3월 24일(임신),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용강(龍岡)·함종(咸從) 두 고을의 경계에 있는 명선공주(明善公主)의 집에서 절수(折受)한 적통(赤筒) 땅은 오래 공연(公廩)으로 되어 두 고을의 백성이 이익을 얻던 것인데,”

숙종8년(1682) 5월 22일, “경상도(慶尙道) 진주(晉州)의 갈밭(蘆田)에 제방을 쌓은 곳은 명선공주(明善公主)의 집에서 절수(折受)하였는데,”

숙종7년에는 사간원(司諫院)에서 차자를 각각 올려 임금을 경계하기를, “명선공주·명혜공주 두 공주가 아직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장(田庄)과 장획(臧獲)을 사패(賜牌)하고 절수(折受)하기를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으시고 환관(宦豎)의 수완에 맡겨두시어 곤궁한 백성들의 원망을 거둬들이고 개인의 집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니, 이것은 진실로 혁파하여 그 세입을 옮겨서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자료로 삼는다면, 틀림없이 곤궁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데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³⁹⁾

죽은 두 공주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명선·명혜공주의 전장 혁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궁가(宮家)의 자산(資產)은 중인(中人) 1백 가(家)의 자산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곤궁하고 재화가 고갈되었으며 변괴와 재이가 겹친 때를 당하여, 비록 현재 살아 있는 공주(公主)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절약하여 덜고 재단하여 줄이며 사치하고 화려한 습관을 억제하도록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구나 명선공주(明善公主)·명혜공주(明惠公主) 두 공주는 불행하게도 일찍 죽어 미처 가정을 가지지 못했으니, 제수(祭需) 외에는 달리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보탬이 없는 비용을 만들어 한없는 폐단을 후세에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주장하여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도 내시(宦豎)들의 손에 맡겨두시니, 피폐한 백성들의 피와 땀을 흘려 얻은 이익이 모두 이 무리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청컨대, 두 궁가(宮家)의 토전(土田)과 장획(臧獲) 중에 제수(祭需)를 제공할 만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혁파하여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자본으로 옮겨 활용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두 공주가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으므로, 선왕(先王)께서 언제나 가련

39) 숙종7년 신유(1681, 강희 20) 11월 19일(무진)

하게 여겨 슬퍼하시면서 별도로 사우(祠宇)를 지어 전장(田庄)을 그대로 보존하게 한 것은 한때의 제사를 위하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뒷날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각각 제사를 받들도록 하여 영구토록 유전(流傳)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하신 또렷한 옥음(玉音)이 지금까지 귀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차마 선왕(先王)께서 남기신 뜻을 저버리고 마침내 혁파하라는 영(令)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뢴 내용 중에, '제수(祭需)를 제공할 만한 정도를 제외하고' 라는 등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더욱 그렇지 못하다. 두 궁가의 전장(田庄)으로 이미 혁파한 것이 많아 세입(歲入)이 점점 줄어들는데, 지금 또 약간(若干)의 제수로 제공할 것만 덜어내고 일체히 혁파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그 명목은 있으나 그 실상은 없다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수용(需用)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하였다.⁴⁰⁾가 논쟁을 실록에 기록하면서 사관은 여기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민감한 논쟁거리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당시 명선공주·명혜공주 두 공주(公主) 집안의 공장(供帳)과 복어(僕御)는 한결같이 생존시처럼 하였는데, 중관(中官)⁴¹⁾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사를 봉공(奉供)하는 외에는 그들이 사역(使役)하고서 몰래 가져가므로 사람들이 모두 혁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다. 사간(司諫) 심유(沈濡)·헌납(獻納) 오도일(吳道一)·정언(正言) 윤세기(尹世紀)가 이미 혁파하라는 청을 발의하였는데, 한 번 아뢴 뒤로는 성상의 하교(下教)가 진정으로 측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여 억지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즉시 의논을 정지하였으므로, 여러 사람의 평판이 그것을 그르게 여겼다.”⁴²⁾

40) 숙종7년 신유(1681, 강희 20) 12월 13일(임진)

41) 중관(中官): 내시.

42) 숙종7년 신유(1681, 강희 20) 12월 13일(임진)

사관의 비판에 의하면 제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내시들이 빼 돌리는 사례가 빈번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세상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어서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은 지속적으로 두 공주의 사당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었다. 심지어는 궁궐의 담장을 뜯어내 두 공주의 사당에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숙종9년에, 인경궁(仁慶宮) 담장 쪽 15간(間)을 떼어서 명선·명혜, 두 공주의 사당으로 지급하라고 명하였다.⁴³⁾

두 공주의 제향에 의한 폐해가 커지자 지평(持平) 이두악(李斗岳)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단을 없애고, 위를 덜어서 아래에 보태주는 정치를 강구하고, 명선·명혜 두 공주의 사우(祠宇)를 수진궁(壽進宮)에 옮겨 세워서 제사를 받들게 하되, 저축한 재물과 곡식은 모두 유사(有司)에게 돌려서 내년 봄 진구(賑救)하는 데 쓰게 하고, 각 아문(衙門)의 둔전(屯田)은 소재(所在)한 고을로 하여금 그 곡물(穀物)의 수량을 기록해서 진휼청(賑恤廳)에 일체 위임하여 주관하게 하되…….”⁴⁴⁾

말하자면 두 공주의 사당을 수진궁으로 통합하여 군살을 빼고 여기에서 남는 재물은 춘궁기에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에 쓰자고 하는 구조조정 건의라 하겠다.

명선, 명혜공주에 대한 제사와 더불어 다른 왕자들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내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숙종14년에 관원을 보내어 명선(明善)·명혜(明惠)·명안(明安)·숙정(淑靜) 네 공주의 묘와 영창대군 묘에 제사 지내게 하고 명선, 명혜공주의 묘에 가보고 싶어 했으나 신하들의 만류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네 공주(公主)의 묘(墓)와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묘에 제사를 지내게

43) 숙종9년 계해(1683, 강희 22) 4월 26일(무술)

44) 숙종10년 갑자(1684, 강희 23) 12월 25일(병진)

하였는데, 모두 광주(廣州) 지역(地域)에 있다. 임금이 명선·명혜 두 묘가 길 곁에서 가장 가까우므로 두루 보고 싶다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군주는 사묘(私墓)에 친히 가서 보는 일이 없으며, 길도 험하고 좁아서 행차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중지하였다⁴⁵⁾는 것이다.

애초에 명선, 명혜공주가 죽었을 때 현종임금이 이를 슬퍼하여 내려준 땅은 400결⁴⁶⁾이었다. 그런데 후일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임금이 슬퍼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 1천여 결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남구만이 이를 혁파할 것을 건의하므로 임금이 결정하기를 “이는 선조(先朝)의 슬퍼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고칠 수 없으나, 4백 결 외에는 혁파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400결을 제외한 나머지는 혁파하기에 이르렀다.⁴⁷⁾

숙종20년에는 헌릉 옆에 있는 명선·명혜공주의 능과 영창 등의 대군의 무덤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임금이 제사를 지내고 또 친히 제문을 지어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公主)에게 제사지내고, 관원을 보내어 영창(永昌)·평원(平原)·제안(齊安) 세 대군(大君)의 무덤에 제사지내게 했으니, 무덤이 모두 헌릉(獻陵)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⁸⁾

또, 임금이 명례궁(明禮宮)과 고(故)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公主)의 방(房)에 각각 돈 8백냥씩을 하사(下賜)하여 제수(祭需)에 돕도록 명하였는데 승지(承旨) 이건명(李健命)이 여러 해의 재해와 흉년으로 경비(經費)가 탕갈(蕩竭)되었으니, 지금 이 세 곳에 사여함은 재해를 만났을 때 절제하고 줄이는 도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임금이 각

45) 숙종14년 무진(1688, 강희 27) 2월 26일(기사)

46) 結 : 토지면적의 단위. 명확한 규모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1결은 대략 3천평 정도에 이르는 규모이다. 400결이면 1,200,000평 정도.

47) 숙종14년 무진(1688, 강희 27) 4월 23일(을축)

48) 숙종20년 갑술(1694, 강희 33) 2월 26일(갑오)

각 3백 냥씩 감손(減損)하라 명하였다.⁴⁹⁾

숙종30년, 임금이 지부(地部=호조)에 특별히 명하여 명선공주(明善公主)와 명혜공주(明惠公主)의 두 공주방(公主房)에 각각 목면(木綿) 1동(同), 포(布) 1동, 돈 3백 냥(兩)을 보내어 제수(祭需)에 보태게 하였고,⁵⁰⁾ 숙종33년, 두 공주방(公主房)에 각각 쌀 20곡(斛)과 목면(木綿) 1백 필을 하사하여 제수(祭需)에 보태게 하였다. 두 공주는 곧 임금의 누이인데, 미처 이강(釐降)⁵¹⁾하지 못하고 요절하였으므로, 임금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슬프게 생각하였는데 전에도 누차 은휰(恩恤)이 있었다.⁵²⁾

이후로 명선, 명혜공주를 제사지내는 사당은 경종임금과 영조임금 때까지 계속 별도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1년(1721) 사헌부 지평(持平) 이정소(李廷燾) 등이 명선·명혜 두 공주방 및 소의방을 수진궁에 이속할 것 등을 청하였다.

“수진궁(壽進宮)은 곧 무후(無後)한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후궁(後宮)의 제사를 받드는 곳인데,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두 공주방(公主房) 및 소의방(昭儀房)도 또한 무후한 궁방(宮房)입니다. 만약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두 공주방 및 소의방을 수진궁에 이속(移屬)한 뒤 전결(田結)과 노비(奴婢)로서 파(罷)할 만한 것은 파하고 둘 만한 것은 둔다면 일분(一分)의 폐단이라도 없앨 수 있으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소서”⁵³⁾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조5년(1729)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요절한 공주들의 제

49) 숙종28년 임오(1702, 강희 41) 9월 21일(기사), <국조보감> 제52권, 숙종조 12, 28년(임오, 1702)

50) 숙종30년 갑신(1704, 강희 43) 9월 22일(기사)

51) 이강(釐降): 황녀(皇女)가 신하에게 시집감.

52) 숙종33년 정해(1707, 강희 46)9월 22일(신미)

53) 경종1년 신축(1721, 강희 60)2월 21일(임자)

사를 한 데 모을 것을 건의했으나 영조임금은 명성대비(明聖大妃)의 하교라는 점을 들어서 당분간 감히 의논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⁵⁴⁾

특히 공주의 제사에는 임금이 친히 제문을 짓기도 하고 임금이 직접 사당에 나가기도 하였다. 영조임금은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날을 잡아 영창대군(永昌大君),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公主)의 묘(墓)와 해창위(海昌尉)·명안공주(明安公主) 묘에 치제(致祭)하게 하라고 이르고, 영창대군 묘의 제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주의 제문(祭文)은 모두 친히 지을 것이라 하였다.⁵⁵⁾

임금이 명선공주(明善公主)·명혜공주(明惠公主) 두 공주의 사당에 나아갔다가 지나는 길에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⁵⁶⁾의 집에 들렀다. 명선공주·명혜공주는 바로 현종(顯宗)의 따님으로 출가하기 전에 일찍 죽었다. 임금이 그 묘우(廟宇)가 황폐하고 쓸쓸하다고 여겨 직접 임어(臨御)하여 경계시켰다.⁵⁷⁾ 영조31년(1755)에도 임금은 두 공주의 사당에 가려고 하였는데, 교리 이최중(李最中)이 삼군(三軍)의 군사들이 불편을 겪게 됨을 들어 명선공주의 묘우(廟宇)에 가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⁵⁸⁾

공주 묘에 제사지내는 일들이 결국은 왕실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 듯하다. 신하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던 것처럼 재정이 고갈되므로 마침내 정조임금이 즉위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된다. 정조(正祖)임금은 즉위하면서 여러 궁방(宮房)이 함부로 받은 면세전결(免稅田結)을 사정

54) 영조5년 기유(1729, 옹정 7)1월 14일(기미)

55) 영조9년 계축(1733, 옹정 11)9월 11일(기축)

56) 박명원(朴明源, 1725~1790)은 반남박씨이며, 영조의 딸인 화평옹주의 남편으로 금성위에 봉해진 왕족으로 글씨를 잘 써서 여러 번 금옥보책 명정서관(金玉寶冊名正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연암(燕岩) 박지원(朴趾源)의 삼중형(삼촌형)이며 건륭제의 천수제(70세 생일) 때 사행단을 총지휘하여 열하를 다녀온 사람이다. 사후 정조가 친히 글을 지어 신도비를 세웠다. 1780년 5월~10월의 정나라 연행 때 연암(燕岩) 박지원(朴趾源)을 동행하게 하여 《열하일기(熱河日記)》를 남기게 되었다.

57) 영조31년 을해(1755, 건륭 20)2월 1일(을사)

58) 영조31년 을해(1755, 건륭 20)2월 1일(을사)

(査正)하였고 대가 끊어진 궁방은 세금을 내도록 조치하였다.

“무릇 국가에 이롭고 백성들에게도 이로운 일이라면 나의 살갓인들 어찌 아끼겠는가? 이것은 우리 선왕께서 일찍이 과인에게 거둬 친절하게 일러 주시던 것이다. 현재 국가의 용도가 고갈을 고하고 백성들의 산업도 다하였으니, 백성과 국가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한밤중에 침상을 서성이게 된다. 궁방의 전결에 이르러서는 혹 법 이외에 더 받은 것도 있고 혹 세대(世代)가 다 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혹 또한 이미 결수(結數)가 차게 되었는데도 아직 차지 못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 있기도 하여, 단지 국가의 용도에만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민(小民)들에게 손해를 끼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몸에 아픈 곳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말이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사핵해내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에서 사핵하여 아뢰니, “세대가 다 된 궁방의 것은 호조판서가 아뢴 대로 다시 세금을 내게 하라. 온빈(溫嬪)·안빈(安嬪)·명선공주·명혜공주·영빈(寧嬪)·귀인(貴人)·명빈(愼嬪)·소의(昭儀)·장귀인(張貴人) 궁방의 전결은 모두 호조에 다시 소속시키라. 자손이 있는 것 외의 사판(祠版)은 모두 수진궁(壽進宮)으로 들어오고, 혁파한 궁가(宮家)가 절수(折受)하였던 노비와 제택은 또한 호조와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사핵해 내어 계문(啓聞)하게 하라. 대빈(大嬪)의 궁방에 있어서는 이미 봉상시(奉常寺)의 제물로 때에 맞추어 향사(享祀)하게 하였고, 또한 차지중관(次知中官)이 있으므로 다시 궁방을 둘 필요가 없으니, 전결을 일체 환수하여 소속시키라. 이 나머지의 거행에 있어서는 또한 세금을 내는 다른 궁방의 사례에 따르도록 할 것을, 해조(該曹)와 해사(該司)가 알게 하라. 사궁(四宮) 및 제궁(諸宮)에게 별도로 판부(判付)하여 사여한 이외에 법 이외의 것을 더 받은 것과, 병술년(1766, 영조42) 이후에 아직 차지 못한 것과 판부가 없이 받아 낸 것에 있어서는 모두 초기(草記)를 사실(査

實)해서 다시 세를 내도록 하라" 하였다.⁵⁹⁾

이 때 회수한 전답은 3만결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에 전해 온다.⁶⁰⁾

다만 제사만큼은 계속 끊이지 않고 지냈으니 정조3년, 온조왕 묘(溫祚王廟)와 현절사(顯節祠)와 영창대군(永昌大君)·명혜공주·명선공주·숙정공주(淑靜公主)·숙경공주(淑敬公主)·명안공주·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의 묘(墓)와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震遠)의 사당과 험천(險川)·북문(北門)·쌍령(雙嶺)의 전망(戰亡)한 곳과 왕십리(王十里)에서 신해년(1731, 영조7)에 굶어 죽는 사람에게 치제(致祭)하였다⁶¹⁾가 때 다른 곳은 지방관이 제사를 지내게 하되, 영창대군과 명선공주, 명혜공주의 묘에 치제할 때에는 내시가 하도록 하되, 모두 역참(驛站)의 거마(車馬)를 사용하지 말아서 음식과 역참의 제공을 없애도록 하였다. 이는 대개 경기 백성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려는 뜻이니, 이와 같이 하교한 뒤에도 폐해를 끼치는 단서가 있으면 지방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하였다.⁶²⁾

위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험천과 북문, 상령의 전사자들에 대한 제사가 포함된 것은 그 당시 국가적으로 큰 기상이변과 전염병이 창궐하였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때로는 지나치게 제사를 거대하고 사치스럽게 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

숙종 때 지평(持平) 이세재(李世載)가 상소하기를,

“어제 수십의 인마(人馬)가 길에 잇닿은 것을 보고 물었더니,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의 궁인(宮人)이 대내(大內)의 분부를 받아서, 소를 잡

59) 정조실록 즉위년 병신(1776, 권릉 41) 4월 10일(신해) 및 <일성록> 정조 즉위년 4월 10일

60) <일성록> 정조11년 정미(1787) 10월 26일,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 초에 궁방의 절수전에 대해 세금을 내게 하거나 도로 호조에 소속시킨 것은 결수(結數)가 거의 3만 결이나 되었는데,”

61) 정조3년 기해(1779, 권릉 44) 8월 9일(경신)

62) <일성록> 정조3년 기해(1779) 8월 11일

고 제수(祭需)를 장만하여 풍양궁(豐壤宮) 터에서 이를 동안 신사(神祀)를 베풀고 파하였는데, 그 비용이 지극히 풍성하고 사치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주검이 길게 가득한 때에 천백 사람의 여러 날 양식이 될 만한 것을, 마침내 요사한 무당의 주머니로 돌아가게 하니, 원근(遠近)에서 지켜 보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저 소를 잡아 신사하는 것은 모두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궁인을 시켜 범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것은 전하께서 모르시는 것인데 혹 궁노(宮奴)들이 사사로이 가탁(假托)한 것입니까? 또 광릉(光陵)의 침원(寢園)이 멀지 않은 곳에 따로 한 상탁(床卓)을 베풀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견주어 방울을 흔들고 복을 쳐서 설만(褻慢)하고도 무엄하였으니, 하늘에 계신 선왕(先王)의 영(靈)을 욕되게 하고, 전하께서 선조를 받드는 덕에 누를 끼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궁임(宮任)·무녀(巫女)를 가두어 중률(重律)로 다스리도록 명하셔서, 듣기에 놀랍고 의혹되는 것을 풀어 주소서" 하므로, 무녀는 법에 따라 귀양을 보내고, 궁임은 중중과죄(從重科罪)하도록 하였다.⁶³⁾

4. 제사에 대한 의절(儀節)

조선의 왕실에서 대군·왕자·공주·옹주에 대한 시향과 묘향에 대해서는 일정한 격식과 규범이 있었다. 이러한 의절(儀節)은 정조임금이 즉위하면서 새롭게 정비되어 시행되었다. 수진궁(壽進宮)의 등록(騰錄)에는 사판(祠版=위패)에 대한 시향(時享)과 묘제(墓祭)를 행할 때의 찬품(饌品) 및 의절(儀節)을 고루 나누어 규정으로 만든 뒤 지금까지 준행하였다.

그 가운데 사판에 대한 시향은 2월과 8월 중순의 정일(丁日)에 행하고

63) 숙종22년 병자(1696, 강희 35) 1월 15일(임신)

묘제는 매년 한식에 행하는 등 모두가 예(禮)의 뜻에 맞았고, 제품의 기수를 정해 놓은 것도 늘리거나 줄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경우 사관에 대해 시향을 드릴 때와 묘제를 올릴 때의 찬품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향(祀享)하는 의절(儀節)은,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옹주(翁主)의 사관에 시향을 드릴 때는 애당초 내시(內侍)가 제사 일을 맡는 예가 없이 본궁의 궁인(宮人) 스스로가 거행해 왔고, 대군·왕자·귀인(貴人)의 묘제를 행할 때는 내시가 그곳에 나아가 제사 일을 맡았다. 똑같은 사향인데 내시가 어떤 때는 맡고 어떤 때는 맡지 않기도 한 것이다.

수진궁에서 담당하는 궁내의 사관 및 산소(山所)의 제품(祭品)·제의(祭義)·제일(祭日)에 관한 별단은 다음과 같다.

(1) 5묘(廟)에서 15위(位)의 사관을 봉안(奉安)하고 있는데, 평원대군(平原大君)·강령부부인(江寧府夫人)·제안대군(齊安大君)·상산부부인(商山府夫人)·영창대군(永昌大君)·용성대군(龍城大君) 이상 6위를 1묘에 봉안하고, 의창군(義昌君)·양천군부인(陽川郡夫人)·평선군(平善君)·동원군부인(東原郡夫人) 이상 4위를 1묘에 봉안하고, 숙신공주(淑愼公主) 1위를 1묘에 봉안하고, 명선공주·명혜공주 이상 2위를 1묘에 봉안하고, 귀인(貴人) 김씨(金氏), 소의(昭儀) 유씨(劉氏) 이상 2위를 1묘에 봉안하고 있다. 이상은 모두 봄 가을의 가운데 달 가운데 정일에 시향을 거행한다.

(2) 묘소에 20위를 봉안하고 있다. 평원대군·강령부부인·제안대군·상산부부인·영창대군·명선공주·명혜공주 이상 7위의 묘소는 광주(廣州)에 있고, 용성대군·의창군·양천군부인 이상 3위의 묘소는 풍양(豐壤)에 있고, 낙선군(樂善君)·동원군부인 이상 2위의 묘소는 청송(靑松)에 있고, 숙신공주의 묘소는 서산(西山)에 있고, 귀인 김씨의 묘소는

망우리(忘憂里)에 있고, 소의 유씨의 묘소는 진관(津寬)에 있는데, 매년 한식에 묘소에서는 한 번만 제사를 지낸다. 대군 아기씨(大君阿只氏)의 묘소는 광주에 있고, 숙의(淑儀) 나씨(羅氏)의 묘소는 서산에 있고, 숙원(淑媛) 장씨(張氏)의 묘소는 연서(延曙)에 있고, 명빈(明嬪) 김씨(金氏)의 묘소는 아차산(峩嵯山)에 있고, 증 경빈(慶嬪) 이씨(李氏)의 묘소는 풍양에 있는데, 이상은 매년 한식에 제사를 설행한다.⁶⁴⁾

정조23년(1799)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묘소와 해창위(海昌尉)·명안공주(明安公主)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 치제(致祭)하고 명혜(明惠)·명선(明善) 두 공주의 묘소에는 내시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⁶⁵⁾ 조선의 운명이 다해갈 무렵인 고종4년(1867)에도 “명혜공주(明惠公主)와 명선공주(明善公主)의 묘소에 내시를 보내어 치제하고, 청연군주(淸衍郡主)의 묘소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라” 하였다.⁶⁶⁾

5. 봉국사와 명선·명혜공주

봉국사는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를 위한 원찰로 운영되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봉선사(奉先寺)·봉은사(奉恩寺)에 역대 임금들의 위판(位版)을 모신 적이 있었는데 유생들의 상소에 의해 폐지되었던 바 있는데, 봉국사(奉國寺)에 두 공주를 모셨던 것이다.

“광주(廣州) 봉국사에서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公主)의 원당(願堂)에 그 목주(木主)를 봉안하고 해마다 봄·가을에 궁인(宮人)이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 하니 대사헌(大司憲) 심단(沈檀)이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했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持難)하는 까닭을 경(卿)들이

64) 정조 22년 무오(1798, 가경 3) 9월 7일(정묘)

65) 정조 23년 기미(1799, 가경 4) 8월 23일(기유)

66) <승정원일기> 고종 4년 정묘(1867, 동치 6) 9월 10일(경신)

스스로 알거니와, 이것은 갑자기 폐지할 일이 아니다” 하자, 여러 신하들이 드디어 힘껏 청하지 않고 물러갔다.⁶⁷⁾

정조10년(1786)에는 묘소도감이 부사군(浮莎軍)⁶⁸⁾과 보토군(補土軍)의 별단으로 아뢰었는데, 이중에 “봉국사 승려 12명”이 명단에 있음을 볼 수 있다.⁶⁹⁾

봉국사는 고려 현종19년(1028)에 법현선사가 창건하였고, 그 후 폐허화되었다가 조선 태조4년(1395)에 담화스님이 왕명으로 중수하였고, 현종15년(1674)에는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금강산 일족존자에게 중창을 명하여 봉국사라 칭하였다. 창건 기록은 백곡대사 처능(處能, 1617~1680)의 <백곡대각등계록>에 상세히 수록되어 전한다.

처능의 성은 김씨(金氏). 자는 신수(愼守). 호는 백곡(白谷). 12세에 의현(義賢)에게 글을 배우다가 불경을 읽고 그 깊은 이치에 감동하여 출가를 결심하였고, 15세에 승려가 된 뒤 다시 신익성(申翊聖)으로부터 경사(經史) 및 제자(諸子)와 시문(詩文)을 배웠다. 그 뒤 지리산 쌍계사(雙磎寺)의 각성(覺性)을 찾아가 23년 동안 수선(修禪)과 내전(內典)을 익혀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1674년(현종 15) 김좌명(金佐明)의 주청으로 팔도선교십육종도총섭(八道禪敎十六宗都摠攝)이 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속리산·청룡산(靑龍山)·성주산(聖住山)·계룡산 등지에서 산림법회(山林法會)를 열어 후학들을 지도하였으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찰은 대둔사(大菴寺)의 안심암(安心庵)이었다.

한편, 현종의 척불정책(斥佛政策)에 대하여 전국 승려를 대표하여 <간폐석교소 諫廢釋教疏>를 올렸고, 1680년 금산사(金山寺)에서 대법회를 열고 그해 7월에 입적(入寂)하였다. 그는 한참 위축되어 있던 조선시대의

67) 숙종17년 신미(1691, 강희 30) 4월 2일(정사)

68) 보사군 : 능(陵)·원(園)·묘(墓)에 사초(莎草)를 할 때 뗏장 떠내는 일을 맡은 사람.

69) 정조10년 병오(1786, 건륭 51) 윤7월 12일(계미)

승단을 대변하여 호불간쟁(護佛諫諍)에 앞장섰던 고승이다. <간폐석교소>를 통하여 불교를 논박하는 근거가 승단의 재력과 인력의 소모를 내세울 뿐, 이론적인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논파하였다. 특히 중국의 대유(大儒)들이 오히려 불교 이론을 깊이 통달한 점을 열거하여 폐불의 부당성을 항변하였다. 더 나아가서 유교적 요소로서 불교를 이해하려는 원융적(圓融的) 태도를 보여, 유교의 성명설(性命說)·인의설(仁義說)을 그대로 불법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역대의 승가에서 보기 드문 대문장가로 평가받고 있다. 저술로는 《백곡집》 2권과 《임성당대사행장 任性堂大師行狀》 1권이 전하고 있다.⁷⁰⁾

현존하는 당우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인 대광명전(大光明殿), 삼성각(三聖閣), 심검당(尋劍堂)이 있으며 일주문(一株門), 천왕문(天王門), 범종루(梵鐘樓) 등의 부속건물을 갖추고 있고, 1977년에 3층 석탑과 석등을 조성하면서 태국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 1과를 봉안하였다. 대광명전은 지붕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가장 단순한 맞배지붕을 지닌 주shipo 양식으로 몸체에 비해 지붕이 커서 외관이 장중하고, 전각내부의 불단위에는 화려한 닷집이 있다. 대광명전의 주존불(佛)은 목조아미타불이며 좌우로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다. 또한 1981년에는 만해선사의 유일한 제자인 춘성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과 행적비를 모셨고, 최근에는 미륵보살의 화신인 포대화상(布帶和尚) 불사 및 심검당을 전면 개보수하여 기도와 수행을 겸비한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⁷¹⁾

그런데 두 공주의 묘역 일대는 풍수적으로 명당자리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숙빈의 장지(葬地)를 살필 때 범금을 무시한 내관 장후재를 파직시켰다는 기록이 보인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7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71) 봉곡사 홈페이지 : <http://www.bongguksa.or.kr/>

“숙빈(淑嬪)의 장지를 간심(看審)할 때 내관(內官) 장후재(張厚載)가 범연히 광주(廣州)의 경내에서 묘산(墓山)을 얻었다고 진달(陳達)함으로써 은연중 법금을 무시하고 명선공주·명혜공주의 묘산(墓山) 내의 청룡(靑龍)의 터에 입장(入葬)하려는 계책을 세웠으니, 일이 해괴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파직시키고 관원을 더 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우선 들어 오도록 하고 다른 산을 바꾸어 구하게 하라”⁷²⁾ 하였다.

그런데 숙빈(淑嬪)의 장지(葬地)를 택하면서 호상내사(護喪內使)와 본방(本房)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처음에는 명혜공주와 명선공주의 묘산(墓山) 근처에 택점(擇占)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명하여 다른 곳으로 바꾸어 정하게 하므로 다시 또 선릉(宣陵)⁷³⁾ 근처로 택점하였는데, 임금이 그 곳이 선릉과 서로 바라보는 곳이란 말을 듣고는 다른 산으로 바꾸어서 택점하게 하였다.⁷⁴⁾

6. 명선·명혜공주의 태실과 묘역

명선·명혜공주의 묘역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숲골⁷⁵⁾에 있다가 일제시대인 1936년에 고양시 서삼릉 옆으로 이장되었다. 일제시대에 일본은 우리나라 전국의 명당에 자리 잡고 있던 역대 임금의 태실과 왕자, 대군, 공주 등의 태실과 묘를 서삼릉 경내로 모으는 만행을 저질렀다.

1935년~1938년 일제 강점기에 전국 각처에 있는 태실을 집중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이곳으로 옮기면서 날일 자(日) 형태의 불럭담장에 출입문 및 태비 모형을 일본식으로 조영하여 왕 태실 22기와 왕자 왕녀의 태실 32기, 합계 54기가 있으며 총 면적은 2만 3백 45평이다. 예로부터 태는

72) 숙종44년 무술(1718, 강희 57) 4월 20일(무술)

73) 선릉(宣陵): 성종(成宗)과 정현왕후(貞顯王后)의 능.

74) 숙종44년 무술(1718, 강희 57) 4월 29일(정미)

75) 홍경모, <중정 남한지>에 “세촌면에 있다”고 하였다.

태아의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태아가 출산된 뒤에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중하게 보관되었다. 보관하는 방법도 신분의 귀천이나 계급의 고하에 따라 다르며 특히 왕실은 국운과 직접 관계가 있다 하여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졌다.

태실은 일반적으로 태옹이라 하여 항아리에 안치하는 것이 통례이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사람의 태는 태봉으로 기봉될 것을 감안 석실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태를 태실까지 봉안하는 절차와 봉안하는 의식도 까다로웠다. 왕자나 공주 옹주가 태어나면 태를 봉안할 장소를 관상감에서 물색하고 개기(開基) 및 봉토 등의 날을 가려서 정하였다.

선공감에서는 태를 봉송할 도로를 고치고 역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한다. 봉송 일이 되면 봉송관원을 임명하는데 당상관으로 안태사를 정하여 안태봉송의 책임을 지게 하고 배태관을 차정하여 태를 봉송하는 도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 향관과 주시관을 차정 안태사의 배태관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그와는 별도로 당하관으로 감독관을 뽑아 일체의 공사를 감독하고, 상토관을 파견하여 이미 선정된 태실이 길지인가를 재확인시킨다. 그 밑에 감역관을 두어 도로의 수치와 태실의 역사를 감독하게 된다. 태실이 필역(畢役)이 되면 토지 신에게 보호를 기원하는 고후토제 사후토제 등의 제례도 치렀다.

관할구역의 관원은 춘추로 태실을 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태실의 주위에는 금표(禁標)를 세워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벌목, 채석, 개간, 방목 등을 하였을 때는 국법에 따라 엄벌하도록 정하였다. 이렇듯 태의 봉안은 나라의 국운을 비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서 태실이 들어설 터를 고르는 데도 조정이 나설 정도였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쇠망(衰亡)시키고 국민의 애국정신

과 정신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고의적인 태실 집장(集葬)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서삼릉의 서북간에 위치한 태실은 이러한 일제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국 각지의 유명 태실을 파손하고, 태를 담았던 문화재인 태옹을 도둑질해 갔으며 날일 자(日)로 담을 치는 등 만행을 저지른 역사의 현장이다. 박종효(72, 전 농협대 도서관장)씨는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치 폐쇄된 태실묘를 새로 단장하여 일반에게 개방하여 일본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인근 주민들도 태실묘의 존재를 거의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삼릉 관리소 직원에게 태실묘가 방치, 폐쇄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서삼릉은 3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인종의 효능과 태실묘는 농협중앙회의 종축장이 주변에 있어서 개방하려고 노력하여도 종축장이 철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개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 중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태실과 묘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까지 서삼릉으로 옮겨간 이들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999년에 발행한 <서삼릉태실>이 유일한 보고서이다.

가.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태실⁷⁶⁾

서삼릉 태실에는 태조임금의 태실을 비롯해 54기의 태실이 옮겨져 있다. 이 중 명선공주의 태실이 있으며 명혜공주의 태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명선공주의 태실은 충남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태봉에 있었다.

명선공주의 태향아리는 외향아리와 내향아리로 구성되며 각각 뚜껑이 있다. 외향아리의 높이는 23.4cm, 구경 18cm, 저경 15.1cm, 기벽두께 0.5

76)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태실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서삼릉태실>자료에 의거한 것임.



명선공주의 태항아리

~1cm로서 C자형 고리가 넷 달려 있으며, 고리의 단면은 방형이다. 외면에는 봉합천과 주칠끈 흔적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물레성형을 한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에 담청색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구연 내부에는 유약을 바르기 위해 잡은 손자국이 있다. 외항아리의 뚜껑은 높이가 9.7cm, 지름 23cm, 두께 0.4~1.2cm로서 납작한 보주형에 가까운 손잡이가 달려있다. 손잡이 목에는 방형의 구멍이 네 개가 뚫려 있다.

내항아리의 높이는 12.4cm, 구경 9.3cm, 저경 8cm, 기벽두께 0.4~0.9cm이다. 어깨에는 C자형 고리가 4개 달려있고 내면에는 물레성형을 한 자국과 구연 내부에는 유약을 바를 때 잡은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다. 뚜껑의 높이는 0.5cm, 지름 11.6cm, 두께 0.3~1cm이다. 손잡이 목에는 원형의 구멍 4개가 뚫려 있고 유약을 바르기 위해 잡은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다.

명선공주의 태실에는 오석(烏石)으로 만든 지석(誌石)이 있는데 앞면

에는 “己亥年 11月 15日 丑時 誕生 公主 阿只氏胎”라 새기고 뒷면에는 “順治17年2月17日巳時藏”이라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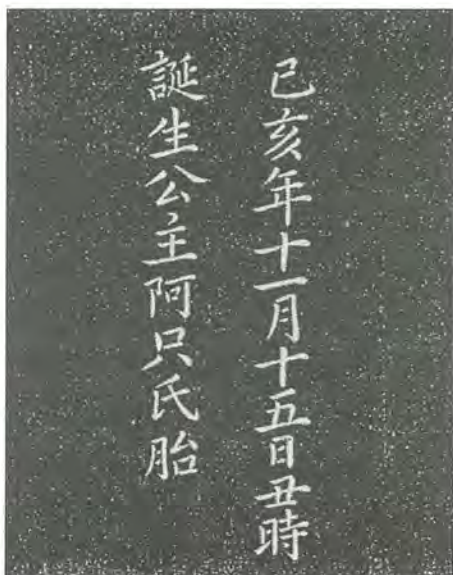
지석의 크기는 가로 31cm, 세로31.3cm, 두께 5.5cm이며, 글자크기는 2.5cm 내외이며, 음각명문 안에는 붉은 칠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순치 17년은 1660년이다. 태지석의 내용에 의하면 명선공주는 1659년 11월 15일 출생하였고, 태실을 만든 것은 1660년 2월 17일이다. 탄생일과 장태일(藏胎日)과는 3개월 2일 차이가 난다.

〈태봉등록(胎峰騰錄)〉에 의하면 명혜공주는 1662년 12월 4일 출생하였고, 장태일은 1670년 3월 13일이어서 7년 3개월 9일만에 태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명안공주의 경우에는 1665년 5월 18일 출생하였는데 장태일은 1670년 3월 13일로 4년 9개월 25일만에 장태(藏胎)를 하였다. 생일과 장태일에서 가장 긴 세월의 간격을 보이는 이가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씨

로서 1455년 윤 6월 11일 출생하였고, 1478년 11월 12일에 장태를 하여 23년 5월 11일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불규칙하고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태항아리 속에는 통상적으로 동전을 넣는데, 명선공주의 태항아리 속에는 개원통보(開元通寶)가 들어 있다. 개원통보는 당나라 초기인 621년(武德4) 처음으로 주조 발행되었으며, 지름 2.4cm, 무게 3.7g 정



명선공주 태지석 탁본

도이다. 이 동전은 그 후 역대 왕조의 표준형이 되었다. 그 후에는 845년(武宗5) 회창(會昌)에서 주조한 예가 있으며, 오대삼국시대의 남당(南唐: 937~975)에서도 발행하였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목종 때(998~1009) 같은 이름의 주화를 발행하였는데, 전문(錢文)을 예서와 전서로 주조한 두 종류가 있었다.⁷⁷⁾ 이 개원통보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사신들에게 팔기도 하였고, 점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⁷⁸⁾

그 외에 외항아리 안에 내항아리를 넣으면서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는 솜과 항아리 뚜껑을 덮은 후 밀봉하는 끈의 흔적이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태항아리에서 금박 종이가 들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명선공주의 태항아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장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명혜공주의 태실은 충남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에 있었다.⁷⁹⁾ 명혜공주의 태실 앞에서 있던 태실비는 현재 정림사지 석탑이 있는 인근에 옮겨져 있다.

명혜공주의 동생인 명안공주의 태항아리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 왕과 국가실에 백자 태항아리 2개와 함께 태지가 전시되어 있다. 이 태지의 앞면에는 〈乙巳年五月十八日辰時 誕生新生公主阿只氏胎〉라 새겼고 뒷면에는 〈康熙九年三月十三日卯時藏〉이라 새겨 있다(신생공주라 쓴 것은 아직 명안이라는 공주의 이름이 부여되기 전 즉, 어린 공주였음을 알려준다).

이를 통하여 이 태지는 조선 현종임금의 왕비가 1665년(현종6)에 낳은

77) 네이버 백과사전

78) 홍대용, <담헌서> 외집 10권(外集 卷十)연기(燕記)기용(器用)

이역,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萬物門)고전(古錢)

김경선, <연원직지(燕輶直指)> 제6권 유관별록(留館別錄) 인물(人物)과 요속(謠俗)

79) <胎峰臚錄> 권1, 경술 정월 16일조, 태봉

<태봉등록> 권1, 경술 2월 20일조, 태봉 부여군, <부여군지>, 1980, 870쪽 <명혜공주아기씨태실비>

명안공주의 태를 1670년 태실에 묻을 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명안공주는 성장하여 판서 오두인(吳斗寅)의 아들인 오태주(吳泰周)에게 하가하였다. 명안공주의 태실에 대하여는 조선 영조(재위 1724~1776년) 때 만든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충청도 임천군(林川郡 : 지금은 충남 부여군에 속함) 및 『임천군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여지도서』에는 “명혜공주와 명안공주의 태실은 선조대왕의 태실에서 동쪽 2리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데 두 태실은 같은 산에 마련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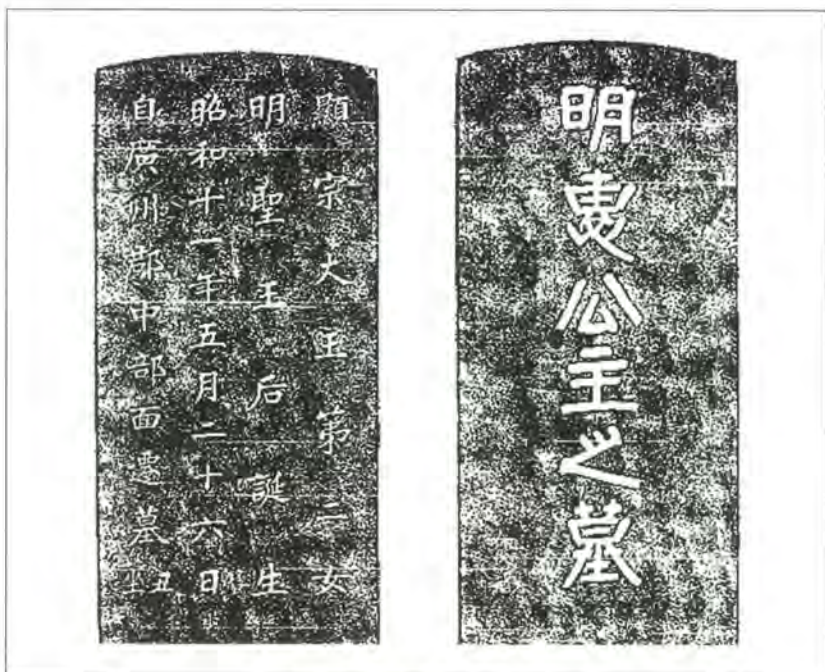
또 같은 책의 임천군지도에는 태봉산에서 두 공주의 태비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 즉 언니인 명혜공주의 태실 앞에 동생인 명안공주의 태실이



명혜공주 태실비

있었던 것이다. 마치 언니가 동생을 감싸 안은 모습이다.

위 기록 등에서 언급된 두 공주의 태실은 지금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용골의 태봉산에 있었다. 태봉 정상에 남아 있었던 태비는 1961년경 충화면사무소 근처로 이전되었다가 그 후 면사무소의 연못을 메울 때 매몰되었다고 한다. 두 공주의 태실에 대한 책은 명안공주의 태실이 완성된 11년 뒤인 1681년에 만든 『명혜공주신생공주



일제가 만들어 세운 명혜공주 묘표

안태등록(明惠公主新生公主安胎謄錄)』이다.

이 의궤는 조선 왕실의 도서관 가운데 하나인 강화도 외규장각에 소장되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다른 도서들과 함께 약탈해가 지금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 왕실의 태는 조선 중기 이후 먼저 작은 항아리에 담고 이어 그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넣었다. 명안공주의 백자 태항아리 역시 2개로 구성되었는데 큰 태항아리 바닥에는 병신(丙申)이라는 간지가 있다. 이 태항아리의 제작 연대라고 생각되는 이 간지는 명안공주 태지와 관련지어 볼 때 1656년이다.⁸⁰⁾

80) 조원교(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명선공주의 묘

나.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묘

명선공주의 묘와 명혜공주의 묘는 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다가 1936년 5월에 서삼릉 구역으로 이장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여 지배하는 동안 저지른 수많은 만행 가운데 역대 왕자와 공주 등의 묘역을 파괴하고 현상을 변경하였다. 이에 앞서 일본은 1912년에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조선 왕실의 분묘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경계를 사정(査定)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이왕가 분묘 부속지 경계사정 서류>라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능, 원, 묘, 태실 등의 위치도와 세부적인 지형 설명 및 소속된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서삼릉의 명혜공주 묘표는 일제가 1936년에 성남에서 서삼릉으로 이장하면서 새로 만들어 세운 것인데 앞면에는 “明惠公主之墓”라 하였고, 뒷면에는 “顯宗大王 第二女. 明聖王后誕生, 昭和十一年 五月 二六日 自廣

州郡 中部面 遷墓, 丑坐”라 새겼다. 즉 1936년 5월 26일에 이장하였다. 이에 앞서 이를 전인 5월 24일에 명선공주의 묘가 이장되었다.

III. 맺음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숲골에 있었던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묘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대군, 왕자, 공주 묘역에 이장되어 있다. 이는 1936년에 일제가 저지른 만행으로서 묘역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미명하에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던 역대 임금의 태실을 비롯하여 대군, 왕자, 공주 등의 묘역을 임의로 이장하면서 원형을 파괴하였고, 현재는 외부에 개방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적해 있는 전국의 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과 행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을 정도이며 관심의 영역 밖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는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니다. 다만 임금의 딸로 태어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던 시대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나마도 불행하게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가 어린 나이로 요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임금의 딸로 태어나서 임금의 끔찍한 사랑을 받았고, 그 시대의 유행병이던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앓다가 죽었다. 두 자매 중 동생이 먼저 죽었고 곧 이어 석달 사이에 언니 명선공주가 죽었다. 결혼을 앞두고 가례도 치르지 못한 채 세상을 떠야 했으며, 사위가 되기로 예정되었던 사람들의 신분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두 공주를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재원은 당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대규모로 지급되었고, 이를 둘러싼 논쟁 또한 계속되었다.

두 공주의 묘는 비록 다른 곳으로 이장을 했지만, 혼령은 아직도 성남

시에 남아 있다. 봉국사 대광명전이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공주명복기원천도제’가 개최된 바 있다.⁸¹⁾ 봉국사 공주명복기원천도제는 1995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2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발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짧은 생애와 묘지 이전, 그리고 태실의 이전과 파괴 등 전염병으로 세상을 뜬 이후에도 아픈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두 공주의 삶을 통해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위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평원대군, 제안대군 등 역사 속 인물 찾기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81) 『경기도의 민속예술』 1,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6.

성남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문화콘텐츠개발방안

강진갑¹⁾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장

◆ 차례 ◆

I. 머리말

II. 성남지역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 사적지

1. 의병운동
2. 3·1운동
3. 신간회 운동
4.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III.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방안

1. 경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상의 문제
2.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역사적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IV.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찾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기

1. 독립운동사 이야기 찾기
2. 사적지를 탐방 여행콘텐츠로 활용하기
3. 독립운동 주제 창작작품 만들기
4. 교육, 학술콘텐츠로 활용하기
5. 스토리텔러 양성

V. 맺음말

1) 문학박사.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경기도 문화재위원. 저서 『한국문화유산과 가상현실』(2007, 북코리아), 『경기지역의 역사와 지역문화』(2007, 북코리아), 『숲과 역사가 살아있는 남한산성』(공저, 2008,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남부 독립운동사적지』(공저, 2010,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외 다수.

1. 머리말

국가보훈처에서 2009년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립묘지, 독립기념관, 현충탑, 순국선열 기념시설 등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와 시설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와 시설에 대한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 한두 차례 방문이 48.9%로 가장 높았고 전혀 방문한 적 없다는 응답도 13.9%였다. 전체의 62.4%는 자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와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일반 국민과 대동소이하다.²⁾

그동안 성남지역에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와 관련 학술행사가 꾸준히 개최되어 연구업적이 상당부분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축적에 비해 성남지역 주민들의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는 성남지역만의 사정은 아니고 앞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역사 연구 성과 축적에 비해 이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서이다. 독립운동 사적지가 역사적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고, 독립운동사가 콘텐츠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사적지를 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성남지역 주민의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심원섭, 2010,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의 관광 인프라 확충방안」, 『국내 항일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관리와 활용』,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pp.406~407.

II. 성남지역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 사적지

성남지역 독립운동사는 크게 의병운동과 3.1운동, 그리고 신간회 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의병운동

성남지역에서의 의병운동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강제시행을 계기로 일어난 광주, 이천 등 경기 의병이 남한산성을 점거하면서 시작되었다. 경기의병이 남한산성에 집결한 것은 1896년 2월 23일이었다. 경기의병은 산성수비대와 일진일퇴를 거듭한 후, 2월 28일 이천의병부대와 합세하여 남한산성을 완전히 점거하였다.

남한산성을 점거한 의병부대수는 1,600여 명에 달하였다. 당시 성내에는 식량과 각종 대포와 조총, 탄환, 철환이 산더미같이 있었다. 의병들은 천혜의 요새지 남한산성을 장악한 데다가, 풍부한 군수물자를 확보하였기에 사기가 매우 높았다.

한편 일본군의 위협을 받은 고종은 남한산성에 관군을 출동시켰다. 3월 5일 첫 전투가 벌어졌으나, 의병부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후 산발적인 교전이 있었으나 대체로 의병의 승리로 돌아갔다.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는 서울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진공계획은 1단계로 수원 근방의 의병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단계로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와 춘천, 분원, 공주, 청주 및 수원의병부대 등이 남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과 일본군을 협공하여 격파하고, 이어 3단계로 삼남지방의 의병과 합세하여 서울로 진격한 후, 일본군을 구축하고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시키는 것이었다. 진공계획 1단계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던 중 3월 22일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는 갑작스럽게 붕괴하고 말았다. 의병항쟁 중 관군에게 체포되어 회유된 김귀성이 남한산성 서쪽 성벽이 파손된 사실을 관군에게 알렸고, 이곳을 통해 관군이 일시에 남한산성 내로 진격하였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인해 서울진공작전은 무산되었고, 의병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천 의병은 계속 항거할 것을 결의하고, 영남으로 이동하였다.

남한산성 의병부대는 여러 의병부대가 연합하여 항전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의병부대와 연계하여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한말 의병항쟁사에서 최초의 서울진공계획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패전한 이후에도 일부는 영남지역으로 이동하여 항쟁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의 의병항쟁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³⁾

성남지역 의병운동은 1904년 이후 다시 전개되었다. 1904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의병 180여명이 광주부 동쪽 40리 도척면 일대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고, 광주의병장 구만서가 포군 50여명을 인솔하고 6월 7일 새벽 지평군 일진회 사무소를 포위한 후 일진회 지회장 이강수와 부회장 이재연 등 7명을 포살한 바 있다.

1907년 군대해산 후 남상목이 용인 일대에서 무장 투쟁을 펼쳤고, 김재선 의병부대가 광주, 수원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광주군 대왕면 출신인 윤치장은 퇴역병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다 의병에 참여하였는데, 1907년 11월 부하 70명과 함께 광주, 과천에서 활동하였으며, 11월에는 광주군 청계산 부근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1908년 1월에는 광주군 목동에서 일본 기병대와 각각 교전하였다.⁴⁾

3) 강진갑 외, 2008, 『술과 역사가 살아 있는 남한산성』, 경기농림진흥재단, pp.77~78.

4) 디지털성남문화대전(<http://seongnam.grandculture.net/gc/search/search.jsp>)

2. 3.1운동

3.1운동은 1919년 3월 말 성남지역의 여러 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또는 연합시위 형태로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27일 광주군 중부면에서 3.1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중부면은 남한산성의 산성리를 중간에 두고 동부 지역의 6개 리와 서남지역의 6개 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은 성남 지역에 편입된 서남지역의 단대리·탄리·수진리 등의 3개 동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가 펼쳐졌다.

3월 27일 새벽 남한산에 햇불이 오르고 만세소리가 울리면서 시위는 시작되었다. 오전에 단대리·탄리·수진리의 주민 300여 명이 남한산성 남문 아래에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쳐 부른 후 산성 안으로 진입하였다. 시위 행진을 계속하면서 면사무소 앞까지 진출한 시위대는 평소 적극적으로 부일 협력해 온 중부면장의 머리를 곤봉으로 구타, 실신시켰다. 시위는 무력시위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경비중이던 헌병대가 발포한 후 시위군중은 해산하였다.⁵⁾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돌마면과 낙생면 2개 면민의 연합시위가 전개되었다. 이 시위는 한백봉·한순희·남태희 등이 주도하였다. 한백봉·한순희는 전 낙생면장 남태희 등과 함께 3월 27일 분당리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태극기를 준비를 하였다. 한백봉 등은 27일 새벽 울리 동리민 50여 명을 인솔하여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렸다. 오전 10시 경, 분당리 장터에 시위 군중이 모였고, 한백봉 등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에 들어갔다. 면내의 각지를 순회 시위하는 동안 시위군중은 늘어났다. 27일 오후에는 낙생면 소재지 판교리에 진출, 남태희 전 낙생면장이 인솔하는 낙생면 시위대와 합세하

5) 강진갑 외, 앞의 책, p.84.

6) 서승갑, 2003, 「성남지역의 3.1운동의 특성」,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p.57.

었다. 시위 군중은 3,000명에 달하였다.⁶⁾ 돌마면 시위대는 27일 저녁 때까지 시위를 하였으며, 한백봉 등은 밤에 또 다시 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28일과 29일 양일 간에도 계속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돌마지역 시위과정에서 한백봉 등 십수 명이 피검되어 판교헌병주재소로 연행되었다. 이 중 한백봉은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경성복심법원을 거쳐,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1년 간의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8일 만기 출옥하였다. 시위 때에 사용한 태극기는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한백봉은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⁷⁾

대왕면의 만세시위운동은 3월 26일 오후 7시 이시종이 이재순·이규문 등 동리민 100여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율현리 소재의 대왕면사무소를 향해 시위행진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면사무소 앞에 당도한 시위대는 약 20분 간 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이시종이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램프등에 불을 켜고 지니고 온 『조선독립신문』을 꺼내 군중을 향해서 읽었다. 읽는 도중 모르는 글자가 있어 더러 막히면 옆에서 이재순이 알려주었다 한다. 낭독을 마친 이시종은 군중을 향하여 “오늘까지는 이 면사무소에서도 일본을 위하는 일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 부역·세금 등은 필요없게 될 것이다”고 연설하였다. 이시종과 이재순은 이튿날 헌병주재소에 연행되었고, 5월 15일 이시종은 징역 1년, 이재순은 징역 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⁸⁾

3. 신간회 운동

신간회 광주지회는 1927년에 돌마면 만세운동을 주도한 바 있는 한순

7) 이완재, 1995, 「광주군」,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pp.435~436.

8) 위의 책, pp.437~438.

회가 설립을 주도하였다. 초대 지회장은 한순희가 맡았고, 한백봉, 한백호, 이대현, 유인목, 박기환, 한용희 등이 간사로 피임되었는데, 광주지회는 한순희 등 돌마지역 인사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광주지회는 1927년 12월 식민지 관리의 부정과 폭행 행위를 비난하고, 일제 식민지 관청에 이를 항의하였으며, 1928년 12월 개최된 정기대회에서 문맹퇴치, 미신타파, 소비조합운동 등을 결의하였다. 신간회 광주지회는 초기에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다가, 후반기에는 사회주의 진영의 석혜환이 지회장을 맡으면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⁹⁾

4.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사적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거나 관련 유적이 있는 곳을 말한다.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는 성남지역 의병운동, 3.1운동, 신간회 운동 등 독립운동이 펼쳐진 현장과 관련 인물의 생가와 묘 등이 될 수 있으나, 자료의 부족 등으로 위치가 확인된 곳은 그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된 대표적 사적지로는 돌마면 3.1운동 관련 사적지인 율동공원 내의 3.1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성남 3.1운동 기념탑이 서 있다.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한백봉 묘와 3.1운동과 광주지역 신간회운동을 주도하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가 일제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은 한순희의 묘가 있다.¹⁰⁾

그리고 1919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낙생면·돌마면민이 연합하여 3.1만세 시위를 펼친 구 낙생면사무소 터가 있다. 현 낙생고등학교 정문

9) 디지털성남문화재단(http://seongnam.grandculture.net/gc/contents/contents.jsp)

10) 한준섭, 윤종준, 2009, 『역사 속으로의 성남여행』, p.110, p.138.

앞 빈터가 그곳이다.¹¹⁾

이외에 의병장 윤치장 묘도 있으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Ⅲ.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방안

1. 경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상의 문제¹²⁾

필자는 2007년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로부터 성남지역을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를 의뢰받고 경기 지역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단은 경기 남부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사하고 사적지의 보존 및 관리 상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 내용은 경기 남부지역 전반에 대한 것이지만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럿 있다고 생각된다.

1) 사적지의 멸실 또는 완전 변형

독립운동 사적지는 해당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펼쳐진 날로부터 짧게는 60여 년, 길게는 100여 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사적지 대부분이 멸실 또는 완전 변형되었다. 특히 건물이나 가옥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급격하고 광범위한 개

11) 강진갑 외, 『경기남부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10, pp.534~535.

12) 강진갑 외, 2008, 『경기남부 항일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경기문화연구소·한국의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GCC, pp.238~240.

발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기념물 관리 미흡

사적지에 기념물조차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있는 기념물조차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 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개인이 건립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사적지 안내표식 설치 미비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줄 안내 표지나 표석·표목조차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안내판이나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하였다.

4) 역사적 사실 표기의 오류

사적지 내에 설치된 안내판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에서도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외국어 표기에서 오탈자 등 오류가 많았다.

5) 사적지에 대한 기억의 소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사적지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구전된 내용이라도 알고 있는 토박이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토박이가 생존해 있으나 시간이 흘러 그들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구술이다. 구술 작업을 통해 사라져 가는 속도를 늦추면서 당시의 기억도 되살릴 수 있다. 23대에 걸쳐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독립운동 관련 문헌 자료 및 사진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¹³⁾

6) 활용 프로그램 부족

사적지 내에 기념시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적지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기념물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행사가 끝난 후 한번 순례하는 정도로 활용되는 수준이다. 현재 사적지와 관련된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는 적지 않지만, 그러한 기념행사는 대개 단순 기념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부대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백일장이나 몇몇 사람이 모여 만세를 재현하는 정도의 약식 행사가 치러질 뿐이다. 역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나 체험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역사적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1) 사적지 찾기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사 연구는 운동사 및 관련 인물 연구와 더불어 사적지를 찾는 일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적지가 많이 있다.

그동안 독립운동 사적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여러차례 있었다.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2007년과 2008년 2년간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에 의뢰하여 경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내에서 250개가 넘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확인하였는데, 이 중 새

13) 김희곤, 2010, 「효율적인 현충사적 관리·활용 방안」, 『국내 항일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관리와 활용』,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p.195.

로 찾아낸 사적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낙생면 3.1운동 만세시위지를 확인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이는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와 「조선총독부 관보」 1914년 9월 4일자를 참고하여 고증한 것이다.¹⁴⁾ 이에 앞서 2003년 화성시의 요청으로 수원대박물관이 화성 지역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를 펼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환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진은 화성시에서 100개가 넘는 3.1운동 관련 사적지를 확인하였는데 이중 상당수가 처음 찾아낸 사적지이다.¹⁵⁾ 독립운동 사적지는 관련기관과 연구진의 노력이 결합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미확인 사적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국가보훈처,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연구자가 결합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성남시의 관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전면 조사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독립운동가 관련 사적지의 경우 반드시 독립유공 표창을 받은 운동가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독립유공자로 표창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관련 인물의 생가와 묘를 지역과 마을 차원에서 사적지로 인정하고 표식을 하고 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1운동을 계획한 독립운동가들이 회합하였던 가옥과 같은 독립운동 관련 장소도 확인하여, 비록 운동이 소규모였다고 할지라도 표식물을 설치한다면 사람들은 이웃한 곳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적지가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을 것이고 그 교육적 효과는 클 것이다

독립운동이 펼쳐진 길을 찾는 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유산과 사적지를 생각할 때 점(點)과 면(面)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길은 인간 사회에서 소통이 이루어진 곳이고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성

14) 강진갑 외, 『경기남부 독립운동사적지』, pp.534~535.

15) 화성시·수원대박물관, 2003,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남의 경우 많은 3.1만세 시위가 있었고, 시위대는 길을 따라 가면서 만세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시위를 이끈 독립운동가와 시위대가 집결한 장소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다. 지금부터 시위대가 지나간 길을 찾아 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길에 표식 물을 설치하고, 독립운동 이야기를 입히고, 독립운동 탐방로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사적지를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기

독립운동사적지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역사적 공간이다. 역사적 공간은 기념공원 형태로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¹⁶⁾이다. 기념공원에는 기념관, 박물관, 기념조형물 등을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기념조형물은 기념탑, 기념조각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로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 독립공원, 홍주의사총 등이 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시기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받으며 처형되거나 옥사 당했던 곳으로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다. 민족이 수난을 당한 이곳을 독립 운동사 교육 현장으로 남기기 위해 1988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옥사와 사형장, 망루 등의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였다. 악명 높았던 구 보안과 건물을 보수하여 '서대문 형무소 역사전시관'으로 조성하였다.

이 역사전시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1층엔 영상실·안내실·기획전시실·자료실이 있고, 2층은 민족저항실·형무소역사실·옥중생활실이 있다. 지하1층은 임시구금실·고문실이 있으며 애국지사에 대한

16)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_euckr=&query_utf=&isOnlyViewEE=&q=&dic_where=krdic&query=%EA%B3%B5%EC%9B%90&x=12&y=11)



서대문 형무소

일제의 폭력과 고문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¹⁷⁾

홍주의사총은 1906년 을사조약에 항거하여 꺾기한 900여 병오의병의 유골이 묻힌 곳으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에 있다. 병오의병은 전 참관 민종식을 포함한 홍주 지사들이 주축이 되어 꺾기한 의병으로 한말 독립운동사에서 일본 정규군과 최초로 전투를 펼친 의병이다. 기병 후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본군과 일본군에 협력하던 관군에 대항하여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의병의 거점인 홍주성이 함락되었고 대부분 의병은 전사하였다. 전투 후 의병들의 시신은 약 40여년간 홍저천변과 남산 일대에 버려져 있었는데, 1949년 4월 5일 현 의사총 전면 천변에서 유골이 발견되어 현 위치에 유골을 수습하고 합장하여 분묘를 조성하였다. 홍주의사총은 한말 조국을 지키고자 일어났던 의병들

17) 한국건축역사학회, 2006,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문화재청, pp.63~64.



홍주의사총

의 숭고한 넋이 깃든 곳이다. 이곳은 역사적 장소로서 보존이 잘되어 있으며 그 의미를 새기는 추모제도 매년 올려지고 있다.¹⁸⁾

사적지에 기념관을 건립한 사례로는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이 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은 제암리 사건과 함께 수원·화성지역 주민들의 독립 만세운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넋을 숭앙하고 사적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건립되었다. 현재 역사 현장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념관 뒤편 언덕에는 제암리 '3.1운동순국 23위지묘'가 있고 우측으로는 기존 교육관이 있으며 불탄 예배당 부지에는 순국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제1전시관은 제암리에서 일어난 3.1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제2전시관은 경기도와 전국의 3.1운동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¹⁹⁾

18) 위의 책, pp.259~260.

19) 위의 책, pp.255~256.



제암리 기념관

기념공원은 비용과 공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소공원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간단한 조경과 소형 기념비석과 벤치정도만 설치해도 된다. 시골의 한적한 곳부터 도시의 좁은 공간까지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역사유적지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소공원 조성 사례로는 천안의 마틴공원과 안동의 오미광복운동 기념공원 등이 있다.²⁰⁾ 그리고 기념물만을 설치된 것으로는 송산 3.1운동기념비, 발안 3.1운동기념비 등이 있다.

기념물 조성시 천편일률적인 기념탑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림의 우금치 동학혁명군위령탑은 1963년 제작된 것으로 위로 솟아오른 형태인데 반해, 삼례봉기 기념탑은 동학농민군들이 지구본을 에워싼 디자인이다. 전자의 기념물이 다소 경직된 이미지를

20) 김희곤, 앞의 글, pp.189~191.



우금치 동학혁명군 위령탑

주는데 반해, 후자의 기념물은 동학농민군이 세상에 세워싸고 있는 모습을 디자인함으로써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다.²¹⁾

안내 간판은 관련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관련 이미지도 함께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주변에 연계할 수 관광지를 안내판에 표시한다면, 방문객 흡인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만세운동처럼 시위대

가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로를 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²²⁾

IV.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찾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기

1. 독립운동사 이야기 찾기

역사적 공간은 이야기와 결합되어야 한다. 아무런 이야기가 남아 있지

21) 이경희, 2007, 「기념물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전승」, 『인문콘텐츠』10, p.195, p.201.

22) 강진갑 외, 『경기남부 항일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p.239.



삼례봉기 기념탑

않은 사적지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야기와 결합된 사적지는 비록 사적지의 규모와 형태가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곳을 찾게 된다.

사적지 관련 증언 채록사업은 관련 유공자나 후손,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이들의 기억과 증언은 사료와 더불어 관련 사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아직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는 이나 구전을 통해서 관련 사건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증언과 기억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²³⁾

23) 위의 책, pp.243~244.

2. 사적지를 탐방 여행콘텐츠로 활용하기

최근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는 탐방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숲길은 매우 인기 있는 탐방로이다. 스페인에는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자의 길'이 있다. 산티아고에는 가톨릭 성인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 12세기에 많은 이들이 찾는 성지여서 이 길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길이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 이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199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되면서 다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800여 km에 달하는 이 길을 사람들은 한 달간 걸어서 간다. 사색을 하며 걷는 이 길에서 많은 이들은 인생을 배운다. 이제 이 길에서 한국인들도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이 길은 역사가 만들어 놓은 길이다. 영국은 1965년부터 국립 트레일(National Trails)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 트레일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자전거와 승마는 허용되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총 연장 약 4,000km에 달하는 장거리 보행자 중심 도로이다. 한 해에 1,1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한다.

일본도 1970년부터 장거리 자연보도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장거리 자연보도는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한 보행자 중심도로이다. 코스도 하루 코스, 연속 코스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 9개 코스 총 26,038km가 조성되어 있다. 한해 6,06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한다.²⁴⁾

미국 보스턴에 자유의 길이 있다. 보스턴은 영국에 대항하여 독립을 쟁취한 미국인의 의지가 담긴 여러 사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자유의 길은 이러한 사적지들을 연계 관광할 수 있도록 조성된 2.4km 길이의 길이다. 관광객들은 이 길에 조성된 16개의 역사적 장소를 보면서 미국 독립

24) 강진갑, 「문화의 창/ 길을 사람에게 돌려주자」, 『중부일보』 2008년 10월 10일자.

전쟁사를 공부하고 미국인의 독립의지를 느낀다. 길의 초입에 지도가 있는데 길 전체와 사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길 바닥에는 붉은 색 라인이 그려져 있다. 자유의 길 코스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다. 보스턴은 관광객이 자유의 길 투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최대한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도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자료, 체험활동 가이드 도구, 브로셔, 서지학 자료, 오디오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과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행사 및 일정을 소개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보스턴에서는 지하철에도 사적지에 대한 안내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지하철로도 사적지를 접근할 수 있다.²⁵⁾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결하는 탐방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사적지와 관련 사적지를 선으로 연결할 경우 교육, 관광 답사 코스 및 루트로 개발이 가능하다. 사적지 자체가 멸실되거나 완전 변형된 경우,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일수록 해당 사적지와 관련 사건을 부각하고 루트나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성남지역 만세시위대 진행루트, 남한산성 의병 부대의 진격로 등 다양한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적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사건별로, 혹은 운동계열별로 거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거점은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 등 환경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널리 알려진 사적지를 거점 사적지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율동공원 내의 3.1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성남지역을 대표하는 사적지이지만 주변 경관과환경이 뛰어나기에 이곳을 거점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25) 이훈, 2010, 「사례 분석을 통한 독립운동 사적지의 관광자원화 연구」, 『국내 항일독립운동 및 국수호 사적지 관리와 활용』,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pp.435~440.

각 사적지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하는데, 인지도가 낮은 사적지의 경우 주변의 관광자원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방문객 흡인력을 높일 수 있다. 이 때 주변 사적지가 반드시 독립운동사적지일 필요는 없다. 조선시대 사적지일 수도 있고 다른 근대문화유산이어도 괜찮다.²⁶⁾

탐방 방식의 하나로 오리엔티어링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만을 사용하여 몇 개의 정해진 지점을 거쳐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겨루는 경기이다. 오리엔티어링은 도보 오리엔티어링, 자전거 오리엔티어링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도보 오리엔티어링은 지구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이다. 표시된 길이 없기 때문에 지도와 컴퍼스를 가지고 길을 찾아야 한다. 지도에는 언덕들, 지표면, 장애물들과 같은 지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도보 오리엔티어링은 지도 읽는 기술과 절대적인 집중, 가장 좋은 노선에 대한 신속한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거친 땅과 완전히 생소한 숲 또는 거친 언덕들을 빠르게 가로질러 가야 하기에 상당한 체력과 민첩함이 필요하다. 코스 및 목적지를 사적지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참가자들에게 훌륭한 독립운동 학습 코스가 될 것이다.²⁷⁾

3. 독립운동 주제 창작작품 만들기

독립운동 관련 이야기를 문학 작품, 공연 작품, 시각 예술물로 창작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경우 독립운동 관련 내용은 오래된 창작 소재이다. 이제 독립운동가 전기도 역사학자가 아닌 작가가 평전 형식으로 집필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주제로 연극, 오페라 등도 제작할 수 있다. 오페라 명성황후는 한말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명성황후 이야기를 오페라로 꾸

26) 강진갑 외, 『경기남부 항일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pp.241~243.

27) 한국문화원연합회 향토사대중화사업 자료 참조.

민 것이다.

일부 독립운동 관련 기념행사는 아직도 기념식만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다. 독립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펼칠 필요가 있다. 안성시 원곡·양성면 3.1만세운동은 일제가 3.1운동 당시 가장 치열하게 운동이 전개된 3곳 중 한 곳으로 꼽을 정도로 격렬한 만세운동이 펼쳐진 곳이다. 양성면 주민들은 이곳에서 3.1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매년 이곳에서 3.1운동 재현 행사가 열리고 여기에 참여하거나 관람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²⁸⁾ 독립운동 재현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고장에 대한 자부심도 높여준다.

이외에도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4. 교육, 학술콘텐츠로 활용하기

독립운동사를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은 교육영역이다. 독립운동사 주제로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여기에는 영상자료도 포함된다. 다양한 주제의 학술서적도 발간할 수 있다.

5. 스토리텔러 양성

사적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내자이다. 사람들은 역사를 좋아하면서도 어려운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독립운동 이야기를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할 안내자, 스토리텔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토리텔러를 양성해야 한다.²⁹⁾

28) 강진갑, 「마을과 삶/그 날의 함성을 잊지 않은 사람들」, 『경인일보』 2008년 5월 16일자.

29) 김희곤, 앞의 글, pp.184~185.

V. 맺음말

지역 독립운동사 연구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을 연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를 진전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지역 주민, 학생, 지역 지식인 등에 의해 지역에서 집단으로 기억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독립 운동 내용이 여러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개발되어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을 소재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 최근 사례로 안산시가 2009년 최용신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추진한 있는 최용신 콘텐츠사업을 들 수 있다.³⁰⁾ 최용신 기념사업은 안산시와 안산지역 주민, 최용신 관계자, 최용신 제자 등이 오래 전부터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안산시의 최용신 콘텐츠 사업은 이 같은 성과 위에 추진된 사업이다.

최용신 콘텐츠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기본 계획 연구'가 이루어졌다.³¹⁾ 보고서에는 최용신 기념사업의 내용으로 연극제작, 전시회, 평전 제작, 디지털 콘텐츠 제작, 교육, 학술사업, 문화공간화 사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안되어 있다.

2009년 10월 16일 최용신탄생 100주년 기념국제학술회의 '상록수 최

30) 최용신은 일제 강점기 피폐된 농촌사회의 부흥을 위해 농촌계몽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이다. 1931년 10월 YWCA 파견교사로 삼골에 파견되었다. 예배당을 빌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시작하였다. 최용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32년 5월 정식으로 강습소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천곡삼팔학원 건축발기회를 조직하고 그곳 유지와 YWCA의 보조로 학원 건축을 시작하여 1933년 1월 15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 학원을 살리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1935년 1월 23일 과로로 사망하였다. 그의 농촌 계몽활동은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서 실재화되어 농촌운동의 귀감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최용신』,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31) 안산시·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기본방향 연구』.



최용신 거리 조형물 '만남'

용신 기억 속에서 아시아로 걸어 나오다'가 개최되었다. 이 날 한양대 차혜영 교수는 최용신의 리더십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용신이 짧은 시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후 75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친밀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소통과 돌봄,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한 리더십에 그 원인을 찾았다. 독립운동가를 과거의 투사로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가 본 받아야 할 한 사람, 새로운 리더의 한 표상으로 정리, 발표하여 학술발표장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³²⁾

2010년에 8월 12일 최용신 탄생일에 최용신 이야기를 거리에 입힌 거리 조형물 4기가 공개되었다. 4기의 최용신 거리 조형물은 최용신과 아이들을 소재로 조각가 진은수 선생이 실물크기로 제작한 동상으로 시민들

32) 강진갑, 2009, 「경기·인천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 방안』,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p.16.

이 최용신 거리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최용신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조형물의 전체주제는 '최용신 이야기 속을 거닐다'이며 각 조형물은 '만남' '이꿈' '향함' '안김' 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다. '만남'은 최용신이 샘골 마을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만나는 모습, '이꿈'은 최용신이 일제 강점기 빈곤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배롭게 보고 이들을 '희망의 세계' '빛의 세계' 로 이끄는 모습, '향함'은 아이들이 미래의 '조선의 빛, 조선의 썩'이 되기 위해 샘골강습소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안김'은 최용신이 제자 이덕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이다. 이덕선은 최용신 선생의 제자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로 선생께 직접 배운 학생이다.

안산시가 조성한 최용신 거리 조형물은 안산시 상록수역에서 최용신



최용신 거리 조형물 '이꿈'

기념관 사이의 최용신 거리에 조성되어 있다.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조형물은 안산 시민들이 최용신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역사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조형물에 이야기를 입힘으로 한낱 동상조각에 그칠 뻔했던 최용신 조형물이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조형물과 이야기를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조형물 조성



최용신 거리 조형물

과 함께 최용신 기념관 기획전시실도 개관하였다.

조형물을 공개하고 기획전시실 개관을 축하하는 날이자 최용신 탄생일인 8월 12일 최용신 공원과 거리에서는 조그마한 축제가 열렸다. ‘최용신 이야기 속을 거닐다’ 라는 테마를 잡고 지역주민과 어린이들, 참가자들이 한바탕 어우러지는 한여름 도심 속의 신명나는 놀이마당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최용신 선생이 샘골 사람들과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 샘골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던 최용신 선생의 말씀, 선생이 일제의 탄압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글교육,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 적기 등을 당시의 샘골강습소 학생이 되어 체험하였다. 역사적 인물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느냐,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어 살아 숨쉬느냐는 어떠한 스토리텔러를 만나는가에 달려 있다. 최용신에게는 농촌운동가, 계몽운동가, 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최용신 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 교육자 최용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용신 콘텐츠 개발 사업은 다른 지역 독립운동가 현양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용신 거리 조형물 '안김'

최용신 거리에 라성호텔이 있다. 라성호텔은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투숙하는 호텔이다. 중국 관광객은 라성호텔에서 숙박만 하고 간다. 이들 관광객이 최용신 거리에 나와 소비를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안산시가 최용신 거리에 최용신 콘텐츠를 개발한 목적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다.

독립운동을 주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의 시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라는 뜻도 있지만, 문화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라는 뜻이 더 강하다. 지금까지 문화가 꽃이었다면 앞으로는 문화가 미래로 열린 길이 된다. 자유로운 감성이 창의력과 결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란민속5일장’의 성립과 발전의 사회적 의미

이수철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차례 ◆

- I. 글을 시작하며
- II. 오일장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 변화
 - 1. 오일장의 의미
 - 2. 오일장의 역사와 기능
 - 3. 정기시장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
- III. 성남의 도시화와 모란민속 5일장(모란장)
- IV. 결론을 대신해서: 모란민속5일장의 사회적 의미
 - 1. 관광자원화 가능성
 - 2.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

I. 글을 시작하며

“도심에 옛 시골장터 재현 볼거리·먹을거리 가득
물건 사러 오는 사람보다 구경하러 오는 이가 많아”

지난 4일 낮 1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대원천 하류를 복개한 주차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 바로 전날만 해도 1만여㎡에 이르는 주차장은 공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밤새 각양각색 좌판이 차지하고

사람들은 그 틈새를 비집고 다녔다. 지나가던 장꾼들은 ‘뽕’ 하는 뽕튀기 소리에 놀라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시장 한가운데 긴 나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앞에 두고 있었다.

바로 이날 5일장인 모란시장의 장이 섰다. 날짜 끝 숫자가 4·9일인 날, 이곳은 사람과 물건으로 넘친다. 수도권 도심 한복판에서 옛 시골 장날이 재현되는 것이다. 장날 하루 이곳을 찾는 사람 수는 평균 10만여 명, 장사를 하는 상인수는 1500여 명에 이른다. 최정택 모란시장 상인회장은 “서울은 물론 이천·여주·평택·수원·의정부 등 각지에서 온 이들이 물건을 사간다”라며 “모란시장은 성남의 관광 명소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 상인들로 붐비고 있다. 모란시장은 서울 등 대도시와 가깝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에 있는 덕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조선일보, 2009. 4. 7)

위 기사는 성남의 ‘모란민속5일장’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인 성남에서 전통적 민속 정기 시장인 모란민속 각양각색의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거래 시장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성남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 경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은 도시화, 이동 수단과 대중매체의 발달, 농업생산의 전문화와 유통 근대화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환경의 현대적 변화에 따라 점점 쇠퇴의 경향을 띠고 있다. 재래시장은 크게 상설시장은 정기시장으로 구분되고 있고, 이 중 ‘모란민속5일장’과 같은 정기시장은 1970년대 이후 30 여년 간 그 개소수가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고 거래규모도 감소하는 등 쇠퇴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는 상반되게 성남시의 '모란민속5일장'은 꾸준히 발전해와 현재 하루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이 되고, 일일 거래량이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왜 이러한 현상이 성남이라는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 이 글은 성남의 모란민속5일장의 성립과 변화의 발전과정의 사회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고는 재래시장 중 정기시장 중 모란민속5일장과 같은 오일장의 사회적 변화 환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 성남시의 성립과 변화에 대해 간략히 개괄한 후, 성남의 변화 속에서 모란민속5일장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포착되는 모란민속5일장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II. 오일장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 변화

1. 오일장의 의미

백화점, 대형 할인 마트 등 현대적 유통시설과 구분되는 재래시장은 시장이 열리는 시간적 차원에 따라 <그림 1>에서 보듯이 크게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설시장은 일정한 판매 공간을 점유하고 상시적으로 열리는 재래시장이고, 반면에 정기 시장은 상시적 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비상시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남의 '모란민속5일장'과 같이 4,9일 등 일반적으로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일반시장(오일장)과 파시와 같이 특수한 시기에 열리는 특수시장(전문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1〉 재래시장의 분류



본고의 연구 대상인 오일장은 전통 재래시장 중 정기시장에 속하고, 이 중에서도 일반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근대화 이전에는 경제적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였다. 즉 경제적으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거래를 하는 시공간이자,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문화이면서 오락적인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되는 복합적 의미를 시공간이다. 정기시장은 사회 일반적으로 오일장을 지칭하는 일반적 정기시장¹⁾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기시장은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전통적 복합 기능과 구조가 달라지고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4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정기시장의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오일장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오일장의 현대적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핵심적 과정일 것이다. 오일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도시화, 인구구성, 교통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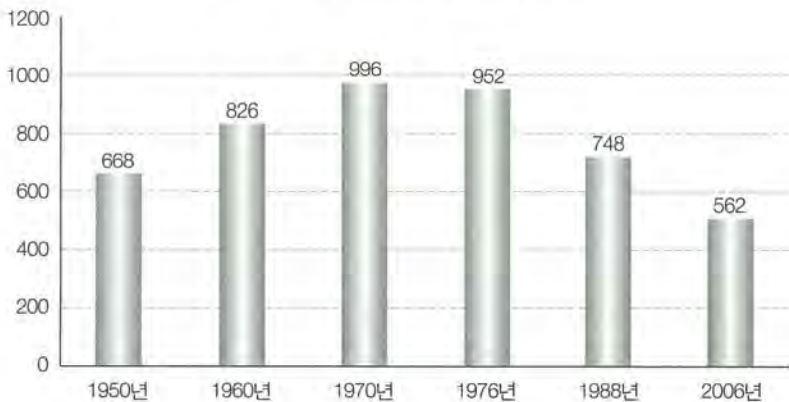
1) 재래시장 중 일반 정기시장은 주로 5일 주기로 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통 '오일장'으로 불린다. 본고에서도 특별히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정기시장을 칭할 경우 '오일장'으로, 모란 지역의 일반 정기시장을 표현할 때는 '모란장'으로 표현한다.

및 대중매체의 발달, 농업 생산의 전문화와 유통 근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2. 오일장의 역사과 기능

우리나라의 오일장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소수에서 해방 이후 성장하였다가 70년대를 정점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다. 오일장의 개소수는 1950년 668개에서 1960년 826개로 늘어났으며, 1970년에는 다시 996개로 늘어났다.

<그림 2> 우리나라 5일장 개수 변화 추이



자료 : 이용선 외, 2007.

이후 1876년에는 952개소를 유지하다가 1988년 747개로 급속한 감소하였으며 2006년 현재 562개소로 급격히 감소하여 해방 직후인 1950년보다 적은 숫자만이 남아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에는 정기 시장이 상설시장보다 많았다. 그러나 2006년 상설시장수는 1,155개소인데 반해 정기시장인 5일장은 562개소에 불과하여 상설시장수가 훨씬 많

아졌다. 상설시장은 30여년 전에 비해 369개소로 47%가 증가한 반면, 정기시장인 오일장은 비슷한 기간 390개소, 즉 41%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1970년 이후 급격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오일장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인간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전개되어 왔다. 생산과 소비는 어느 시대에도 인간 사회에 보편적인 경제행위로서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시장에서 교환과정을 통해 해결해 왔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가격에 의해 매매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과정 또는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시장의 본질을 가격형성의 기능에 두게 되면 장소의 개념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개념, 즉 구체적인 공간인 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일치를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자가 만나는 곳이며 이들이 유통되는 중심지이다. 이때 시장은 장시(場市), 또는 줄여서 장(場)이라고도 한다.

정기시장인 오일장은 규칙적인 시일 간격(5일)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기에 열리는 구체적인 시장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공급과 수요가 집중되므로 사람과 사람을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한데 묶는 역할을 하며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각각의 지역은 시장을 통해 서로 연결시켜 전체 사회와 닿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또한 그 시대 그 지역 주민의 생활실태를 반영하며 생산물을 전시하여 거래를 촉진하고 기술과 지식을 교환하며 물물 교환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정기시장인 오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각종 행사가 행해지므로 볼거리가 풍부하고 개인적인 소식뿐만 아니라 세상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종의 공론장이었다. 그러므로 정기시장은 경제적 교환과 함께 사회적 교환인 이루어지는 장(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가 발생하고, 거미줄 같이 연결된 다른 지역 정기시장으로 전파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기시장은 지역사회 경제의 중심지이고, 오락을 제공하며 문화를 창조하

는 장이기도 하였다.

정기시장인 오일장의 기능은 가장 중심적인 경제적 기능과 경제 외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기능은 1) 농산물 및 일용잡화 거래 기능, 2) 농산물 수집기능, 3) 금융 및 기타 서비스 기능, 4) 농가의 상농업화 및 지역개발의 기능 등이 있다. 결국 정기시장인 오일장은 자급적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유인하는 동기 부여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정기시장인 오일장의 경제 외적인 기능은 1) 사회적 기능, 2) 문화적, 오락적 기능, 3) 지역사회의 유지 및 통합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시장의 사회적 기능이란 지역 사회 내부 혹은 지역사회 간의 소식을 교환하거나 교류를 의미하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사회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공론장(public sphere)로서의 역할을 한다. 문화적이고 오락적 기능은 일상으로부터의 순간적인 일탈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놀이를 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기능은 정기 시장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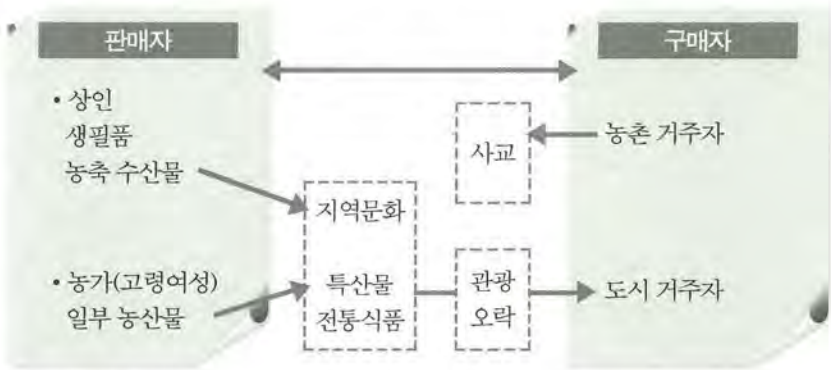
비교적 산업화가 덜 진행된 오일장의 이러한 총체적 기능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그 기능이 변화하게 된다. 현대적 의미에서 정기시장인 오일장의 기능은 <그림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상거래는 담당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확실히 분리된다. 상인은 농

2) 이와 같은 오일장의 기능은 미국의 사회학자 파슨스(1999)가 말하는 사회적 하위 체계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용으로서의 경제활동, 목적달성의 기능으로서 정치, 유형 유지를 위한 문화체계, 통합을 위한 사회체계가 하는 역할이 모두 응축되어 있는 사회의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위 체계	중요 기능
사회 체계(social systems)	통합(Integration)
문화 체계(cultural systems)	유형 유지(pattern-maintenance)
인성 체계(personality systems)	목적 달성(goal-attainment)
행동 유기체(behavioral organisms)	유기체 적응(adaption)

산물, 생필품의 소매 유통에 집중하고 일부 고령여성 농가가 농산물의 판매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와 지역소비자는 오직 구매자이다. 농산물의 판매는 농협의 계통판매, 수집상, 도매시장, 대형 수요처 등에 판매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소매 유통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기시장은 여전히 소비자의 주요 구매처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3〉



출처: 이응선 외, 2007.

3. 정기시장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

정기시장은 모습은 이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를 도시화와 이에 따른 변화, 교통통신 및 대중매체의 발달, 농업 생산의 전문화와 유통 근대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화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명에서 2005년 4,700만명으로 4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의 서울의 변화를 보면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

1960년대 구로동에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었듯이 서울은 조국근대화를 선두에서 수행하는 제 1의 산업도시였다(서울시정개발원, 2001). 이러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정책은 기본적으로 값싼 임금에 기초한 가격 경쟁을 주요한 전략으로 하고 있어, 값싼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저가카 정책' (구해근, 2001)을 비롯한 저렴한 농산품 가격의 유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기초 하에서는 농촌의 빈속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 것이 되어 도농간의 격차는 심화되었다. 이러한 도농간의 격차심화는 다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당시 서울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따라서 서울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을 염원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독점적 기회를 제공하였고, 서울은 거대한 자석과 같이 농촌의 인구를 끌어들이었다.

〈표 1〉 서울의 인구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서울 인구수	서울인구분담률	전국 인구
1960	2,445	11.0	24,989
1970	5,536	17.6	31,435
1980	8,367	22.3	37,445
1990	10,630	24.3	43,522

자료 : 한상진 1999 : 152에서 재구성

〈표 1〉의 자료를 보면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던 1960-70년대에 서울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1980년에는 1960년 약 240만명의 3배가 넘는 약 837만명이 이른다. 그리고 1960년대 서울의 연평균 인구 증가를

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농촌지역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수도권인 경기·인천과 비교하더라도 4배 이상인 8.21%를 기록했다(한상진, 1999).

이러한 서울로 대표되는 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는 인구밀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도시화에 수반된 인구 변화는 단순한 인구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구성도 변화에도 나타난다. 1975년 경제활동인구의 45.7%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였으나, 2005년에는 7.9%만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2005년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는 73.5%나 달해 한국사회는 과거의 1차 산업 위주에서 3차 산업 위주로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1980년 6%에서 2005년 24로 급증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과 지역내 인구 구성의 변화는 정기 시장인 오일장의 모습을 과거와는 다르게 크게 변화시킨다. 도시화는 시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반면, 시장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킨다. 특히 농업지역일수록 고령화되면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구매력이 크게 감소시켜 농촌지역 중심의 5일장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킨다.

2)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 및 유통근대화

교통 인프라, 통신 수단 및 대중매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교통통신과 대중매체의 발전은 사람들의 이동성을 높여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적 관계를 급속히 쇠퇴시킨다. 이러한 도로 조건과 같은 교통 인프라의 발달이나 교통수단의 발달은 시장 상인이나 방문객의 이동이 수월해져 정기시장인 오일장의 기능을 쇠퇴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의 발달은 오일장의 역할 중 정보 교환이나 오락의 제공 등의 역할을 축소시켰

다.

한편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업생산이 전문화되고 공급량의 증가는 오일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생산량이 증가한 농가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농산물 유통보다는 보다 현대화된 유통 형태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원예 농산물은 저장이 어렵고 부패하기 쉬운 작물 특성상 수요가 밀집된 소비지로의 유통 개선이 요청되었다. 이는 곧 전통적인 출하처인 오일장의 역할을 위축시켰다.

또한 농산물이나 일용잡화를 구입하기 위한 소매시설은 197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연쇄점의 형태로, 연이어 슈퍼마켓 등의 형태로 증가하였다. 이후 대규모 할인점의 등의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도 정도의 차이와 시차는 있으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현대적 소매시설의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커지면서 구매장소로서 정기시장의 위상은 추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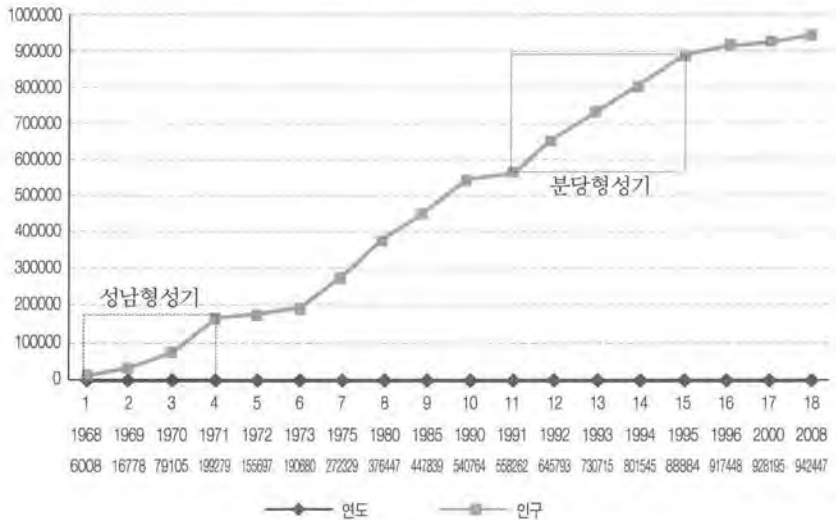
III. 성남의 도시화와 모란민속5일장(모란장)

모란장의 기원에 대해서는 6·25사변 이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는 설이 많으나, 1964년 모란개척단과 주민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겼다는 것이 정설이다.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김창숙이라는 예비역 대령이 모란지역 마을 이장들의 도움을 받아, 제대 군인 40-50여 명을 모아 “모란재향군인회”라는 사설 단체를 설립하여 모란지역을 개척하면서 시장을 개설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란장이 유래는 1963년 모란지역의 상인대표와 지역 유지 및 마을 통반장 책임자들이 여러 차례 의논한 끝에 광주군청에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고 난 뒤에 5일마다 민속의 옛스런 정서를 담고 있는 모

습으로 시작하였던 전통의 장이다. 처음의 개설 당시에는 씨름과 옷놀이, 농악놀이까지 벌이는 등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한춘섭, 1999).

〈그림 4〉 성남시의 인구변동 현황



자료 :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5. 『성남시사2 : 성남의 역사』, 〈성남시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성남시 탄생 이듬해인 1974년 10월에 정식으로 모란장의 폐장 공고가 났었다³⁾.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도시의 환경과 관련해서 시당국이 모란 시장을 폐쇄하려 하였으나, 상인들의 자치적인 유치활동과 경기도 지사의 민원수렴으로 1989년 대원천 복개된 빈터 주차장을 5일 장날에 시장터로 사용토록 하는 해결책을 맞아 오늘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모란 시장이 되었다(설성희, 1992).

3) 당시 행정상으로는 시단위에서는 5일장이 설 수 없기 때문에 폐지 공고를 낸 것 같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시장인 5일장은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왜 모란장은 성남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음에도 그 세력이 계속 유지, 발전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성남이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에서도 보듯이 성남의 탄생은 1968년에서 71년 사이에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이루어진다. 모란대단지 개척이라는 사건에 의해 인공적으로 도시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모란시장은 성남시민들에게 5일장이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가 남아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성남지역의 시장분포 현황

구분	시장분포					
	정기시장	일반시장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도매센터	합계
합계	1	26	4	3	1	39
수정구	-	5	1	-	-	6
중원구	1	3	-	-	-	4
분당구	-	18	3	3	1	29

자료 : <http://seongnam.grandculture.net/>

한편 1980년대 도시로서의 기능이 정비되고, 1991-94년 분당지역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 시설이 <표 2>처럼 지근거리에 많이 생겨나면서 모란시장의 전통적 기능은 쇠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기시장으로서의 오일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반해서 모란시장은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날리며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모란시장이 전국 최대 규모의 정기시장인 5일장이 되는 과정은 성남시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와 분화로 인한 인간의 파편화와 소외에 대항해서 모란장이 새로운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신문들의 방문 기사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글의 모두에서 인용되었던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란 시장이 단순히 상품만을 사고파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정”이라는 공동체적 사회적 관계와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푸근한 심성까지 얻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성남이라는 대도시에 자리 잡은 모란시장은 평소 8~10만의 육박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란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모란시장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노력이다. 모란시장의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은 모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이에 더해 이러한 상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행정기관의 지원도 모란시장이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지금의 모란시장 부지는 시비와 도비 등 33억원을 들여 복개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넓은 시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상인들과 소비자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되어 모란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란시장의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모란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다양할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그 자체로 경쟁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모란시장의 특징을 설성희(1992)는 “1)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고추가 집결되어 염가로 도매 및 소매로 판매된다. 2) 가축(애견, 염소, 닭, 오리)의 도

매 및 소매, 잡곡 일절이 산지로부터 직접 매입되어 도매 및 소매, 4) 약초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5) 향토음식, 나물 등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모란시장의 상품 유통의 특징은 모란시장에 가면 ‘없는 물건이 없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상품 유통의 특징은 모란시장의 체계적 운용 구조라는 인프라를 통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모란시장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성남시 행정력의 전폭적이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용 구조의 체계성은 모란시장 상인회의 구조를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란시장은 상인회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성남시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5〉 모란시장 상인회 구조



현재 모란장의 운영은 상인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상인회의 조직은 위 〈그림 5〉와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상인회는 회장과 2명의 부회장,

사무장, 이사를 두어 전체적인 시장운동을 관장하고, 그 하부 단위로서 화훼부를 비롯해 품목별로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시장 운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방법대를 두어 거래가 원활하게 운용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운영은 행정력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 이러한 운영의 체계성은 모란시장 발전의 또다른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모란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92년 현재 10억원에 이른다 고 한다. 이렇게 그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면 자연스레 혼잡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렇듯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주차난 등의 문제가 생겨 장날이 되면 손님들과 상인들이 타고 온 차로 장터부근은 일대 혼잡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도 인간적인 관계를 갈수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모란장의 참맛으로 자리 잡아, 오히려 모란 시장을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IV. 결론을 대신해서: 모란민속5일장의 사회적 의미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인 성남에서 전통적 민속 정기시장인 모란민속 각양각색의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거래 시장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성남의 대표적인 사회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 경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은 도시화, 이동 수단과 대중매체의 발달, 농업생산의 전문화와 유통 근대화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환경의 현대적 변화에 따라 점점 쇠퇴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 사회적 현상과 상반되게 성남의 '모란민속5일장'의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급격한 도시화와 분화로 인한 인간의 과편화와 소외에 대항에서 모란시장이 새로운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둘째 모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다. 상인들은 체계적인 운용 구조를 갖추려고 노력하였고, 행정당국의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모란 시장을 발전시키려는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노력이 모란시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모란시장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 측면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과 사회적 발전의 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된 모란시장의 생성과 변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이 두 측면을 '관광자원화의 가능성'과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1. 관광자원화 가능성

지역의 문화전략은 지역의 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조명래, 2000).

대표적인 지역의 문화전략 중 하나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다. 장소마케팅은 서구에서는 주로 구산업지역을 중심으로 탈산업화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정부와 지방기업가들이 외부의 기업가와 관광객,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독특하게 구축하여 이를 다양하게 판매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한다(Griffith, 1995).

이러한 문화전략이 지역의 주도적인 발전 전략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현 시기에 문화는 생산의 새로운 요소가 되고, 상품가치 구성의 핵심이

되며, 상품소비의 준거로 작용하는 요소로도 자리 잡게 된다(조명래, 2000). 조명래의 논의에 의하면, 오늘날 서구사회는 2차산업의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와 소비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를 넘어 재산업사회(reindustrialization society)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재산업사회는 3차 산업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경제 영역과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관심의 증대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른바 문화적 요소가 상품구성의 핵심 요소가 되고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 이를 문화경제(cultural economy)라 부르고, 문화경제의 출현은 사회전반에 문화의 논리와 힘들이 전에 없이 두드러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다⁴⁾.

이러한 이유로 모란시장은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도시인들은 모란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매력적인 문화 현상으로서 모란장의 풍경을 소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성남의 모란장은 매우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2.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

성남지역은 급격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소멸에 뒤이은 '사회적 자본'의 붕괴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를 통해 축적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호혜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성남의 경우는 이

4) 이러한 문화경제는 문화가 중심자본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재규정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인 문화사회(cultural society)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는 앙드레 고르가 '노동사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우리사회에서도 '문화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선연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쟁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시대의 문화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만 사용한다.

러한 공동체적 사회적 토대가 내부적 외부적인 요인으로 약화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의 전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더 이상 전통적인 '기계적 유대'에 의존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현대적인 '유기적 유대'의 사회로 볼 수 없는 원자화 되고 개별화 된 사회적 고립성을 심화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 문화적 재생산과 전통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었던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나 공동체의식은 약화되어갔고,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운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성원들이 아니라 외지에 거주하면서 단지 토지와 공간만을 소유한 채 주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외지인'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익명의 외지인들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공간을 잠식해 들어감에 따라 그 동안 농촌사회의 공동체적 유대를 그나마 유지해 주었던 신뢰와 호혜성의 영역 역시 크게 축소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인간관계가 붕괴된 도시에서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모란민속5일장은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지역의 유대와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구해근, 2001,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신광영 역), 창작과 비평사.
- 김혜림·유현준, 2005, “도심 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7(1).
- 박석희, 2000, “관광루트에 있는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 설성희, 1992, “관광자원으로서의 장터·장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

사 논문.

신동주·손재영, 2006, "전통장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8(3).

이용선 외, 2007, "정기시장의 구조와 기능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수철, 2008, "지역의 문화거버넌스", <지역사회학> 9.

_____, 2009, "일상의 연대와 도시 공동체의 조건",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익구·박구원·박진우, 2008, "재래시장 명소화 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2).

한춘섭, 1999, 『성남 문화 유산』, 동명사.

조명래, 2000, "문화경제와 문화도시계획." 《도시연구》, 제6호.

한상진, 1999, 『도시와 공동체』, 한울.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성남시사』

Griffith, R. 1995,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12(4).

Parsons, Talcott, 1971, The System of Modern Society, Prentice-Hall.

(윤원근 옮김. 1999. 현대 사회들의 체계, 새물결)

조선일보(2009.04.07)

성남 디지털 문화대전(<http://seongnam.grandculture.net/>)

부 록

성남문화연구 1~16호 연구 논문 총목록

학술회의 1~15회 연구 논문 총목록

학술토론회 1~8회 연구 논문 총목록

성남문화연구

1호(1994)

- 김창환(金昌煥), '城南市の地形環境 研究'
박상규(朴相圭), '城南地域の地名性格 考察' -百濟語와 高句麗語의인 要素를 中心으로-
어순영(魚順英), '民族文化宣揚에 관한 小考'
이형구(李亨求), '永昌大君 墓誌銘 發見과 永昌大君 略史'
장삼현(張三鉉), '城南의 世居姓氏와 人物考' -墳墓를 中心으로-
전보삼(全寶三), '碧巖 覺性禪師의 生涯와 思想'
한춘섭(韓春燮), '城南 漢詩 同人 [詩集] 資料 考察'

2호(1994)

- 김창환(金昌煥), '城南市 모란 地域의 商街 機能에 관한 研究'
박상규(朴相圭), '城南市 地名研究' -壽井區 高登洞 '도랑터' 를 中心으로-
백남옥(白南郁), '百濟의 초기 疆域에 관한 研究'
어순영(魚順英), 전재열(全在烈), '韓國 民俗 公演場 施設基準을 위한 基礎的 研究'
전보삼(全寶三), '南漢山城의 民族精神 研究'
한춘섭(韓春燮), '모란地域의 郷土史 정리'

3호(1995)

- 김창환(金昌煥), '성남시의 인구증가와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Ⅰ)'
박상규(朴相圭), '성남지역의 지명어 '-재' 연구'
백남옥(白南郁), '고대 남한산고'
소진광(蘇鎭光), '성남의 산업구조'
장삼현(張三鉉), '금광동 광산 김씨에 관한 연구'
장철수(張哲秀), '경기지역과 동구릉의 문화적 연관성'
전보삼(全寶三), '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
한춘섭(韓春燮),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허창무(許昌武),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조병로(趙炳魯),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Ⅰ)'

4호(1997)

- 허창무,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 장철수, '南漢山城 百濟 始祖 溫祚王廟의 建立過程'
 백남옥, '百濟 漢城時代의 都城에 관한 연구'
 조병로, '17, 8세기 南漢山城의 再修築에 관한 一考察'
 장삼현, '南漢山城과 義理思想에 對한 研究'
 박상규, '三田渡 大正황제 공덕비문의 원문재구와 보존책에 관한 연구'
 전보삼, '南漢山城 文化財 現況과 保存策에 관한 研究'
 한춘섭, '남한산성 가톨릭 殉敎史 고찰'
 김창환, '남한산성의 지형환경 연구'
 소진광, '南漢山城의 가치와 활용방안'

5호(1999)

- 백남옥, '삼국의 전성기의 성남지역에 대한 考察'
 조병로, '朝鮮後期 南漢山城의 修築과 防禦施設(II)'
 장철수, '남한산성 현절사의 建立過程'
 전보삼, '南漢山城 文化遺蹟의 保存과 懸案에 대하여'
 조유진, '南漢山城과 北漢山城 比較 研究'
 한춘섭, '滙村 李集의 研究'
 최종민, '경기도 동남부 지방의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연구'
 천화숙, '1920년대 조선 여자기독교청년회의 연합회의 농촌사업과 경기지역'
 소진광, '『삶의 집』 제고를 위한 성남시 정부의 역할'
 허창무, '城南과 瀋陽間 姊妹都市 結緣의 歷史的 意義와 21世紀를 향한 協力強化 方 案'

6호(2000)

- 백남옥,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김기빈, '병자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천화숙, '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兪珪卿'
 한춘섭,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허창무,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장철수, '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박순임, '성남에 있어서 시민 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지교헌,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방안'
 소진광, '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전보삼, '산성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7호(2001)

- 조병로, '朝鮮時代 天臨山烽燧의 沿革과 位置'

백남옥, '조선후기 金陵 南公轍의 정치운영론'
 김기빈, '남한산성의 門樓·樓亭·寺刹 등의 명칭에 대한 小考'
 한춘섭, '近現代 城南의 歷史 試論'
 지교현, '성남「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원형'
 허창무, '가칭『성남시향토문화전자대전(CD-Rom)』의 研究 계획'

8호(2001)

조유전, '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古代歷史)'
 백남옥, '高麗末과 朝鮮初의 城南地域에 관한 考察'
 문수진, '성남시의 集姓村 研究'
 김기빈, '성남시 관내 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 研究'
 지교현, "'삼학사전"과 함청의리의 유학적 평가'
 천화숙, '한국근대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 -YMCA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춘섭, '학고(鶴阜) 권오선 文士의 漢詩 연구'

9호(2002)

백남옥, '伯濟國'의 성립과 성남지역'
 문수진, '羅末麗初의 支配勢力과 城南'
 조유전, '發掘調査를 통해 본 南漢山城 行宮址'
 정은경, '19세기 城南地域의 농민항쟁'
 서승갑, '일제 강점기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한춘섭, '박태현 작곡가의 예술활동 연구'
 김기빈, '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研究(2)'
 한동역, '일제에 의해 변경된 성남지역의 지명연구'
 박종민, '널다리 쌍용줄다리기의 내용과 의미'

10호(2003)

김기빈, '성남지역의 「地名偶合」 또는 「豫言性」 지명의 사례연구'
 박종민, '지역사회 喪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백남옥, '百濟 初期의 領域擴大와 地方統治'
 서승갑, '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전보삼, '성남의 정체성에 관한 일고찰'
 정은경, '근대 城南地域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한동역, '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
 한춘섭,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11호(2004)

- 채수명, '탄천문화 방출방법론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천화숙, '조선 후기 강위의 개화사상'
한동익, '울리마을 구비문화 연구'
한춘섭, '龜川君 생애에서 얻어진 詩文 研究'
허흥식, '樂生地域 延安李氏의 世居와 重要자료'
현영조, '환경과 문화관점에서 본 도시공간 연구'

12호(2005)

- 조유전, '분당지역의 선사문화 시론'
김덕목, '성남의 무속신앙'
채수명, '모란시장문화 창출방법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천은복, '성남지역의 불교의례 연구'
한동익, '성남지역의 왕실문화의 연구 II'
한춘섭, '성남의 忠孝 인물 조사'

13호(2006)

- 손환일, '연성군 이근 묘비 삼족오의 위상과 가치'
문수진, '조선 초기 성남의 인물 검토'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윤종준, '조선의 유형 집행과 양녕대군 이제의 광주 안치'

14호(2007)

- 한춘섭,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찾기'
손환일, '조선시대 경기도 성남지역 금석문의 서체'
문수진, '양란의 극복과 성남지역'
이 영, '남한산성의 원형경관 복원에 대하여'
윤종준, '한말 성남지역 의병전쟁 연구'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세계'

15호(2008)

- 손환일, '경기도 성남지역 조선시대 석비의 표제양식과 서체고찰'
윤종준, '천림산 봉수 복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봉수 운영의 실태'
김위성, '성남시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개선연구'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조남두, '성남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연구'

이수철, '지방화 시대에 문화적 요구의 대응을 위한 성남문화원의 역할'

16호(2009)

문수진,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과 성남 모란시장

손환일, 한지(韓紙)의 현대적 실용화 전략

조남두, 성남지역의 취학전 교육 실태조사 연구

윤종준, 탄천(炭川)의 지명 유래와 역사 고찰

권 일, 성남시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일,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특성 연구

학술회의

제1회(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 백남옥, '백제한성시대의 남한산성'
조병로, '최근에 발견된 남한산성수축비에 대하여'
진 완,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전보삼,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張 杰, '병자호란과 조선'
박상규, '지명어를 통해서 본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
차용걸, '한국의 산성연구 동향과 과제'
小田富士雄, '서일본 고대산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성과'
孫玉良, '동북 역대산성의 흥망성쇠 약속'
소진광,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2회(남한산성과 삼학사)

- 유승국, '남한산성과 삼학사의 절의정신'
千文甲, '삼학사의 민족정신과 그의 기념비'
전보삼, '한 · 중 사행로 답사 보고'
정옥자, '병자호란시 삼학사의 활동과 의의'
장철수, '조선 현절사의 건립배경'
張玉興,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한춘섭, '삼학사의 시문학 고찰'
姜相順, '삼학사 사상과 인조와의 갈등'
지교헌, '상도와 권변의 생존철학'

제3회(향토인물연구-둔촌(遁村) 이집(李集)선생)

- 민병하, '둔촌선생의 성리학적 지위(遁村先生の 性理學的 地位)'
최영희, '갑자사화와 광이(甲子士禍와 廣李)'

제3회(향토인물연구 -여류문사, 강정일당)

- 한춘섭, '한국여인의 표상(여류문사 강정일당 작품세계)'
김미란, '강정일당의 생애와 문학(姜靜一堂의 生涯와 文學)'

제4회(향토인물연구 -白軒 李景奭과 金陵 南公轍)

이성무, '성남문화와 백헌 정신'
신원봉, '백헌 이경석의 노검정신'
이은순, '백헌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
강혜선, '백헌 이경석 시세계 연구'
이장희, '정조 순조연간의 학풍과 남공철의 위상'
지교현, '금릉 남공철의 생애와 학문'
박순임, '금릉 남공철의 문학론'

제5회(향토인물연구 -문정공 한계희)

문수진, '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
지교현, '울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독립운동'

제6회(향토인물연구 -아천군 이증)

정은경, '선조조 정치세력의 동향과 이증의 활동'
박순임, '이증의 한시 연구'

제7회(조선시대 청백리정신의 현대적 조명)

이서행, '공직부패와 청백리 윤리'
문수진, '조선시대 청백리제도과 기능'
한춘섭, '탄천 이지직의 청백리 정신'
지교현,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제8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유준기, '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 항쟁'
서승갑,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한상도,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제9회(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손정목, '8.10사건의 경위 - 서울시의 입장에서'
하동근, '8.10사건에 대한 입장들'
박태순, '밑에서부터 본 8.10사건'

제10회(성남지역에서 천장된 역사인물 연구)

박상건, '남이흥(南以興)장군의 생애(生涯)와 충장정신(忠壯精神)'
정성희, '정묘호란 시기 안주성 전투와 남이흥 장군'
한춘섭, '삼봉 이극증의 인물 알기'
유주희, '이극증의 생애와 정치활동'

제11회(삼족오와 성남문화)

손환일, '연성군 이근 묘비 삼족오의 위상과 가치'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발해 연안 鳥類 숭배 사상과 聯關하여)'

허흥식, '삼족오의 동북아시아 기원과 사상의 계승'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제12회(판교의 문화와 전통)

현영조, '판교의 전통적 경관에 관한 연구'

서승갑, '조선시대 교통망에서 본 판교'

신익철, '판교와 한시'

최은수, '복식류에 표현한 금박에 관한 소고'

제13회(판교 · 도촌지구 발굴문화재의 보존방안)

윤선영, 판교 지구 문화유적 발굴의 성과

안성민, 판교 지역 문화유적의 시대구분과 문화사적 의미

김주홍, 성남지역 문화재 분포현황과 보존의 방향

윤종준, 성남의 역사적 특징과 문화유적 보존방안

제14회(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

윤종준, '모란의 과거와 미래'

이수철, '모란 민속 5일장의 사회사적 의미'

이상열, '모란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손환일, '간판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

제15회(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

이만열, 신간회 활동의 역사적 의의(기조강연)

김인식, 신간회와 민족협동전선운동

조성운, 일제하 광주(성남)지역 신간회지회 조직과 활동

성주현,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의 인물들

학술토론회

제1회(松山 조건 인물 연구)

문수진, '고려말기 정세(高麗末期 政勢)'

한춘섭, '송산 조건 인물 연구(松山 趙翊 人物 研究)'

제2회(판교지역 연성군 이곤 금석문 연구)

허흥식, '향토사와 문중에서의 역할'

한춘섭, '연이, 연성군의 가계연구'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의 양식·문양·서체에 관하여'

이민식, '연성군 문중의 금석문 분포현황과 성격'

제3회(조선 초기 광주이씨 인물연구)

김문택, '탄천 이지식의 관직생활과 청백리'

배 성, '이극규의 생애와 정치활동'

김학수, '이극기의 가계와 관직활동'

박병련, '조선전기 士林/勳舊 葛藤과 士林이데올로기의 政治的 政當化'

한춘섭, '廣李' 門中 武人 列傳'

제4회(전주이씨 신중군 이효백 연구)

이용규, '신중군 이효백의 가문과 생애'

윤종준, '신중군 이효백의 시대적 배경'

손환일, '신중군 이효백 묘소의 조성물'

제5회(동천 남상목 의병장 공훈 재조명)

김상기, '남상목 선열의 의병운동의 역사적 배경' (기조강연)

윤종준, '남상목 의병부대의 정미의병과 무장투쟁'

서승갑, '동천 남상목 의병장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과 기념사업 추진 방향'

제6회(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

문수진, 조선의 건국과 청주한씨의 성장

손환일, 경기 성남 울동 청주한씨 세장지(世葬地)의 석조물

손미숙, 한지원(韓智源)묘역의 석물 고찰
권영애, 한명욱(韓明勗)묘역의 석조물에 대하여
이재목, 한전(韓甸) 묘역의 석물과 서체고찰
한동익, 栗洞 淸州韓氏 家系정리

제7회(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한동익,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윤종준, '성남출신 의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서승갑,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강진갑, '성남지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제8회(조선 초기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의 가치)

문수진, 조선의 건국과 광산김씨의 성남세거
윤종준, 평양서윤 김순성의 관직이력에 대한 고찰
손미숙,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 조성물의 중요성과 가치
손환일, 김순성 묘비 서체의 중요성과 가치

편찬위원

한춘섭(성남문화원장)
한동역(경기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백종오(충주대학교 교수)
김주홍(LH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사)
윤종준(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강진갑(문학박사,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장)
이수철(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성남문화연구

제17호

인쇄 : 2010년 9월 15일

발행 : 2010년 9월 20일

발행인 / 한 춘 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26

전화 / (031) 756-1082, 1028

팩스 / (031) 756-1056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culture.or.kr>

e-mail / culture1082@hanmail.net

제작 / 주식회사 좋은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2-13 우성빌딩 4층

전화 / 070-8888-8876

팩스 / (031) 732-8876

※이 책은 성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THE JOURNAL OF SEONG-NAM CULTURE

Vol.17

September, 2010

| Contents |

Article

- Han, Dong-Eok The study of Seongnam local history and allegiance
- Baek, Jong-Oh The Conservation and Use of Signal Fire Remains
in Choson Dynasty
- Kim, Ju-Hong Indications of Signal Fire Standson Local Maps in the
Late Joseon Dynasty
- Yoon, Jong-Jun A study Myeong-seon & Myeong-hye gongjue(Princess).
- Kang, Gin Kab A Study for developing Cultural-content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Sites at Seongnam.
- Lee, Soo-Chul Social Meaning of Moranjang(Periodic Market)' s
Formation and Development
-

Publish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N PROVINCIAL
CULTURE OF SEONG-NAM**

6926, Shinheung1-dong, Sujeong-gu, Seongnam-City, 461-161, KOREA